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함을 즐겨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8월 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13호 2016년 9월 7일 수요일

차례·신행 동시에… '사찰차례'가 대세

2016 추석특집
cover story

주부 강 모(50, 서울 대치동) 씨는 올해 추석 차례를 인근 사찰에서 지내기로 했다. 딸만 있는 집안이라 지난해만 해도 딸의 도움으로 차례 음식 준비가 수월했지만 올해 딸을 시집보낸 뒤 혼자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 씨는 "차례 때 친척들이 그다지 많이 오지 않는 데다 남들처럼 며느리와 함께 준비할 수도 없어서 결국 신위만 모셔서 가까운 절에 가서 차례를 지내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명절 문화

최근 명절 풍속도는 불과 10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10년간 추석 나기는 짧고, 가깝고, 실속 있는 방향으로 급격히 변화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귀성객들의 고향 체류 기간은 2004년 '3박4일 이상'이 40.3%에서 2014년 25.5%로 14.8%나 줄었으며, 1박 2일은 25.1%에서 32.2%로 7.1% 늘었다. 추석 연휴 기간 내 수도권 안에서 움직인 가구의 비율도 18.3%에서 23.2%로 4.9% 증가했다. 수도권 거주자 중 4명중 1명은 추석에 고향을 가지 않게 된 것이다.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불교민속학회장)는 "과거 대가족 중심의 농업사회에서는 가족이 공동체를 형성했지만 핵가족화와 산업화에 따라 개인이 주체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가족 또는 명절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차례는 지내야

하지만 아직까지 차례를 지내야 한다는 보수적인 시각은 여전하다.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사찰 차례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다. 수도권 각 사찰들은 늘어난 인파로 분주하다.

서울 조계사의 경우 추석 합동차례 동참 가정이 2013년 846가구에서 2014년 905가구, 2015년 955가구로 증가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900여 가구가 신청한 상태다. 매년 7%씩 증가하고 있다. 조계사는 2013년부터 3부제를 지내고 있다.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은 "10여년 전만 해도 명절에 합동차례를 모시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사찰 종무원이 다수가 나와야 할 정도로 중요 행사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봉은사는 2013년 1055가구에서 2014년 1145가구, 2015년 1172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봉은사 관계자는 "예년보다 더 접수된 상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120가구에 한해 진행되는 단독차례의 경우 지난해 10여일간 모집됐다면, 올해는 이미 공고 이틀만에 모집 마감됐다"고 전했다.

대구 동화사의 경우 이번 추석에 50여건 이상의 합동차례 접수를 받았다. 추석 당일 사시예불 후 차례상을 준비해 가족들이 가져온 위패를 모시고 차례를 지낸다. 차례 지내기가 어려운 신도들은 종무실을 통하거나 전화를 통해 합동차례에 참가한다. 10만원 정도의 접수비용만 주면 절에서 차례를 지낼 수 있다.

단순 차례 대행은 '본말전도'

사찰차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단순히 시민들의 편의성 증대에만 사찰이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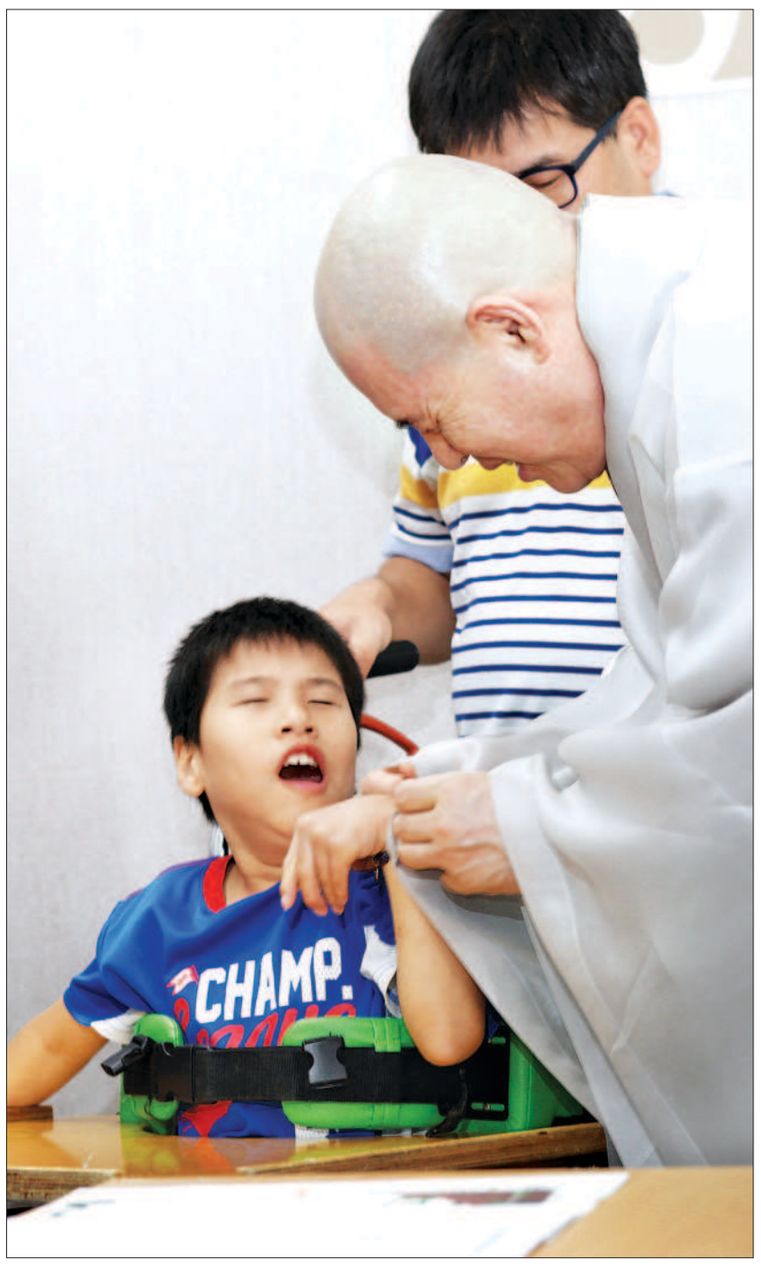
불교민속학자인 구미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사찰이 단순히 차례 편의 증대에만 그친 대행업에 머무

명절 미귀향 가구 25% 달해
사찰차례 동참자 연 7% 증가
수도권 사찰차례, 2부제 운영
"불교계 세시풍속 개발 필요"

른다면 차례문화 쇠퇴와 함께 곧 외면받고 말것"이라며 "다문화가족 이산가족,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돕거나 통일발원기도 등 민족 명절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기도 등도 함께 진행해 본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가 음력문화를 보존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용덕 한양대 교수(비교민속학회장)도 "설 단오 추석 등의 명절은 유교와 불교, 농경문화 등 우리의 전통이 섞인 문화다. 하지만 농경문화 · 유교문화가 사라져가며 이제 불교문화만이 보루로 남게 됐다"며 "최근 사찰에서 칠석, 동지 등에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일반에서 이미 잊혀져 버린 세시풍속을 유지해 가는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추석 차례 또한 외부에서 잊혀져 가는 세시풍속을 불교계가 연구 개발해 전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런 노력이 사찰로 국민들을 끌어들이는 이벤트가 되고 포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우리 다 나을 때까지 파이팅 하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8월 30일 자비나눔행 펼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자비나눔 행이 펼쳐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30일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1억 3800만원의 자비나눔 성금을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비와 수술비로 전달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최승현(15) 군을 직접 격려하기도 했다. 최 군은 혼자서 움직이기 어려운 뇌병변 1급 장애로 인해 복지관에서 물리치료와 작업, 언어치료 등을 받고 있다. 자승 스님은 최 군의 부모와 재활치료를 맡고 있는 물리치료사에게도 "고생이 많다"며 복주머니와 단주를 선물했다.

전달된 기금은 지난 4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진행한 '제16회 난치병어린이지원 3000배' 정진에서 모연된 것으로 난치병 환아 15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2016 추석특집 12 · 13 · 14 · 15면
조계종 교육원 중국 선종사찰 순례 현장 21면

도난됐던 '송광사 오불도' 내년 다시 한국으로 온다

조계종 · 문화재청 · 포틀랜드博, 송광사 반환 협의



미국 포틀랜드박물관에 기탁 중인 송광사 오불도. 내년 상반기에 송광사로 돌아온다.

도난됐던 송광사의 오불도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종단과 문화재청의 공조 끝에 이뤄진 성과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문화재청(청장 나선화), 미국 포틀랜드박물관(관장 페리소)은 "로버트 마티엘리(Robert Mattielli · 86) 씨가 포틀랜드박물관에 기탁한 '오불도'가 원소장처인 송광사로 돌아가는데 동의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이는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지난해 3월 미국 경매에 출품된 도난 불화인 '선암사 동악당재인대선사 진영'을 협력을 통해 환수한 이후, 두 번째 성공사례이다.

'오불도'는 '오십삼불도' 중의 하나로 〈관약왕약상이보살경(觀藥王藥上二菩薩經)〉을 근본경전으로 조성한 불화다. 이는 송광사를 비롯한 일부 사찰에만 전해져 희소성이 매우 높다.

이 같이 귀중한 성보인 '오불도'의 반환 합의는 마티엘리 부부의 불화 보

소장자 마티엘리 반한 동의
12월 특별전 · 심포지엄 後
2017년 상반기 중 '환지본처'

존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포틀랜드박물관의 적극적인 중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발간 등 조계종의 불교문화재 도난 방지에 대한 노력도 주요했다.

실제, 기탁자인 마티엘리 씨는 1970년 초에 서울 안국동 골동품점에서 목가구를 구경하던 중에 서랍장에서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구겨져 있는 '오불도'를 처음 발견했다. 2주 후, 그가 다시 그 골동품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목가구는 팔렸고, '오불도'만이 구석에 놓여 있었다. 마티엘리 씨는 이를 구입해 보존처리 전문가를 통해 수리했고, 1985년 '오불도'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와 보관하다가 2014년에 포틀랜드박물관에 기탁했다.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4년 7월에 포틀랜드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 현황을 조사하던 중 기탁된 '오불도'가 도난 불화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협의를 통해 포틀랜드박물관의 중개자로 나섰고, 도난 문화재임을 확인한 마티엘리 부부는 원 소장처인 송광사로 돌아가는 것에 적극 동의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측은 "발견 당시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구겨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티엘리 부부의 한국 문화재에 대한 애정과 보존 노력이 아니었으면 '오불도'는 지금까지 남아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오불도' 환수가 한국과 미국 간 상호 이해와 문화교류의 모범사례로써 미국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포틀랜드박물관에서 특별전과 심포지엄을 개최한 후, 2017년 상반기 중에 한국으로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전은 오는 9월 3일 시작해 12월 4일까지 개최되며, 심포지엄은 12월 3일 열린다. 심포지엄에서는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가 '한국불교와 송광사'라는 주제로, 마야 스틸러 캔자스 대학 교수가 '오불도와 한국의 불교의식'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또한, 조계종과 송광사는 2017년 상반기에 개최 예정인 '오불도' 봉안식에 마티엘리 부부와 포틀랜드박물관 관계자를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조계종은 "앞으로도 외국에 소재하는 도난 불교문화재를 적극 환수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2017년 상반기까지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를 증보하고 영문판으로 발간해 미국, 프랑스 등 180여 개국과 국제형사경찰기구, 국제박물관협의회 등 국제기구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즐겁게 보내세요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80권의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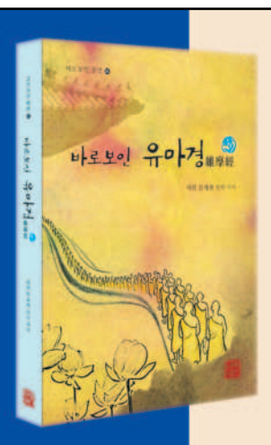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81권 중 5권 출간

모연문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출간 불사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라 할 것이니, 불보살님이 교화하는 경지에서의 깨달음의 실경과 신통자재한 방편행을 보여주는 최상승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가 〈대원선사 토끼뿔〉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가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禪의 일상, 禪의 누림!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구, 바로보인)

“내년 석탄일 대사면” 자승 스님 공언 논란

8월 23일 제52차 원로회의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내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대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8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2차 원로회의에서 “내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대산면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승 스님의 입장은 원로의원 명선 스님의 질의에 따른 것으로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의현 스님 등 1994년 종단개혁 등이 포함된다.

이에 앞서 명선 스님은 “지난 10여 년간 수차례 종단 화합을 위한 사면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종단 행정수반에게 직접 대사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원로의장 밀운 스님도 “원로회의가 중앙종회에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법 제정이나 종헌 개정 등 어떤 방식으로든 멸빈자 대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계종은 100인대중공사 등을 통해 94년 개혁 당시 멸빈자 사면 등에 대한 종도 여론을 물은 바 있다. 8월 22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도 서의현 전 총무원장 스님이 참회문을 발표하려 했으나 대중공사 위원들의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노덕현 기자**

불교사회硏 5주년… ‘호국불교 개념 정립’ 등 과제

8월 26일 〈5주년 종합보고서〉 공식 배포

한국사회 현안을 불교적 시각서 통찰하기 위해 출범한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 이하 불사연)가 출범 5주년을 맞아 〈불교사회연구소 5주년 종합보고서(2011~2015)〉를 출간해 눈길을 끈다.

불사연은 이번 보고서서 그간 연구활동을 크게 3가지(종책 · 사회 · 호국불교) 분야로 나누고, 성과와 향후과제를 제시했다.

“종책 연구, 집행 · 평가로 이어져야”

불사연은 종책 분야와 관련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 세부주제는 △수도권 포교 활성화 △사찰재정 투명성 △종단 재정 활성화 △수행체계 △타종교 현황 △종교공동체 △템플스테이 정책개발 등 14건 이상이다.

특히 2011년 출범 이후부터 매년 정기 대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제는 한국사회 및 종교계 전반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까지 3년 주기 정기조사(2011 · 2014년)와 간이조사(2012 · 2013 · 2015년) 총 5건이 진행됐다.

이러한 대국민여론조사는 데이터를 통해 종교 및 불교에 대한 사회적 추세를 확인하고, 종교가 나가아할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단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불사연은 종책 연구 결과가 실질적으로 종책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자평했다. 불사연이 기획 ·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책수립-집행-평가’란 선순환 구조가 수립돼야 한단 지적이다.

불사연은 “종책연구는 기본적으로 종단에 백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며 “연구의 질 자체도 중요하지만, 종책 담당자들이 연구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행 연구 결과물을 통한 후속 연구를 진행, 전문 데이터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불사연은 “연구보고서와 자료가 축적돼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결과물에 대한 관련 부서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양한 사회연구… 대게 외주 ‘아쉬움’

불사연은 ‘불교 사회 연구’를 목적으로 출범한 만큼 사회분야 연구서 각광을 나타냈다.

2015년 4.15세월호 참사 1주기 당시엔 추모 세미나를 개최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3대종교(불교 · 개신교 · 가톨릭) 역할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 밖에도 현대사회 문제 및 갈등사안으로 대두된 △다문화 △3대 빈곤 △양극화 △성소수자 등 연구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2011~2015 출범 후 활동 정리

종책 · 사회 · 호국불교 3분야 나눠

사업 개요 및 향후 과제 제시

“호국불교 개념 정립 미흡 아쉬움”

이 일련의 성과에 대해 불사연은 연구가 대부분 외주로 진행된단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불사연은 “외주 연구는 다량의 결과물을 생산하고, 외부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단 측면서 긍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연구원 개인 연구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제약이 있다”며 “연구소 발전을 위해선 연구원마다 고유한 연구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1인 연구원에게 3년 장기 연구 과제를 편성하고, 단기 연구 과제와 적절히 병행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불사연은 “사회연구 주제는 각 이익집단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된다. 특히 연구소는 종단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집단의 의견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적 보폭을 유지해야 한다”며 “균형 유지에 실패할 경우 생산된 연구 결과물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교 역사 바로 잡기 ‘앞장’

불사연은 불교 역사의 위상을 세우는 일에도 앞장섰다.

먼저 초중고 교과서 검토사업 일환으로 △초등학교 전 교과서 불교 서술 체재와 내용 △중학교 역사교과서 불교 서술 체재와 내용 △고등학교 한국교과서 불교 서술 체재와 내용 △고등학교 동아시아교과서 불교 서술 체재와 내용 △중동교과서 불교 미술 서술과 내용 등 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2015년엔 불사연 산하 ‘교과서연구위원회’를 출범하고 윤리 · 역사 교과서의 왜곡되거나 미흡한 불교 관련 서술 내용을 개정토록 청원서를 제출, 교육부가 지침을 고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아울러 불사연은 ‘호국불교’의 개념 정립과 역사적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만전을 기했다. 매년 2차례 호국불교와 관련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논문집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1 · 2〉 및 자료집 〈조선시대 승장〉 등을 발간한 바 있다.

그러나 불사연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호국불교’의 개념 및 범주가 합의되지 못한데 대해 안타까워했다.

불사연은 “‘호국불교’ 개념 및 범주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설득력 있는 결론엔 이르지 못했다”며 “한국사에서 불교를 단순히 종교적 차원이 아닌 국가와 공존, 주류 전통, 민중 삶의 일부로 본다면 호국불교 범위 또한 넓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호국불교 관련 학술연구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연국 성과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 개최 △북한불교에 대한 연구와 남북공동학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기협, “불교계 청탁 금지 정착 앞장 설 것”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불교기자협회가 법안 정착과 불교계 관행 변화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현태, 이하 불기협)는 8월 26일 김영란법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취재지원 명목으로 이뤄져온 일부 관행적 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불기협은 “협회 소속 언론인들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보다 엄격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어떤 청탁도 사적 이익을 위한 요구도 단호히 배격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기협 측은 이미 소속 언론인들이 언론인윤리규정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으며 취득 정보를 보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혜나 편의를 제공 받는 것을 지양해왔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탄자니아에 부처님 가르침 전하길

9월 5일 개교하는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에 대한 후원이어지고 있다. 익명의 스님들(3000만원)과 서울 화계사(1000만원), 대성하이텍(2000만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각림, 성행, 제정, 등운, 지홍 스님(1000만원) 등은 개교를 앞둔 8월 30일과 31일 아름다운동행에 기금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중앙종회의원 스님, 화계사, 봉은사, 대성하이텍의 기금 전달 모습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드 제3후보지… 내 지역만 아니면 되나?”

성주사암연합회장 지혜 스님, 지역 이기주의 ‘비판’

국방부가 첫 후보지로 지명한 성산포대가 아닌 롯데스카이힐 성주CC(성주골프장)가 사드 배치 제3후보지로 유력해진 가운데, 지역 이기심이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성주골프장과 불과 7km 떨어져 불똥이 튄 김천 지역민들이 ‘사드배치반대대책위’를 꾸리는가 하면, 성주 내에서도 제3후보지 배치에 대한 일부 찬성 여론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

성주사암연합회장 지혜 스님은 8월 31일 본지와 통화서 이러한 세태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지혜 스님은 “사드는 한반도 어느 지역에라도 배치되면 안 된다. 사드 배치 후보지가 거론될 때마다 그 지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성산포대가 첫 후보지로 대두됐을 땐 가만있던 김천 지역민들이 이제야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그러한 이기심은)사드가 내 지역에 배치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서 비롯된다. 내 이웃은 죽어도 되고, 내 가족만 살면 되냐”고 반문했다.

“성주군민은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촛불집회 50일, 동참인원 늘어

2차 한반도 평화대법회 추진 시사

특히 지혜 스님은 일부 언론서 ‘성주군민들이 제3후보지는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성주 군민들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단 것.

스님은 “오늘로 사드배치 반대 촛불집회 50일 째를 맞는데 동참인원은 더욱 많아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군민들을 보고 있으면 경이롭기까지 하다”며 “군민들 의견이 분열되고 있단 얘기는 외부서 꾸며진 것이다. 성주 불교계 뿐 아니라 군민 모두가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제3후보지를 두고 정부와 국방부, 지자체가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 추후 상황에 따라 2차 한반도 평화기원 대법회 등 계획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이러한 성주군 사암연합회 의지에 대해 “사드 배치 반대 법회 등 추후 활동에 동참하겠다”며 “지역 현안에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드 배치는 모두가 함께 나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대한불교 원효종 공고문

대한불교원효종에서는 **향운(김윤철)스님**이 현대불교신문에 게재한 광고가 잘못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5가합359 총무원장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의 판결문에 명시된 중요사항 및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문 : 김윤철이 총무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김윤철 주도로 2009. 6. 8. 총무원장에게 피고의 대표권을 부여하는 조항인 종헌 제37조를 의결하였고, 같은날 종회에서 **장영국(법명:혜봉)을 피고의 종정**으로 추대하였다.

의미 : 2009. 6. 8. 종회는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5부의 종정추대를 위한 종회소집 허가를 받아 소집된 종회이고, 이 종회에서 장영국(법명 : 혜봉)을 종정으로 추대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이며, 이 날 정식 종정이 추대되었으므로 정식 종정의 추대를 위하여 법원에서 선임한 임시종정 **김윤철의 임시종정으로서의 지위는 당연히 소멸된 것입니다.**
정식종정이 추대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이 임시종정이라고 광고하는 김윤철의 허위광고에 종도 여러분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윤철은 명백히 임시종정이 아닙니다.**

판결문 : 피고는...1개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두고 종회의원들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선출결의는 종회의 소집절차가 법인아닌 사단에서의 총회절차에 관한 일반법리 및 종회법 제17조의 취지에 어긋나고 현저하게 불공정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김윤철은 피고의 총무원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바 없으므로... **무권한자인 김윤철에 의해 소집된 이 사건 종회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의미 : 제1심 법원은 1개월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두고 종회의원들에게 미리 소집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9. 8. 17.자 김윤철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한 종회결의 및 2013. 11. 28.자 손영채(우석)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한 종회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단의 구 종회법 제17조는 ‘종회는 개회 1개월 전에 의장이 종정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단 종회의원 선거 후 첫 종회는 종정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종회의 소집권자를 규정하는 조항이지 소집통지 기간을 규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소집통지 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71조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누가 보아도 소집통지 기간을 규정한 조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이 종단의 종회법을 그 문언의 의미와 전혀 다르게 해석하여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을 하였기에 종단에서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도, 판결확정의 의미도 모르는 김윤철은 현대불교신문에 허위광고를 게재하여 타 종단으로부터 일반상식도 모르는 종도가 있는 종단이라는 조롱을 면키 어렵게 하였습니다.**

종도 여러분께서는 법률적 상식이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도 없이 아직도 임시종정이라고 혼자만의 착각으로 허위광고를 게재한 김윤철의 행위를 자비와 관용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우리 종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기대하며 법원의 재판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 총무원 : 경북 경주시 충현로 3길 4-1
● 연락처 : 054)743-0700 / FAX 054)741-9002
문의사항 있을 시 총무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1일

대한불교 원효종 종 정 설재 정광
총무원장 우석

문화재관람료 징수, 불교 안팎 온도차 크다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 논의 발단
비판여론 확산… 현행제도 한계 지적 목소리 높아

국립공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람료 제도를 전면개편해야 한다는 불교계 안팎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사찰이 보유한 문화재 보존에 대한 정부 · 불교계의 장기적인 대안 모색과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법주사와 충북도, 보은군은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주사가 문화재 관리를 위해 관광객들에게 징수해 온 관람료를 포기하는 대신 문화재 관리 책임이 있는 도와 군이 지방비로 이를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다.

'문화재 관람료'는 국립공원 내 수용된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징수체계로 그동안 국립공원 등산로 등이 사찰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아 사찰이 받는 통행세로 오해를 받아 왔다.

2007년까지 국립공원 내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정부로부터 국립공원입장료 중 일부를 문화재 보존에 관한 내역으로 지원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국립공원입장료 징수를 폐지하며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개별징수하게 됐다. 이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두고 10여년간 갈등이 반복된 것이다. 현재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25곳이다. 도립 · 군립공원까지 확대하면 46개로 늘어난다.

불교계는 그동안 문화재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람료를 징수해왔다. 조계종 재무부 관계자는 "문화재 관람료 수입의 30%를 총무원과 사찰 공동명의로 예치해 총괄적인 문화재 관리에 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재 보유사찰이 13~1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공유한다. 스님, 신도 등 기본 사찰 업무상 출입자나 공무수행자, 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는 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수방식과 액수는 천차만별이다. 종단 사찰문화재관리보존법에 관람료 인상 등을 위원회에서 총무원장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있지만 개별 징수액이나 집행은 사실상 소속 사찰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사찰의 징수방식을 두고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지리산 천왕봉 등산로와 연결된 천은사, 구례 화엄사, 속초 신흥사 등이 갈등 발생 사찰이다.

구례 지리산에 위치한 천은사는 탐방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다. 지리산

사찰 · 탐방객 갈등 격화
사찰 자율 징수, 종단 규정 미비
국가, 문화재 관리 방임 지적도

성삼재를 올라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로가 사찰을 관통한다. 2013년 대법원은 천은사가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천은사가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로 명칭을 바꿔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악산에서도 매년 단풍철이 되면 설악동 주민들과 사찰 간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신흥사는 2009년 속초시와 협약을 통해 속초시민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8월 31일 주민들과 설악권번영회 등 상인들은 신흥사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해달라는 건의서를 사찰 측에 제출했다.

이 같은 갈등에 제도 전면개편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공공재인 문화재 관리와 보존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문화재 관리는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 '문화재 관람료'란 준조세 형식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소장은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불교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불교계는 징수의 당위성에만 집중해왔다. 관람료를 내는 국민 입장에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도 "불교계는 국민들이 문화재를 관람하고 싶은 마음을 내도록 하는데에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와 함께 종단 내부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용어 등을 고민하고 규정 등을 다듬어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독립 만해를 '통일 만해'로… 님은 갔지만 후손들은 님을 보내지 않았다. 민족독립투사이자 뛰어난 만해 스님의 사상을 기리는 만해사상실천연합의 한국통일문학축전이 8월 28~29일 심우장 일대서 개최됐다. 사진은 29일 열린 기념식서 불교지도자 스님들을 비롯한 내빈이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있는 모습. 문학을 바탕으로 남북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발족한 만해사상실천연합은 현 시대 만해 스님의 화두를 '남북통일'로 정하고, 만해사상 선양에 힘쓰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로컬푸드 모범 완주서 GMO개발이라니"

종교환경연대, 8월 25~27일 '탈GMO' 생명평화순례 실시



전북 완주 농업진흥청이 벼를 비롯한 GMO(유전자변형식품)를 노지 재배하는 것이 알려진 가운데, 5대종교 환경단체가 GMO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종교환경연대(불교환경연대 ·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 원불교환경연대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천도교한울연대 · 천주교창조보전연대)는 8월 25~27일 완주 농업진흥청 일대서 '생명을 위한 선택, 탈GMO'를 주제로 생명평화순례를 실시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유전자 조작에 대한 안정성 논란에도 불구, 전 세계서 유래 없이 정부기관이 직접 나서 GMO를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동의 및 설명회 없이 추진돼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종교환경연대는 '생명평화를 위한 공동기도문'을 발표하고 "스스로 그러한 것이 자연인데, 우리는 과학과 개발이란 이름으로 자연을 제멋대로 조작하고 파괴해 욕망을 채워왔다"며 "그 결과 인류는 행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순례에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 최원영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장, 종교환경회의 의장 양재성 목사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아동학대 · 여성폭력 근절 "불교계 앞장서자"

조계종복지재단 · 여성개발원, 관련 세미나 연일 개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8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아동과 여성에 대한 범죄가 연일 보도되며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발맞춰 불교계 전문가들이 아동학대 및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불교적 관점과 접근법 등을 논의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8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여성 · 아동 폭력의 현주소와 해법'을 주제로 1차 불교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범석 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허난영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장은 각각 아동학대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관련 시설 수탁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서 관장은 "조계종복지재단 산하 190여개 시설, 불교계 전체 1000여개 시설이 있으나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부족한 현실"이라며 "불교의 자비 · 생명존중 · 아동권리를 실천하기 위해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대한 수탁에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불교계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가 전부인 것에 대한 지적이다.

또한 허 센터장은 "전국에 수많은 아동 및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있으나 대부분 타종교서 위탁운영 하고 있다. 불교계서도 보다 현실적인 대안 모색과 여성복지시설 수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라며 "우선적으로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

여성시설 수탁, 교육체계화 요청
아동 행복교육 연구 제안도 나와

매 상담교육원 각 100시간 이수자를 전제로 한 상담원 양성교육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박순)은 8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우리 아이들, 과연 행복한가?: 불교에서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제10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백경임 교수는 경전에 명시된 자녀에 대한 내용을 인용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는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기에 집착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인 가정교육에서 인과의 이치, 잘못을 꾸짖을 때 화내지 않는 일, 사섭법과 사회윤리 등을 가르치며 모범을 보여주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녀는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다. 따라서 가족은 수행공동체이고, 부모나 자녀 각자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인연"이라고 말했다.

김일환 동화작가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노력으로 △명상교육 △동화교육 △공동체교육 △행복교육을 꼽았다. 그는 "부모의 탐진치를 자녀에게 투영해 아이들을 스트레스에 묶어둔다면 행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어른들부터 작은 행복감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수경 강사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기본 인식과 사회시스템을 불교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임시방편적인 인성교육이 된다"며 "자타불이, 생명존중, 불성함양 등이 불교 인성교육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호섭 · 박아름 기자

세계를 품은 백제 문화를 기리다

제62회 백제문화제 9월 24일~10월 2일 개최

제62회 백제문화제가 9월 23일 전야제와 24일 개막을 시작으로 10월 2일까지 열흘 동안 충남 부여군 부여읍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야제인 23일 오후 8시부터는 구드래 금강 둔치에서 한화가 후원하는 중부권 최대 규모의 '불꽃쇼'가 열린다.

24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정림사지 주 무대에서 '백제!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개막식이 열린다. 백제혼불 합화식과 점화식, 주제공연과 이날 축하공연이 예정돼 있다.

올해 신규 프로그램으로 등장하는 '귀문의 부활'은 매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정림사지 박물관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정림사지 옆 소나무길 300m에 조성되는 '백제 테마로드 전시관'도 이번 백제문화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다. 이곳에는 왕실관과 사비천도 영상관 백제복식과 유물이 전시되고 삼충제, 수륙재, 궁녀제 등 백제문화제의 발자취를 기록한 전시관도 운영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일 주 문



제12회 금강산림대법회

진화 순천 송광사 주지 스님은 9월 29일~11월 17일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사자루서 '제12회 금강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태현 스님 열반 33주기 추모

영관 구례 화엄사 주지 스님은 9월 4일 경내 각황전서 '동헌당 태현 대종사 열반 33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무진장 스님 열반 3주기 추모

지현 서울 조계사 주지 스님은 9월 5일 경내 대웅전서 '혜명당 무진장 대종사 열반 3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장경호 거사 추모기도회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9월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빌딩 3층서 장경호 거사 추모명상기도회를 개최한다.

영원한 행자시인 '정완영' 타계

8월 31일 한국시조시인협 문인장 엄수



한국 시조문학의 큰 별이라 불리는 백수(白水) 정완영 시인〈사진〉이 8월 27일, 향년 98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영결식은 31일 한국시조시인협회가 주관하는 문인장으로 치러졌다.

정완영 시인은 현대시조의 선구자로 시조의 중흥기를 열었던 한국 시조계의 거봉으로 평가된다. 1919년 경북 금릉에서 태어난 정완영 시인은 1941년 처녀작 '북풍'을 발표하고, 1947년 동인지 〈오동〉을 창간했다. 마흔을 넘긴 1962년 시조에 입문해 '조국'으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고, 초중고 교과서에 실리며 널리 알려졌다. 정완영 시인의 삶은 불교였고, 그의 시조 속에는 부처님 사상이 녹아있었다.

전국 사찰을 다니며 사찰을 주제로 수많은 시조를 남기고 불교신문에 108편의 시조를 연재하기도 했다. 직지사 일주문 앞에는 '직지사운'이라는 시조비가 세워져 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만해시문학상, 한국문학상, 가람문학상, 은관문화훈장 등으로 인정받았다.

노덕현 기자

인사 BBS불교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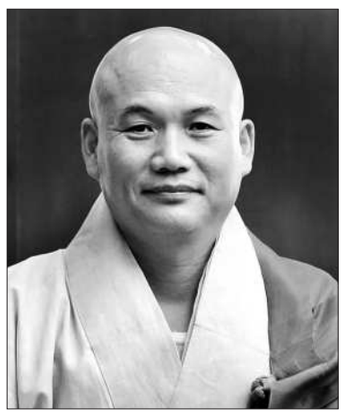
직위 승진 ▷김종천 경영기획실장 ▷홍금표 대구BBS 총괄국장 ▷손상국 울산BBS 총괄국장 ▷박성일 기술영상국 기술전략부장

전보 ▷배종식 대구BBS 기술부장 (이상 9월 1일자)

"마음·명상 저변 확대에 주력"

Interview

신임 한국문화연수원장 재안 스님



8월 29일 연수원장 임명

교계 마음·명상 개발 역설

"대중 다가가는 노력 필요"

"마음과 명상문화 보급은 불교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원에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8월 29일 한국문화연수원장으로 임명된 재안 스님〈사진〉은 "한국문화연수원이 이제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전임 스님들이 가꿔 놓은 문화연수원을 연수원만이 가진 천혜의 자원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문화연수원은 2009년 6월 전통불교문화원으로 문을 연 이후 매년 2배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교계 연수기관이다. 종단 내 연수가 40%, 기업과 일반 연수가 40%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20%는 명상분야로 새롭게 성장하는 부분이다. 2013년 명칭 변경 후 다양한 명상과 휴식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기업 및 일반인 참여도 대폭 늘고 있는 상황. 개원 이후 연간 2만5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만7000여 명이 한국문화연수원을 이용했다. 총 이용액만 100억 원에 달한다.

재안 스님은 "현재 틀을 유지하되 여기에 불교문화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공주와 충청도, 중부권에 대해 불교계 기관 차원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복안을 밝혔다. 지역사회서 불교계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시사한 것이다.

스님은 "방향설정을 모색해보겠다. 선임자 스님들이 열심히 소임을 맡은 덕분에 문화연수원은 현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중포교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안 스님은 부안 개암사 주지 시절 마음명상 트레킹과 차명상, 녹차밭 포행 등을 개발해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연수원은 향후 불교색을 담은 다양한 명상, 마음,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깝게는 9월부터 종단 리더쉽 심화과정과 함께 백제불교 답사, 재미있는 계율이야기 강좌 등을 실시한다.

재안 스님은 "불교가 사찰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이 시대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연수원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재안 스님은 원조 스님을 은사로 1993년 수계(사미계)했다. 포교원 신도국장 및 포교국장, 직할교구사무처 사무국장, 안양사 주지, 개암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제16대 중앙종회의원이다. 이와 관련해 자승 스님은 "전임자가 알뜰하게 소임을 살아 체계를 갖춰 놓았으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스님의 섬세함으로 잘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미륵불교, 동토법맥증서 수여 대법회

동토법맥 종도 17명

전법게 수여, 7명 수계



(사)한국미륵불교(종정 법련, 총무원장 혜봉)는 8월 27일 총본산인 경남 고성 대무량사 대법당서 '한국미륵불교 동토법맥증서 수여 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회는 종단 총회와 문도회에서 유통정법사장지은(流通正法師長之恩)불사를 진행해 법맥계보편찬을 마치고 문도 단결과 정진을 위한 당호 건당식을 겸하여 봉행한 것이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법련 스님을 비롯해 삼사 증명법사인 제주 극락암 달제 스님, 조계종 경주 보문선원장 대허 스님, 조계종 영천 도솔암 조실 몽산 스님과 한국미륵불교 총무원장 혜봉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제주 극락암 신도회의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삼사 증명법사의 축사와 봉행위원장 혜봉 스님 인사말, 종정 법련 스님 법어에 이어 헌공, 천수경, 예참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서 동토법맥 21조 종정 법련 스님으로부터 혜봉 스님을 비롯한 종도 17명은 법맥을 잇는 전법게를 받았고 7명의 종도가 계를 수지했다.

이번 법맥증서 수여법회를 주관해 온 삼사 증명법사인 제주 극락암 달제 스님은 축사를 통해 "한국미륵불교의 법맥을 잇는 뜻 깊은 행사로 승가의 끊임없는 정진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정 법련 스님은 법어에서 "역대조사 20분의 위패를 모신 대무량사서 우리 종단의 법맥을 이어 무궁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진 또 정진해야 하며, 역대조사의 수행을 알고 본받아 마땅히 그 뜻을 이어야 할 것"이라고 후학들의 정진을 당부했다.

이번 수여법회의 봉행위원장을 맡은 총무원장 혜봉 스님은 "동참해주신 대덕 큰스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은 한국미륵불교 법맥계보 건당식의 대역사적인 날이다. 창종 15년을 맞은 우리 종단이 오늘을 기점으로 법맥계보의 자부심으로 종정스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야 한다"며 "역대 조사님들을 섬기고 서로 화합해 크게 발전하는 종단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전법게 수여법회가 끝난 뒤에는 2부 행사로 함안군 가야국악 예술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윤호섭 기자

무진회, 능인고교에 장학금 전달

총 3명에게 각 50만원씩



대구 경북지역서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스님들의 모임인 무진회(회장 정혜)는 8월 29일 조계종립 대구 능인고교 불교학생회를 방문, 12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서 무진회는 권효중·안형찬·홍혁진 학생에게 장학금 각 50만원을 수여했다.

윤호섭 기자

원융종 종정에 성관 스님 추대

종정 추대식 9월 25일 원융사서 봉행



대한불교원융종(총무원장 진호)은 8월 18일과 30일 2차례에 걸친 중앙종의회와 임원회의를 통해 원정당 성관 스님을 만장일치로 종정에 추대했다. 성관 스님은 1948년 4월 22일 출생, 도사 유념 법신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하여 원융종 창종주 영산당 일공 스님에게 건당했다. 경기종무원장과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의장, 7대 총무원장 등 종단에 주요소임을 역임했다. 종정 추대식은 오는 9월 25일 총본산인 원융사서 봉행된다.

윤호섭 기자

거묵 스님, 어르신 위한 경로잔치

8월 25일, 대구 파계사 입구서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 총무원장 거묵 스님은 8월 25일 대구 동구 파계사 입구서 동구지역 경로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호법원장 자인사 구룡 스님, 사정부원장 혜월 스님, 재무 보정 스님을 비롯해 후원자로 월드불교연합방송, 성불사 법우 스님, 금덕사 상서 스님 등 50여명과 지역 어르신 500여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6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 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9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전라남도는 8월 29~30일 불교계 언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불교 순례길 팸투어를 실시했다. 사진 왼쪽은 이튿날 배롱나무꽃이 만개한 구례 화엄사 모습. 사진 오른쪽은 송광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무량 스님이 팸투어단을 위해 사찰 곳곳을 소개하는 모습.

천고마비 계절… 남도서 마음 살찌우자

전라남도 불교 순례길 팸투어 현장

사나운 폭염이 지나간 자리에 반가운 가을이 찾아왔다. 바다처럼 푸른 하늘에 새하얀 구름이 넘실거리고, 산들바람에 벼 이삭이 춤을 추며 익어간다. 곳곳에 수놓은 붉은 배롱나무가 마침내 남도 가을의 정점을 찍는다.

8월 29~30일 전라남도청은 불교계 언론인 초청 팸투어(사전답사여행)를 실시했다. 불교계 언론 종사자 15명과 신도 12명은 이틀 간 5개 시 · 군 6개 사찰을 돌아보며 이른 가을을 만나고 왔다.

오전 9시 서울 조계사서 출발한 버스가 약 4시간 고속도로를 달려 법성포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법성포는 굴비로 유명하지만, 사실 백제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곳으로 역사적 유서가 깊다.

영광군은 1998년 학술고증(동국대학교)을 통해 이곳이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란 사실을 밝혀냈고, 이후 간다라유물관, 탑원, 부용루, 사면대불 등을 갖춘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특히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엔 항시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또한 백제 전통 의상 체험도 가능해 어린이 · 청소년을 비롯한 가족 단위에 큰 인기다.

이날은 서복진 해설사가 팸투어단을 위해 백제불교 역사, 전남 내 주요 사찰 역사 등을 소개했다.

서 해설사는 "영광군엔 4대 종교 성지가 있다"며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를 비롯해 원불교 영산성지, 기독교인 순교지 등이다. 세계적인 종교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원불교 영산성지'는 원불교 발상지로, 창시자인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탄생해 구도한 곳이다. 또한 '기독교인 순교지'는 6.25때 북한군의 교회 탄압에 항거하던 194명 신자들이 순교한 곳이다.

참가자들은 미처 몰랐던 사실들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감탄사를 내뱉으며 경청했다.

김승희(59) 씨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해설사들이 직접 설명해주니 너무 좋다"며 "나중에 아이들과 함께 와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흐뭇해했다.

태양에 반짝이는 법성포 갯벌을 뒤로한 채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백수해안도로를 내달리면 불갑사에 이른다. 불갑산 자락에 위치한 불갑사는 가을이면 상사화로 뒤덮여 장관을 이룬다. 매년 가을 상사화 축제가 열리는데, 올해는 불갑사 일대서 9월 16~18일 진행된다.

팸투어단을 위해 직접 불갑사 역사를 설명해 준 주지 만당 스님은 "남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의 역사 깊은 곳을 순례하는 일은 매우 의미 깊다"며 "불교가 본래 마음자리를 찾는 것을 강조하듯, 이번 순례를 통해 여러분들이 삶과 내면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첫날 마지막 일정은 송광사 템플스테이였다.

불교계 언론인 등 27명 초청
8월 29~30일 6개 사찰 순례
불갑사 · 송광사 · 태안사 등
가을꽃 만개해 관광객 줄이어

송광사 예불은 장엄하기로 정평이 나있는 터. 참가자들은 서둘러 저녁 공양을 마치고 범종루 앞으로 모여들었다. 저녁 예불을 알리는 북소리가 산중에 울려 퍼지자 붉은 노을도 잠시 어둠을 막아서고 대웅전 앞마당을 지켰다.

마침내 예불을 마친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관으로 이동, 송광사 포교국장 각안 스님과 차담을 나눴다. 일배(一拜)로 예를 표한 참가자들에게 맞절로 환영한 각안 스님은 송광사의 역사부터 대웅전 삼세제불(三世諸佛), 승보종찰의 의미 등을 설명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각안 스님은 "난 항상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며, 육신이 소우주라 생각한다. 모든 우주만물이 마음에 있다고 믿으며 수행한다"며 "분별심 없는 마음으로 이 순간의 나를 관찰하며 근본을 찾을 때 내가 편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엔 송광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무량 스님이 직접 '사찰 해설가'로 나섰다. 무량 스님은 이른 아침부터 사찰 곳곳을 다니며 송광사 내 보물들과 전각들을 자세하고 친절히 설명해 참가자들은 큰 만족감과 함께 감사함을 표했다.

특히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송광사 국사전(제작연도 1404년경, 국보 56호)에 들어간 팸투어단은 그 위엄에 압도돼 감탄을 금치 못했다. 국사전은 송광사서 주석한 국사 16분의 영정을 모시고, 그 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건물이다.

김재일 상명대 교수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 송광사를 여러 번 왔지만 스님께서 설명해주시니 더욱 깊은 역사와 의미를 알게 됐다"며 "특히 동행자들과 함께 정겨움을 나누니 1박2일이 참 짧다. 시간이 충분했으면 좋겠단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운력을 마친 참가자들은 광양 성불사, 구례 화엄사, 곡성 태안사를 차례로 방문하기 위해 발길을 재촉했다.

광양 성불사는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해 조금은 지친 팸투어단의 피로를 싹 씻겨줄만한 절경을 자랑했다. 굽이진 산 능선과 법당의 처마 끝의 조화는 마치 하늘 위 음률이 그려지는 듯 했다.

성불사 주지 법광 스님은 "임진왜란과 6.25전쟁 등을 거치며 사찰이 훼손되기도 하고 규모가 많이 축소됐으나, 1000년 전 도선국사가 창건해 40여개 암자를 간직했던 깊은 역사를 갖는 사찰"이라며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팸투어단은 마지막 코스인 곡성 태안사에 이르자 주지 스님과 종무원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산중 사찰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멀리 서울서 온 손님을 맞이하는 그 따뜻한 마음만큼은 경내를 가득히 채우고도 남았다.

주지 각초 스님은 대웅전 참배를 마친 참가자들에게 "차 한 잔 하시렵니까"라 물으며 방으로 안내했다. 각초 스님은 오미자차를 건네며 "나라가 어지럽고 심신이 힘들 때 태안사로 오셔서 마음의 위안을 찾으십시오"라며 웃어보였다.

한편 전라남도는 "9월 추석 이후부터 전남 광역 순환버스 '남도한바퀴'와 연계해 순례길 코스를 시범 운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1일차





- 08:00 조계사 집결
- 12:00 법성포 굴비정식 (점심)
- 13:00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백수해안도로
- 15:00 불갑사
- 17:00 송광사
- 19:40 스님과 차담
- 21:00 취침

2일차





- 03:30 새벽예불
- 06:20 사찰 안내
- 08:00 출발
- 09:00 성불사
- 11:00 화엄사
- 12:00 다슬기 수제비 (점심)
- 14:10 태안사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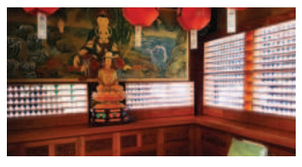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2017 카렌다 주문 접수
카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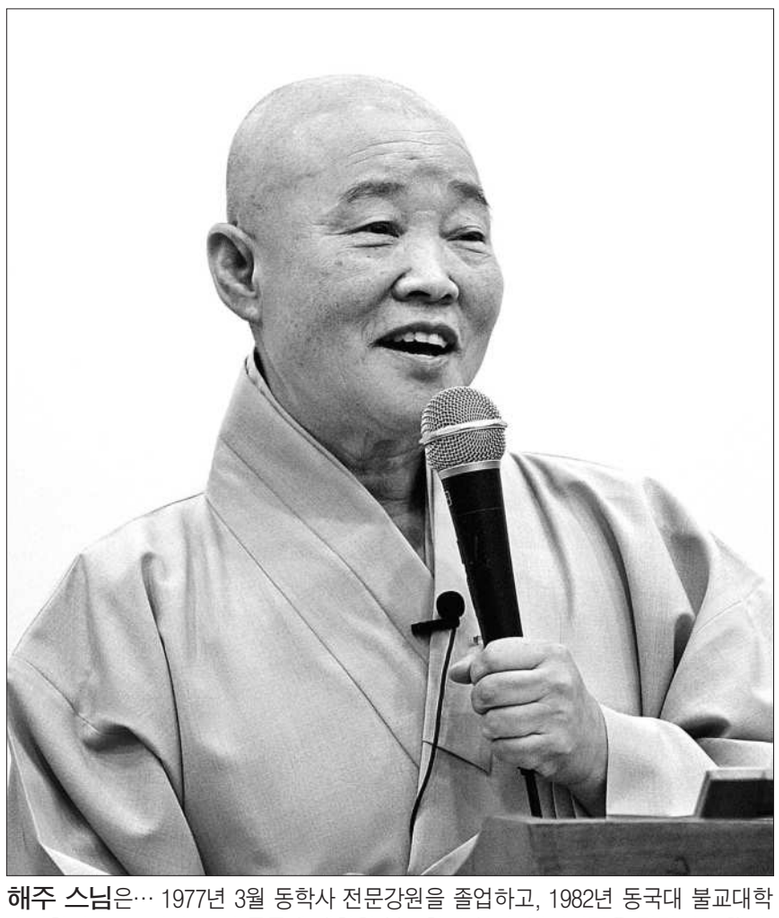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자신을 바로 보아 본래자리로 되돌아가자

의상 스님의 법성성기(法性性起) 사상과 전승

동국대 교수 해주 스님 퇴임강연회

동국대 역사상 첫 비구니 정각원장 소임을 맡고, 180여 명의 석박사 제자를 배출한 동국대 교수 해주 스님이 정년퇴임했다. 스님은 8월 31일 동국대 학명세미나실서 퇴임강연회를 열고 '의상 스님의 법성성기 사상과 전승'이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스님의 강의요지를 지면에 싣는다. **정리=윤호섭 기자**



해주 스님은… 1977년 3월 동학사 전문강원을 졸업하고, 1982년 동국대 불교대학 승가학과, 1984년과 87년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 박사과정을 각각 수료했다. 1990년 화엄학 전공으로 비구니 스님 최초의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됐다. 조계종 제11대·12대 종회의원, 조계종 기초교육개혁위원, 전국비구니회 계단위원, 동학사 승가대학장, 비구니 최초 동국대 정각원장 등을 역임했다. 1991년부터 24년간 한국불교학회 이사를 맡았으며, 불교학연구회 초대, 제2대 회장, 한국불교학결집대회 1·2 조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 수미정사 주지, 승가학원 이사,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으로 있다.

연기가 성기, 보살도가 불세계
부처 성품은 수미산이자 1척
깨달음 의지 닦아 보현행 이뤄

한국의 화엄사상과 수행 전통은 의상(625~702)에게서 비롯된 의상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은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의상 스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자기의 오척(五尺)되는 몸과 마음인 십불(十佛)을 바로 보고, 본래자리인 법성가(法性家)에 돌아갈 것을 가르쳤죠.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미 온전한 존재임을 바로 보아서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상 스님의 법성성기 사상과 수증방편이 제자 · 법손들에게 전승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의상 화엄의 사상적 배경

〈화엄경〉은 경전명인 〈대방광불화엄경〉의 불(대방광불)과 보살(화엄)세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살도 또한 부처님의 본생보살의 길이면서 우리 성불의 길로써 불세계 장엄행입니다.

그러한 화엄세계인 법계를 화엄사상의 2대 측면인 연기(緣起)와 성기(性起)의 연성이기(緣性二起)로 일단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성기는 화엄법계가 여래성품이 그대로 일어난 여래성기이고, 연기는 법계의 존재가 연 따라 일어난 법계연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세계는 부처님 성품이 그대로 일어난 성기이고, 보살세계는 연생연멸(緣生緣滅)의 연기인 겁니다. 또 불 · 보살의 인과세계는 연기이고, 보살도로 불세계에 이르므로 연기의 구극이 성기입니다. 또한 화엄보살도가 불세계 장엄이라서 연기가 성기이며, 불 · 보살이 다 지정각세간이므로 성기가 연기이기도 하죠.

이러한 〈화엄경〉 '성기품'의 성기 교설에 대하여 제일 먼저 주목한 화엄조사는 지엄입니다. 지엄의 연기와 성기사상은 의상과 법장에게 이어지고 재해석되죠. 의상은 특히 지엄의 성기설을 이어받아 법성성기로 발달시켜 갑니다.

의상의 법성성기 사상과 수증법

의상은 지엄의 성기설에 영향을 입어 연기의 구극이 성기이며 연기가 곧 성기인 수연행을 수용하면서도, 지엄이 정법연기에 성기를 포섭시킨 것과 달리 오히려 성기가 연기를 포섭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상의 화엄사상은 〈일승법계도〉(668년 저술)와 스님의 강설에 담겨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승법계도〉의 일승은 〈화엄경〉을 뜻하고, 〈화엄경〉의 세계가 법계이며, 그 법계를 '반시'로 그려 보인 것이 〈일승법계도〉입니다. 따라서 의상의 〈화엄경〉관은 크게 일승, 법계, 법성이라는 세 용어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하겠으며, 또 법성으로 일승법계를 담아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법성이란 단적으로 말하면, 법의 성품이 그대로 일어난 '법성성기'입니다. 법계 제법은 법성의 성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라는 법성성기가 의상의 화엄일승법계 이해의 핵심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의상은 성기란 일어남이 없음[無起]이 성(性)이고 일어나지 않음[不起]이 기(起)이니, 기란 곧 법성이 분별을 여읜 보리심 가운데 현전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법의 본성과 같기 때문에 기라 이름할 뿐, 일어나는 모습이 있는 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상은 〈화엄경〉으로 안목을 삼아서 오오척법성인 십불을 바로 보는 수증법(修證法)을 강조했습니다. 십불은 여래의 지혜성품인 여래성이 그대로 현현한 성기법성이니, 십불을 바로 본다는 것은 증분법성의 십불로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의상은 연기제법의 근원, 근본을 "모든 연의 근본은 나이며, 일체법의 근원은 마음이며, 말은 매우 중요한 근본이니, 진실한 선지식이다"는 4구게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4구게는 표훈 · 진정 등 10여인이 "부동오신이 법신 그 자체임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입니다. 4구게에 이어서 의상은 "그대들은 마땅히 마음을 잘 써야 한다"고 분부했는데요. 금일 오척범부신이 삼제에 칭합하여 부동인 것이 무주이며, 법신자체인 그 도리를, 의상은 4구게로 보여주면서 마음을 잘 써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마음은 여래성기심입니다.

의상 법성성기 사상의 전승

의상에게는 한 번 강의에 3000명이나 모여들만큼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뛰어난 제자로 10대 제자 · 4대 의영 · 등당도오자(登堂覩奧者) 등이 회자되었습니다. 특히 표훈과 진정은 의상의 4구게에 대해 오관석(五觀釋)과 삼문석(三門釋) 등을 지어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표훈 · 진정 · 지통 · 도신 · 상원 등의 직제자를 거쳐, 상원의 제자인 신림, 그리고 신림의 제자인 법융 등 신라 하대에 이르기까지 의상의 법성성기 사상과 이에 입각한 성기관법이 이어지고 발전했습니다.

의상의 4세법손이 활동한 시기인 9세기 신라말에 이르기까지 전승되어간 의상의 법성성기 사상은, 〈총수록〉에 수록된 삼대기와 〈고기〉 등에 담겨 널리 전해집니다. 〈법융기〉 · 〈대기〉 · 〈진수기〉 등의 삼대기는 〈일승법계도〉를 수문석한 것입니다.

삼대기에서는 오척법성의 성기심에 의해 나타난 해인삼매 경계가 망상해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승법계도〉 제목을 3중의 오중해인으로 거듭 해석하고, 일체법계를 망상해인 즉 깨달음의 증분세계로 포섭시켜서, 〈일승법계도〉 전체를 상을 여읜 망상해인으로 거두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하여 증분법성의 법은 내 몸과 마음이고, 성은 법이 원융한 것입니다. 원융법성이란 미진법성이고 수미산법성이고 일척법성이며 오척법성입니다. 금일 오척법성에 근거하면, 미진법성과 수미산법성 등이 자신의 지위를 움직이지 않고 오척에 알맞게 이루어집니다. 오직 오척인 까닭이죠. 또 제법부동이란 무주법성이며, 다만 오척법성일 뿐 곁에 다른 물건이 없는 까닭에 본래적입니다. 이러한 법성원융은 언어도단 심행처멸(言語道斷 心行處滅)이니, 일체가 끊어진 이 일승 경계는 반정견처(反情見處, 망정을 돌이켜 보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의상의 화엄사상과 수행전통은 부석사를 본찰로 한 화엄십찰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신라말 · 고려초에 이르면 화엄이 남악과 북악 양파로 갈라지고, 중국에서 조사선을 배워온 선사들에 의해 구산선문이 개산되어 선과 교가 갈등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균여가 북악의 입장에서 화엄교단을 통합시켰습니다. 균여는 의상의 법계관을 근간으로 주측법계관을 세웠고, 균여가 도문(圖文)을 연설한(958년) 것이 후에 〈일승법계도원통기〉로 유통되었습니다.

〈일승법계도원통기〉에서는 3종세간이 본래 하나인데 석가불해인으로 나타낸 것은 망진심징(妄盡心澄)의 뜻에 근거한 것이니, 불(佛)은 망분별을 쉬어 삼세간을 나타내고 해인중에 나타나기도 하니 곧 자기라고 합니다. 심(心)이 있는 자는 모두 불지를 갖추고 있으나, 중생은 다만 망상전도에 덮인바 되어 자기해인 삼매가 본래 스스로 원명하여 불과 다르지 않은 줄 알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균여는 또한 〈일승법계도〉의 중도설에 주목했습니다. 균여는 의상의 중도설을 법성중도의 7중으로 파악하고, 이를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균여의 〈일승법계도원통기〉와 집자 미상의 〈총수록〉을 통해 의상화엄은 다시 고려시대에 퍼져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 중기 이후로는 의상의 〈일승법계도〉가 선사들에 의해 선적으로도 이해되고 주석되어 갔습니다. 먼저 구산선문이 개산될 때부터 당시까지 갈등관계였던 선과 교가 서로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한 보조지눌이 선교겸수 · 정혜쌍수 · 돈오점수의 선풍을 선양함에 〈일승법계도〉의 의상사상을 수용한 것입니다.

지눌의 돈오후 점수인 오후목우행(悟後牧牛行)은 단이무단 수이무수(斷而無斷 修而無修)의 진수진단(眞修眞斷)이며, 이를 화엄교의 측면에서 돈오 후의 원수(圓修)라 한다. 돈오원수의 돈오점수는 화엄성기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눌은 불심인 선과 불어(佛語)인 교가 서로 다르지 아니함을 〈여래출현품〉의 여래심 교설에서 확인하였으며, 〈신화엄경론〉에서 선교일원인 화엄교의 오입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원돈성불론〉을 짓고 원돈신해문을 시설한 것이죠.

〈원돈성불론〉에서는 〈신화엄경론〉의 '불동지불(不動智佛)' 설을 의용하여 "수심인은 먼저 자심의 일용무명분별의 종자로써 제불의 부동지를 삼은 후에 의성수선(依性修禪)하는 것이 묘(妙)하다"고 강조합니다. 지눌은 〈신화엄경론〉에 의거한 이러한 수행을 성기문으로 보았습니다. 초심범부가 자기 마음의 근본보광명지를 깨닫고, 이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서 결국에는 보현행을 이룬다는 것이 원돈신해문의 돈오원수입니다. 이는 의상이 누누이 강조한, 오오척신이 구래십불 그 자체임을 바로 보아 십불로 출현케 한 것과 통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상의 특징적인 증분법성의 성기사상이 보조선의 돈오점수설에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아울러 지눌이 의상의 〈일승법계도〉설을 인용하여 해설한 내용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원돈성불론〉:2회, 〈절요〉:3회).

선과 화엄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수행가풍 속에서 조선시대 설잠(雪岑)은 〈법성게〉를 선적으로 주석함으로써, 화엄과 선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잠은 법성에 초점을 맞추어 〈법성게〉를 주석했으니, 〈대화엄일승법계도주병서〉(1476년)입니다. 설잠은 서문에서 의상이 처음 〈일승법계도〉를 만든 법성원융의 본래면목이 교망(敎網)으로 인해 상실되었다고 개탄하고, 그 개요인 210자의 종지를 법성으로 파악하고 그 소식을 간명하게 드러내고자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성게〉가 '법성원융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 등의 증분4구로써 대화엄의 중중무진법계를 다 설해 마친 것인데, 의상법사가 자비심으로 연기분을 시설하였다고 하며, 법성 외에 따로 일단 진성이 있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심천이 없으나 깨달음에는 선후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 증득할 수 있도록 방편으로 진성을 가작한 것이지 법성을 따로 두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후 선수행자의 교과서처럼 중시된 〈선가귀감〉에서, 서산은 간화선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선을 펴고 있지만, 교의 수행방편 또한 선수행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행가풍 속에서 〈법성게〉는 그 독송만으로도 공덕이 한량없음을 믿어 널리 유통되었습니다.

〈일승법계도〉는 조선시대에 또 한 번의 주석이 이루어졌으니, 도봉유문(道峯有聞)의 〈법성게과주〉(1789년 이전 저술)입니다. 유문은 '법성무이상(法性無二相)' '이사무분별(理事無分別)'로 법계를 원증(圓證)하도록 한 것이 의상의 종안(宗眼)이라고 피력합니다. 그리고 〈법성게〉 전체를 연기적 실천의 입장에서 의상의 법성을 드러내려는 해설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참선 · 간경 · 염불의 삼문수업과 참선 · 간경(경학) · 염불 · 송주 · 가람수호 등 오종의 수행가풍 속에서, 의상계 화엄전통은 끊이지 않고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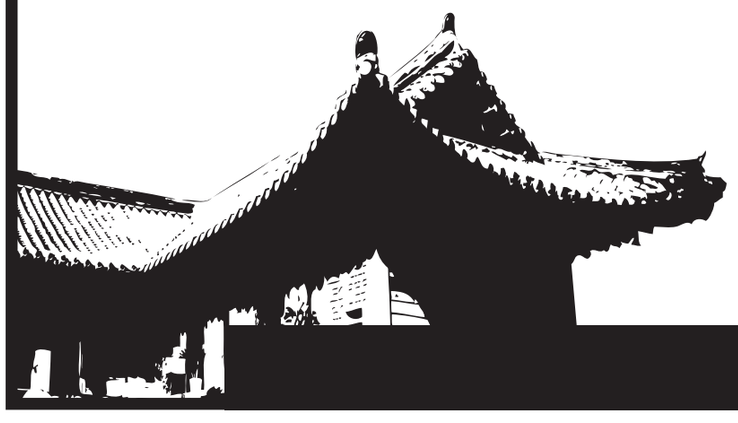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고창 문수사 석가삼불좌상 보물된다

문화재청, 8월 30일 문화재 9건 지정예고

最古 청동북 등 10건 보물 지정


보물로 지정예고된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조선 중 · 후기에 만들어진 수준 높은 불상 등 불교 문화재가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등 9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했다"고 8월 30일 밝혔다.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중앙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좌우에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를 배치한 삼불형식을 보여준다. 삼불형식은 임진왜란 · 정유재란 이후 황폐해진 불교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특히, 삼불상은 1654년에 벽암각성(碧巖覺性, 1575~1660)의 문도들이 주축이 되어 수조각승 해심을 비롯한 15인의 조각승이 참여해 당시 불교조각의 기준이 되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또한 함께 지정예고된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일괄' 역시 벽암각성 문도들에 의해 제작됐으며, 해심 등 15명의 조각승들이 모두 참여했다.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도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흙으로 형태를 만든 뒤 그 위에 삼베를 입히고 칠을 바르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해서 일정한 두께를 얻은 후 조각하여 만든 건칠불상이다. 이 불상은 방사선탄소연대 측정 결과 8세기 후반, 늦어도 10세기 전반에는 제작됐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밖에도 예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왕실판본 '묘법연화경 권5~7'과 14세에 요절한 성녕대군(태종 4째 아들)을 애도하기 위해 제작된 '묘법연화경 권4~7'도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등 9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 검토하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8월 30일 지정예고했던 '함통6년명 청동북' 등 10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특히 보물 제1907호 '함통6년명 청동북'은 865년(경문왕 5)에 만들었다는 명문이 적혀 있어, 우리나라에서 제작연대가 새겨진 청동북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청동북은 범종(梵鍾)과 함께 사찰 의식 때 범음(梵音)을 내는 주요 의식법구로 불교 전래 이후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성민 기자

인문 · 현대과학 연계 불교 강좌 '봇물'

가을 맞은 불교계 강좌… 주제 다양 '눈길'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선 9월부터 불교계에서는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들이 열린다. 올해 하반기에도 인문 고전부터 강독, 현대과학까지 주제도 다채롭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불교과학아카데미**와 **밝은사람들연구소**가 진행하는 '현대과학으로 풀어본 금강경' 강좌다. 오는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매월 1회 총 24회로 진행되는 강좌는 서울과 함양으로 나눠 진행된다. 템플스테이 형식으로 열리는 함양 강좌는 이미 인원이 마감될 정도로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의는 김성구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연기법 · 공 · 중도 · 일심사상 등 불교 핵심 사상을 현대물리학적으로 해설하고, 불교수행법 의미를 인지과학적인 관점에서 살핀다. 현대물리학의 주된 내용은 상대성이론, 양자역학, 복잡계 이론 등이며, 인지과학은 인공지능, 뇌과학, 확장된 마음 등이다.

김성구 명예교수는 이화여대 물리학과 퇴직 후 동국대 불교학과서 학사,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불교와 현대물리학' '불교와 인지과학'을 강의한 바 있다. 관련 저서로는 〈현대물리학으로 풀어본 반야심경〉 〈천태사상으로 풀이한 현대과학〉이 있으며, BTN불교TV서 강의했다.

서울 강의는 매월 2번째 일요일 오후 4시 서초구 방배동 채식전문점 '마지' 2층서 열린다. 모집인원은 50명 내외이며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참가비는 연 15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불교과학아카데미 홈페이지(cafe.daum.net/healingwell)서 확인 가능하다.

불교과학아카데미, 2018년까지 현대과학으로 금강경 해석 강좌
중관학당, 중론 강독 강의 진행
불교고전 · 맛지마니까야 주제도

김성구 교수는 "과학은 불교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해석 · 적용시켜줄 수 있는 현대적 언어"라면서 "현대과학은 불교 사상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010)2391-5629

중관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대중강좌도 마련됐다. (사)고려대장경연구소 산하 책박물관 고반재가 설립한 **중관학당**은 오는 10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제 1기 중론 강독 강좌'를 개최한다.

인도 타고르 대학 인도-티베트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신상환 박사가 강사를 맡으며, 이번 강의를 통해 인도 티베트 불교의 특징뿐만 아니라 〈중론〉의 산스끄리뜨어 원문과 티베트 번역과 한역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다.

강의는 1, 2주는 인도와 티베트 불교의 사상적 특징을 다루며, 3~5주는 중론에 대한 강독이 이뤄진다. 6주차에는 용수 보살의 〈회쟁론〉 등에 나타난 공사상에 대해 강의가 이뤄진다. 참가 인원은 선착순 40명이며, 참가비는 15만원이다.

중관학당은 "이번 강좌는 대승불교의 근간인 중관사상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서 기획됐다"면서 "앞으로도 중관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원전 강독 및 대중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10)8801-4037

불교 고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강좌도 눈길을 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단**은 오는 9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동국대 중앙도서관 3층 컨퍼런스룸에서 불교 인문 강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강좌는 불교학술원에서 발간한 〈한국불교전서〉를 저본으로 한 강좌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요 불교 고전으로는 〈천태사교의(제관)〉, 〈법계도기총수록〉, 〈선문수경〉, 〈선문사변만어〉, 〈사명대사집〉, 〈사경지험기〉, 〈경허집〉, 〈무량수경연의술문찬〉, 〈정토보서〉, 〈염불보권문〉, 〈청허집〉 등이다.

강사로는 정토학 석학인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과 화엄학 전문가인 해주 스님을 비롯해 리영자, 신규탁, 김방룡, 황금연, 이철현, 성재현, 김형중, 오경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동국대는 "이번 불교인문학강의는 '불교 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사업'의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한국불교학의 대중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불교 고전을 통해 한국불교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02)6713-5154

초기 경전 강독 강좌도 마련됐다. **근본불교연구회**는 9월부터 서울과 광주에서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와 함께 읽는 맛지마니까야 강좌를 개최한다.

9월 10일부터 서울 법련사에서 진행되는 강좌는 격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강좌는 총 8번 진행된다. 동참금은 20만원이며, 스님과 학생은 자율 보시다. 광주에서는 9월 2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광주불교교육원에서 총 8강으로 열린다. 동참금은 서울과 동일하다. 서울 (010)4158-8317, 광주 (010) 3666-1953

신성민 · 윤호섭 기자

동국대, 한국학 토대연구 사업 선정

불교문헌 서지DB 및 디지털 지형도 제작

동국대(총장 보광)가 '2016년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 사업'에 선정됐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주관하는 '2016년 한국학분야 토대연구 사업'에 김천학 HK교수가 선정됐다"고 8월 29일 밝혔다.

김 교수는 매년 2억 3천6백만 원씩 3년간 총 7억 8백만 원을 지원받아 '한국찬술불교문헌 확장형서지 DB 및 디지털 지형도 제작'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이 찬술한 불교문헌과 그에 대한 동아시아의 주석서를 망라한 다양한 문헌들을 조사해 목록과 서지DB를 만들고, 해제 등을 작성해 텍스트의 계통과 사상적 내용을 추적해 본다. 또한, 관련 연구자는 물론 대중을 위한 디지털 지형도를 제작, 인문정보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찬술 불교문헌의 여러 이본과 그에 대한 동아시아의 주석서를 새롭게 발굴 및 집성하고, 해제를 작성한다. 또한, DB는 그동안의 형태서지를 탈피해 내용서지를 통해 연결이 가능한 지식정보의 네트워크를 최대화하는 차세대 확장형 서지DB를 구축될 예정이다.

연구책임자인 김천학 교수는 "지식지도를 통해 문헌의 시간적 흐름과 공간적 지형을 종횡으로 파악함으로써 동아시아 문헌 연구의 지형도를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다층적 사상의 특징을 추출하려고 한다"며 "불교학을 포함한 한국학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지를 모색,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한국학의 보편적 확장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의 제시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분노 치유의 길, 지혜와 자비에 있다"

불교평론, 8월 26일 분노 주제 심포지엄
자비심 기반한 분노는 정당
실상 · 원인 직시가 우선돼야


불교평론은 8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사회와 분노 그리고 불교'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현재 지구촌은 분노와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 연일 테러 사건이 신문 지면에 실리고 층간 소음과 보복운전으로 인한 살인 · 상해도 빈번히 일어난다. 하지만, 故 스테판 에셀이 이야기했듯이 정의로운 분노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기도 한다. 불교적으로 분노는 배척돼야 할 현상일까? 불교적 관점에서 분노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평론은 8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사회와 분노 그리고 불교'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개인적 · 사회적 분노치유의 길' 발제를 통해 분노를 치유하는 길은 지혜와 자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철저히 파사현정에 입각하거나 중생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비심에서 비롯된 분노는 정당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분노가 일어날 때는 실상과 원인을 여여하게 직시하는 것이 모든 일의 우선"이라며 "명상과 수행을 통해 자비희사의 무량심에 이르고 심리적 치료를 하고, 공감능력을 높이면 개인적 분노는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분노에 대해서는 "중생의 아픔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분노는 크고 넓은 자비"라고 전제하면서 "희생과 증오 · 폭력이 없고, 중생의 고통에 공감하는 분노는 정당하다. 연민과 고통 속에 있는 중생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자비로운 분노에 참여할 때 분노 없는 세상은 좀 더 가깝게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분노의 불교사회학적 이해'에서 "시기나 사람, 계층, 집단별로 차이가 있지만 현대의 자본주의적 속물주의가 전통적 권위주의 문화와 결합하면서 국민 대다수를 화병 환자 내지는 갑질 희생자로 만들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분노는 정치구조의 작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역으로 사회구조가 그 사회 내외적 분노, 혹은 자비의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분노를 확대재생산하는 세속 사회의 작동 방식을 비판하거나 적극적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마음, 태도를 성찰하는 실천 방법을 개발해 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허우성 경희대 교수의 '붓다는 의분을 어떻게 보았는가', 오용석 연세대 인문학연구원의 '선 수행에서 보는 분노 문제와 자비' 신승철 정신과 의사의 '심리학에서 보는 분노'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4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8월 31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9월 5일 개강
매주 (수,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열어서 발공능력까지 3~6개월 (주 1회 ~ 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입마, 상기병 등등)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제 6차크라 (제 3의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수행 정진중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상담후 결정)
■ 문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해운정사는 9월 1일 해운정사 원통보전서 '3자녀 가정 출산양육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진제 스님 "온 국민, 3자녀 운동해야"

해운정사, 다자녀 가정 출산장려 장학금 수여

부산 해운정사(조실 진제)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했다.

해운정사는 9월 1일 해운정사 원통보전서 '3자녀 가정 출산양육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3자녀 가정 100가구에 장학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출산율 저하 속에서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운정사와 (사)대한불교조계종 진제선세계화가 공동 주최했다.

장학금은 추석에 50만원, 설날에 50만원으로 2번에 나눠 총 100만원씩 지급되며 10년간 한 가정에 1000만원 씩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해운정사는 1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대상을 모집했다.

해운정사 측은 "출산율 저하는 단순한 사회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세계를 등한시해 인간의 참된 본성서 멀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운정사는 출산양육장학금을 전달할 뿐 아니라 6개월 전부터 각 가정에 수행을 독려하며 인성교육을 강조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 진제 스님은 각 가정에 인성교육 오계를 내리며 바른 심성을 강조했다.

수여식서 장학금을 받은 자녀들은 가르침에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진제 스님은 "출산율 문제는 한 가족이나 한 사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의 문제"라며 "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더욱 꽃 피우기 위해선 3자녀 갖기 운동을 온 국민이 함께 실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류선진국이 될 것이며, 천추만대 조상의 미풍양속을 전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에 6.0명의 출산율을 기록한 이래 산아제한정책과 더불어 사회구조의 변화로 출산율이 떨어진 후 2013년 1.25명으로 세계서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해운정사 측은 "출산율 저하는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으로 생산력이 저하되고 동시에 노령화가 발생하므로, 젊은 세대가 노령세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무거워진다"며 "그뿐 아니라 지금의 출산율로는 100년이 지나지 않아 한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하성미 기자

108배 90일 수행 "행복을 기도해요"

홍법사 어린이회, 재가 하안거 회향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동림 어린이회가 재가 하안거 수행을 회향했다. 5월 30일~8월 27일 총 90일 동안 진행된 하안거엔 초등생 50여명이 참여했다.

90일 동안 108배 수행을 빠지지 않고 해낸 아이들이 총 70%에 이를 정도이며, 홍법사는 향후 108배 천일결사도 가능하단 자신감을 얻어 현재 기획 중이다.

회향식은 8월 27일~28일 동안 홍법사 경내에서 진행됐으며 108배 및 방생, 수행록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강지민(교대부속초 · 2년) 학생은 "90일 수행 회향 이틀 전 교통사고를 당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사고 순간에는 많이 놀라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며 기도했다"며 "여름에 너무 더워 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세상에 가난한 아이들이 없길 바라며 기도할 때 너무나 행복했다"고 전해 감동을 남겼다.

김미옥(56 · 금정구) 동림 자모회원은 "아이가 처음에는 잘했는데 중간에 한 번씩 꾀를 부리며 안 하려 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야단치지 않았고 아이를 대신해 혼자 108배를 3번씩 했다"며 "그 후 아이가 자발적으로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며 '교육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를 느꼈다. 지혜를 얻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진해 호국사, 법당 불사로 '힘찬 다짐'

8월 30일 해군사관학교 법당 신축불사 기공식

진해 해군사관학교의 법당 '호국사'의 불사가 시작됐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8월 30일 '호국사' 기공식을 해군사관학교 내 호국사 부지 앞에서 봉행하고, 안전한 공사를 발원했다.

호국사는 1972년 창건돼 44년간 사관생도들이 불심을 다지는 도량으로써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노후한 시설로 인해 증축 불사가 꾸준히 요청돼왔다. 이번 기공식을 맞아 호국사는 개선된 시설로써 더욱 활발한 포교를 펼친다는 다짐이다.

신축될 호국사는 고건축 양식의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98㎡ 규모이다. 1층에는 법사관실과 친교공간이 자리 잡으며, 2층에는 약 3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법당이 조성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35억 원의 대규모 불사이며 2017년 12월 완공이 목표다. 이후 사관생들의 쉼터 뿐 아니라 포교 및 교육도량으로 회향된다. 이를 위해 기존 법당은 6월 철거됐다.

행사는 개회사, 내빈소개, 경과보고, 축사, 발원문, 격려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한 부처님 출현하시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세워지면 극락정토가 세워진다는 말이 있다"며 "호국사 법당으로 인해 이곳 대한민국 최고의 건아들이 건강과 힘, 용기, 지혜를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 불사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44년 낙후시설 개선 요청 '빗발'
35억 · 지상 2층 대규모 불사
기존 법당, 지난 6월 철거 진행
"해군 위한 거룩한 법당 발원"

해군사관학교장 이범림 중장은 "그동안 숙원 사업이었던 호국사 불사의 첫 삽을 뜨게 돼 기쁘다"며 "새롭게 신축되는 호국사는 앞으로 사관생도들의 신앙심 고취 뿐 아니라 정신력 강화를 위한 도량이 될 것이다. 이곳에 참여해 주신 많은 내빈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진해사암연합회 스님들이 참가해 격려하고 군포교 현장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진해사암연합회장 해초 스님은 "그동안 법당이 낡고 비도 새서 안타까움이 많았는데 큰 발원이 이뤄져 크게 축하한다"며 "해군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다니듯 불교에는 생사고해란 바다가 있다. 이 생사고해 바다를 넘고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거룩한 법당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호국사는 매년 임관 법회에서 가장 많은 불자 생도들이 참여하는 활발한 군포교 현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작년 해군사관학교 제70기 졸업 임관법회에는 졸업생 144명 가운데 불교 58명, 기독교 48, 천주교 36명 순으로 불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공식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군종교구 총무국장 지선 스님, 범어사 교무국장 범수 스님, 진해사암연합회 회장 해초 스님 및 진해사암연합회 스님들을 비롯해 호국사 초대법사 원명 스님(영주 관음사), 이범림 해군사관학교장, 최명한 호국사 신도회장, 해군사관학교 불자 장병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조계종 군종교구는 8월 30일 진해 해군사관학교 법당 호국사 기공식을 해군사관학교 내 호국사 부지 앞에서 봉행했다.

청년불교 활성화… 해답은 '가정법회'

수도사 청년회, 1차 법회 봉행
양갱 만들기 등 가족프로그램

부산 수도사(주지 일철) 청년회의 첫 법회가 봉행됐다.

수도사 청년회는 8월 27일 수도사 경내 법당서 제1차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7월 9일 창립된 수도사 청년회는 매월 4째주 토요일 오후 1시 정기법회를 열고, 불교문화 수업을 통한 포교활동에 나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법회는 회원들의 요구사항이었던 가정법회 및 문화수업으로 진행됐으며, 회원 30여명이 참여했다. 40대로 구성된 청년들이 가족을 두고 주말에 절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구성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1부 법회에 이어 2부 불교문화수업으로 전통양갱 만들기가 진행됐다. 회원들은 전통양갱을 창립에 도움을 준 수진스님(부산조계종연합회 회장)과 수도사 주지 일철 스님, 수월 스님, 추현철 BTN불교TV 중창단장, 김태훈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 및 회원들에게 전달해 감사인사를 전할 것이라 밝혔다.


8월 27일 수도사 법당서 첫 법회를 봉행한 청년회 회원들이 양갱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민경(36 · 부산 구포동) 씨는 "자녀 3명을 데리고 참석했다. 법회에 함께할 뿐 아니라, 특히 큰 아이는 요리를 좋아해 양갱을 만들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다"며 "가족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서재원 수도사 청년회장은 "앞으로 사찰음식, 선화, 붓글씨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할 것"이라며 "불교에 대해 깊이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시간과 수행 프로그램도 주중에 마련, 수행정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 회장은 "시작은 미미하지만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나눔으로 회향하는 청년회로 발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나은사 일주문 낙성

지역민 위한 포교 도량으로 회향

양산 나은사(주지 남월)가 일주문 낙성법회를 봉행하고 15년 불사를 마무리했다.

나은사는 8월 27일 일주문 낙성 법회를 경내법당서 개최했다. 낙성법회에는 주지 남월 스님, 천성사 주지 대안 스님, 만복사 주지 대현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여해 축하했다.

법회는 제막식과 개식 및 발원문 낭독, 설법 그리고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남월 스님은 "일주문 낙성식에 동참하신 우리 법우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엄한 경책 모두 감사드린다"며 "불사의 회향은 곧 포교이다. 포교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기도정진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나은사는 8월 27일 일주문 낙성 법회를 경내법당에서 개최했다.

범패 · 작법무 · 의식과정 학인모집

▼ 아래와 같이 제 14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 **범패 · 소리과정(5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오후 2시 ~ 3시 10분)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설명 등 전 과정 간단한 이론 강의

■ **작법 · 무용과정(5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오후 3시 30분 ~ 5시)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진언바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2016년 9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6년 8월 ~ 2016년 9월 21일 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인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349-8)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2호
전화 : 032) 529-6708 FAX : 032) 529-6709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승려 분한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종단 종도 여러분의 사암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행정의 재정비와 본 종단의 종도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종도 여러분은 기한 내 재등록을 하시여 사암의 주지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에 관심과 동참을 원하시는 스님들께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불어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소속으로 있다가 제적, 탈종된 승려도 분한신고를 하면 구제 하고자 합니다.

아 래

① 실시기간 : **2016년 7월 28일 부터**
② 접수마감 : **2016년 9월 29일 까지**
③ 구비서류 : · 본 종단 승려분한 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서 ····· 각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 (3개월 이내) ····· 각 1부
·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이력서 각 1부 · 승려증 · 증명사진 3매
④ 접수장소 :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번지)
⑤ 전화번호 : 054-974-2605 / 팩스 : 054-974-2705

※ 위 기간에 분한신고 및 사찰 재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의 종도로서 지위를 인정치 않으며 세무서에 통보함과 아울러 사찰등록증 취소 및 말소 처리 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분담금이 1년 이상 미납된 사찰과 종단에 비협조적인 종도와 사찰은 정리되며 신문에 공지 합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봉사는 천직, 힘닿는 데까지 해야죠”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완주 위봉사 관음회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새벽이면 완주 위봉사 관음회장 박순자 씨가 운영하는 식당이 들썩인다. 쉬는 날임에도 새벽부터 음식준비로 분주한 이유는 바로 이들을 기다리는 군장병들이 있기 때문이다.

떡볶이며 쫄면, 김밥을 100인분씩 준비하는 보살들의 손길이 분주하기만 하다. 벌써 13년째 계속되는 진풍경이다. 위봉사 관음회는 1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북 임실 소재 제6탄약창 호국 장영사 법당을 찾아 장병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했다.

이들을 기다리는 장병들의 마음은 들뜨기 마련이다. 부대 식당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간식거리를 푸짐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관음회 회원들은 부대를 방문하기 3일 전부터 떡볶이를 비롯해 짜장면, 비빔국수, 냉면, 토스트, 쫄면, 감자전, 떡국 등의 메뉴를 정해 장을 보고, 손수 음식을 준비해 장병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지난 8월 21일 임실 제6탄약창 봉사활동을 마친 위봉사 관음회 회원들. 가운데가 박순자 회장, 박 회장 오른쪽이 이성강 포교사다.

위봉사 관음회는 17년 전인 1999년 창립됐다. 관음회 최초 창립 목적은 위봉사 선원을 비롯해 제방 선원서 정진하는 스님들을 위해 승보공양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원 승보공양은 3년 전까지 계속되다 회원들이 점차 연로해지고 회원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봉사에 눈을 돌리게 됐다. 그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지속해오고 있는 봉사활동이 바로 호국장영사 군장병들을 위한 먹거리 봉사다. 이외에도 위봉사 신도회가 주관하고 있는 35사단 호국 충국사 법당 봉사활동과 전북불교회관 경로식당에도 회원 일부가 참여하고 있다.

관음회가 호국 장영사 군장병들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04년 크리스마스 무렵이다. 다양한 기독교 행사로 소외된 불자장병들을 위해 이성강 포교사와 함께 장병 200명에게 떡국을 끓여주면서 장영사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이때 국물 한 방울 남김없이 맛있게 먹는 장병들을 보며 관음회 회원들과 군포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다짐한 것이 올해로 13년째를 맞았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봉사를 이어온 데는 위봉사 주지 법중 스님의 후원 또한 큰 힘이 되고 있다.

위봉사는 대중이 소비하는 모든 식재료를 자급자족하는 반농반선을 실천하는데, 관음회는 사찰 채마밭을 돌보는 일을 맡고 있다. 여기서 생산된 채소는 위봉사 대중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인 송광사 정심원, 인근 복지원, 불교회관 경로식당에 후원되고 있다. 관음회원들이 적극적인 봉사활동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위봉사 법중 스님의 이 같은 실천하는 행에서 본받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신행단체 중 가장 모범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관음회의 가장 큰 장점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보시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 가족, 거사들도 함께 봉사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봉사현장에 갈 때마다 운전은 물론 설거지는 의례 거사들의 몫일 정도로 거사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의 법문을 마음에 새기며 사회에 회향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관음회 회원들. 한여름 무더위와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법당을 찾는 병사들의 밝은 표정에서 큰 위안을 얻는다고 입을 모은다.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어 회원들도 이제 점차 연로해지고 봉사활동에 힘이 부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힘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쉼 없이 장병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늘 다짐하는 관음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각국 문화장관, “사찰음식 넘버원”

광주 국제행사 만찬
증심사서 열려

남아시아국가 문화장관들이 한국불교 사찰음식에 매료됐다.

광주광역시는 8월 31일 개최한 ‘제2회 한-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 대표단 환영 만찬’을 증심사(주지 연광) 취백루서 실시했다. 행사에는 부탄 내무문화부 다와 지알트쉔 장관을 비롯해 각국 대표단 40여 명이 참여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만찬사를 통해 “역사와 전통, 문화를 간직한 광주를 찾아주신 것을 광주시민을 대신해 환영한다. 광주의 어머니산인 무등산과 천년고찰 증심사 등 광주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에 모시게 돼 영광이다”고 밝혔다.

부탄 다와지알트쉔 장관 답사에 이어 연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찰이라는 전통문화공간에서 천년 넘게 이어온 사찰의 음식문화를 세계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돼 감사하다”며 “사찰과 자연식 사찰음식을 통해 한국전통문화의 멋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장에 나선 사찰음식은 6개의 코스로 △1코스-우유 연미죽과 연근, 더덕물김치 △2코스-우엉잡채, 오이가지 잣무침과 양송이 감자찜, 매실장아찌 △3코스-애호박편수, 느타리버섯강정, 우엉구이, 수삼샐러드 △4코스-두부스테이크와 어린잎 샐러드 △5코스-치자 더덕밥외 배추김치, 미역국, 장아찌류, 나물 등이 제공됐다. 본 식사에 이어 후식으로 사과주머니, 양갱, 계절과일 등이 더해져 사찰음식의 풍미를 더했다.



제2회 한-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이 증심사서 사찰음식 만찬을 즐기는 모습.

남아시아 대표단 모인 국제회의
다양한 사찰음식 코스 ‘눈길’
각국 대표단들 만족감 드러내

이날 대표단은 통역을 통해 연신 ‘사찰음식 아름답다’고 말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5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각국 대표단 만찬과 올해 6월 열린 제7차 아셈문화장관회의 공식만찬을 잇따라 사찰음식으로 대접해 큰 호응을 얻었다. 증심사도 이런 추세에 맞춰 2014년 ‘빛고을 자연사찰음식 체험관’을 열고, 사찰음식 강좌와 지역민들에게 무료 체험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심곡사, 가을맞이 떡목음악회 개최

늦여름 무더위를 식히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는 시원한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익산 미륵산 중턱에 자리 잡은 심곡사(주지 정안)는 8월 27일 심곡사 떡목공연장서 ‘으라차차 The We 가을이 오는 소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중앙종회의원 설암 · 화평 · 재안 · 제민 스님, 함양 서암정사 회주 원응 스님,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불자와 시민들이 공연장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개그맨 박범수 씨의 사회로 문을 연 음악회는 불교무형문화재 법우 스님의 승무로 불교문화의 진수를 선보였으며, 익산 국악원 임화영 명창이 신명나는 우리가락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또 가수 한혜진, 한승기, 이승훈 씨와 전자바이올리니스트 박은주 씨가 무대에 올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했다.

심곡사 한주 화평 스님은 “떡목음악회에서 가을이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한여름 무더위를 떨쳐내기 바란다”며 “이제는 가을을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추억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 마음 속 등불을 밝혀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청소년 마음공부 수련회

사춘기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공부 수련회가 열렸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8월 27일~28일 광주 대성여고 학생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인성계발을 위한 ‘2016 청소년 마음등불’ 수련회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조계종 포교원 후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꽃을 피우는 나무’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는 인생의 과도기적 발달단계인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돕고 가치관 정립을 위해 불교적 인성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여한 학생들은 ‘소중해’ ‘사랑해’ ‘행복해’ ‘감사해’ 반으로 나눠 지도교사와 함께 첫날 자기완성의 길, 음식 만들기, 특강(내면을 향하여), 조별발표, 공감천왕, 촛불명상에 이어 둘째 날 예불, 선체조, 특강(변화하는 나), 한마음 놀이, 소감문 작성 및 공유, 회향식을 체험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이 개최한 2016 마음등불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담소를 나누며 유대감을 쌓고 있다.

혜월 스님은 “마음등불 수련회를 통해 자신의 마음 등불을 밝혀, 인성을 계발하고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위풍당당한 청소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꽃을 피우는 나무’는 이 세상은 하나의 생명공동체이며, 그 흐름 속에 나도 하나의 생명공동체로서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온 세상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실천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다시 오고 싶은 선운골 만들자”

선운사, 선운골 공동체 화합한마당 잔치

고창 선운사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선운골 공동체를 위한 화합한마당 잔치가 열렸다.

선운사 대중스님, 불학승가대학원 스님들과 상가번영회,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농협, 우체국, 선운산 유스호스텔, 석상마을 주민들은 8월 31일 선운사 생태공원서 ‘선운골 공동체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불학승가대학원장 환성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박우정 고창군수, 이경신 군의회 부의장 등 지역 기관장, 마을주민 200여 명이 동참한 화합한마당은 푸짐한 음식을 나눠먹으며 정담을 나누고, 간단한 게임을 즐기면서 서로 존중하는 잔치가 됐다.

선운사 스님들과 지역 주민들은 서로 격의 없이 어울리며 노래자랑, 족구, 윷놀이, 투호, 고리 던지기, 농구 자유투, 볼링 등의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종목당 우승팀에게는 상품이 주어졌으며, 참가자들에게는 추첨 경품이 제공됐다.


선운사 스님들이 선운골 화합한마당서 족구를 하고 있다.

올해로 7번째 맞은 선운골 화합한마당은 사찰과 주민들 간의 화합을 다져 승속이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 아래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선운사를 찾는 탐방객에게 보다 나은 친절과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우 스님은 “선운골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오도록 하자”며 “선운사와 스님, 마을주민과 상가주민들이 상생하며 모두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지혜의 보고 佛書



사진 왼쪽부터 세 종교의 수장인 한경직 목사, 청담 스님, 김수환 추기경 등이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다.

평전으로 되살린 한국불교 거목 청담 스님



청담순호선사 평전

방남수, 임병화 편저 | 화남 펴냄 | 3만 5천원

한국불교 정화운동 주역
대한불교조계종 기틀 마련

'마음사상' 여러 각도서 탐구
새롭게 조명한 부분도 첨가

대한불교 조계종의 터전을 닦은 청담 순호 대종사는 근현대 한국사는 물론 불교사를 이끈 선지식이다. 기나긴 일제 강점기로 불교계는 물론 민중들 마음 세계까지 피폐해진 상황에서, 청담 대종사는 한국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민중의 길잡이이자 버팀목 역할을 했다.

〈청담순호선사 평전〉은 이런 청담순호 대종사의 삶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책이다. 동방문화대학원대서 청담 대종사의 사상세계를 연구한 방남수, 임병화 두 사람의 공저로 선을 보였다. 청담 대종사 출생서 시작해 수행 과정, 불교계를 정화하고 대한불교 조계종을 일으켜 세우기까지의 과정, 포교와 교육 활동에 헌신한 삶의 면면과 사상 철학까지 빠짐없이 담았다. 청담순호 대종사는 조선의 운명이 기울던 1902년 경남 진주서 태어났다. 젊은 시절부터 불법에 뜻을 두고 일본에 가서 공부하며 출가 했지만, 당시 우리 불교계는 민중을 이끌고 보듬어 줄 역량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대부분의 승려들이 부인과 자식을 두고 재물을 모으며 술과 고기를 먹는 등 계율을 지키지 않는 대처승(帶妻僧)들이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큰 사찰들도 일제의 탄압으로 쇠락하거나 대처승들의 손에 들어갔다.

청담 대종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불교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승려들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석가모니가 설법한 그대로 계율을 지키고, 참선과 수행으로 몸과 마음을 닦으며, 깨달음을 얻어야만 중생들에게도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다고 여겼다. 당대의 선지식인 만공 선사 밑에서 끝없는 정진과 참선을 통해 견성(見性)한 청담 대종사는 기나긴 불교정화 운동에 뛰어든다.

대종사는 정화에 뜻을 함께하는 승려들과 힘을 모아 청정승가를 계승하고 정통 불교를 바로 세우고자 했다. 그러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대처승들과의 투쟁은 길고 모질게 이어졌다. 법정 공방이 계속됐으며, 의지를 보인 스님들의 단식과 할복까지 벌어졌다. 그 모든 우여곡절 끝에 교단을 바로잡고, 젊은 승려들을 새로이 교육하면서 세워진 것이 오늘날의 대한불교 조계종이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설립을 통해 우리 불교가 한국 선불교의 명맥을 잇게 된 것이다.

〈청담순호선사 평전〉은 당시의 기록, 청담 대종사의 후학들을 비롯해 함께 활동한 수많은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 모든 과정을 생생히 되살려냈다. 청담 대종사의 삶과 행적을 따라가면서, 근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빠짐없이 거칠 뿐 아니라 한국 불교 사상의 원류까지 찾아들어간다. 해방 전후 불교정화를 결의하고 실행해나간 과정, 무장한 북한군을 설법으로 물러가게 한 일화, 불교개혁에 반발한 대처승들과의 끝없는 투쟁 등은 읽을수록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꼿꼿한 성정이면서도 화내는 법이 없어 인욕(忍辱)보살로 불린 풍모도 제자들의 술회를 통해 되살아난다. 10. 26 법난, 조계사 땅 문제 등 군부정권의 탄압으로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근현대사 속 진실들 역시 실증과 함께 뚜렷이 밝혀놓았다.





사진 위쪽은 총무원장 취임사를 하는 청담 스님 모습. 아래는 성철 스님과 함께 찍은 사진.

워낙 걸출한 행동가인 탓에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청담 대종사의 사상가적 측면 역시 심도 있게 다뤄졌다. 싯다르타를 시작으로 달마 대사, 원효 대사 등을 거쳐온 선불교의 명맥이 어떻게 청담 대종사와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이어졌는지를 차근차근 밟아나간다. 특히 청담 대종사 불교관의 핵심인 '마음 사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구했다.

청담 대종사는 두 번 나오기 힘든 활동가였다. 경전 간행과 포교 사업, 교육사업과 복지 사업, 불교 언론 설립 등 수많은 분야서 비전을 세우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시대를 앞서간 선견지명과 확고한 신념에 놀라게 된다. 그러나 행동이란 글이나 말과 달리 종이에 쓰여 남지 않는 것이므로, 그만큼 기록하고 기억하려는 후대의 노력이 중요하다.

저자 중 한 사람인 임병화 前 불교신문 편집국장은 "청담 대종사에 관해 가능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책은 청담 대종사 제자들의 회고 인터뷰, 명사들과의 대담, 스님의 사상 세계를 다룬 논문 등 현재 남아 있는 스님에 대한 기록을 최대한 망라하고 있다. 부록에는 청담 대종사의 저서는 물론 스님에 대해서 다룬 책, 기사, 기타 관련자료 리스트도 빼곡하게 실었다. 일반 독자와 연구자를 막론하고 청담 대종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지나칠 수 없는 책이다.

특히 이번 책에서 두 저자는 꼼꼼한 취재를 통해 △'마음 법문'을 듣고 발심 출가하기까지의 인연 △청담이란 법호를 쓴 연유 △청담 스님이 불교정화에 진력한 이유 △불교정화에 대한 의지 △육영수 여사와의 인연담 △도선사 중창불사에 대한 오해 △청담스님 교육 불사의 정체성 △봉은사 토지매각에 대한 오해 △입적에 얽힌 의문 등을 새롭게 조명해 눈길을 끈다.

곁에서 모신 제자인 혜성 대종사는 "근현대 한국 불교사서 청담 대종사의 위치는 확고하다. 스님은 불교정화 운동의 주역이자 인욕보살로 칭해지는 선지식이셨다."고 회고했다. 김주일 기자



믿는 마음

법보신문 편집국 지음
모과나무 펴냄
1만 3천원

절망과 시련 속에서 길어 올린 깨달음

〈믿는 마음〉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하고 법보신문, 불교방송이 진행한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을 엮은 세 번째 책이다. 모든 이들이 함께 공감하고 치유의 마음을 나누는 신행수기 공모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대표적인 신행 마당이다.

이 책은 장애가 있는 딸을 낳고 키우면서 엄마로서 느꼈던 좌절과 슬픔, 자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모성을 넘어 중생을 향한 연민과 자비를 보여준 이야기를 시작으로 청소년기에 어긋난 길을 걷던 중 어느 순간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 청년, 한 순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 반목하다가 수행과 참회의 절로 서로 화해한 세 자매의 이야기, 눈물겹도록 생생하고 치열한 포교 신행의 과정을 담은 어느 포교사의 수행담 등 자기 고백과 수행의 과정을 담았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과 시련 속에서 건져 올린 깨달음의 순간은 더욱 빛난다.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나의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신행수기는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행복의 시간으로 안내하는 제 2의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는 머리글서 "신행수기는 문장력이 좋고 작품성이 뛰어나고 해서 당선작으로 선정되지 않는다. 평가 기준은 글 속에 담긴 신심과 진실된 마음과 아름답고 치열했던 삶의 궤적들"이라며 신행수기 평가 기준을 말했다.

절망과 시련 속에서 만난 부처님의 이야기는 바로 불자들의 기도와 신심을 담은 수행의 여정이며, 이것이 곧 불교수행의 핵심이기 때문에, 신행수기는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포교 콘텐츠'라는 평을 얻고 있다. 김주일 기자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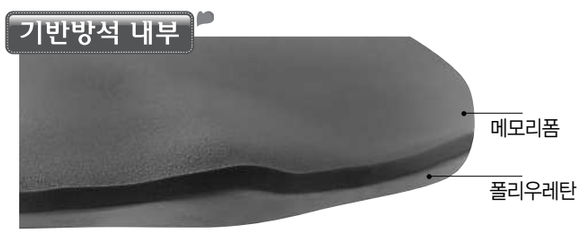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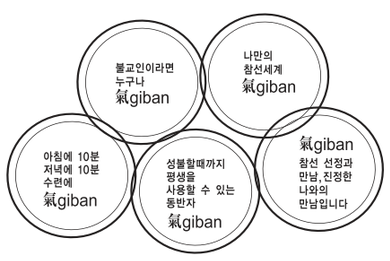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청산에 별 하나 띄우고 가을 청량히 노래하다

청량사, 10월 1일 산사음악회

명품 산사음악회의 효시 봉화 청량산 청량사(주지 지현) 산사음악회가 오는 10월 1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청산에 별 하나 띄워놓고'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2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사중 불사로 인해 음악회가 개최되지 못했기 때문.

그 만큼 다양한 가수들의 공연으로 청량산 가을밤을 채운다. 출연 가수로는 짙은 감성보컬의 소유자 박상민, 가슴 시원한 가창력의 소찬휘, 한국밴드뮤직의 거장 사랑과 평화와 한국불교 대표 소프라노 정율 스님이 출연한다. 지난 2013년 창단해 매년 정기연주회를 갖고 다양한 신행활동에 앞장서온 청량사의 둥근소리 합창단, 청량사 어린이 밴드도 함께한다.

주지 지현 스님은 "청량사 하늘 위로 마음의 별 하나 띄워 올리고 여럿이 하나가 돼 기원해보자"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은하수가 될 수 있게 청량사 산사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란다"고 밝혔다. (054) 672-1446

신성민 기자

무더위로 지친 기력 사찰음식으로 보충을

발우공양 가을메뉴 선보여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이 천고마비 계절인 가을을 맞아 그간 더위로 지친 기력을 회복하고 가을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메뉴를 선보인다.

햅쌀과 잡곡, 다양한 뿌리채소와 버섯 등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가을메뉴는 △오곡 단호박죽 △가을채소 잡채 △더덕 배 잣즙 무침 △마 된장 참깨무침 △가을버섯 선물상자 등이 있다. 발우공양은 일교차가 심하고 날씨가 건조해지는 가을에 맞춰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메뉴를 준비했다. 메뉴는 코스로 진행되며 선식(禪食), 원식(願食), 마음식(念食), 희식(喜食) 중 선택할 수 있다. 가을메뉴는 11월까지 제공. 윤호섭 기자



가을버섯 선물상자.



한가위 보름달 소원빌며 신명나게 놀아볼까

추석 연휴 맞아 가볼만한 문화행사

민족의 명절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때보다 길어진 추석 연휴인 만큼 문화계도 다양한 전시와 문화체험, 공연들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의 국립 박물관에서는 세시풍속과 민속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마련됐다.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은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세시행사를 진행한다.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관내 어린이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다. 놀이 마당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놀았던 거북놀이(이천거북놀이보존회)가 펼쳐진다. 또한 풍년을 축하하는 놀이판으로 꼭두각시놀음 공연도 이뤄진다. 박물관 속 오촌댁 대청마루에서 직접 차례상을 차려 볼 수 있으며, 차례 후에는 추석빔을 곱게 차려 입은 어린이들을 위해 '배씨댕기 머리띠'와 '매듭 장신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그 밖에 '계란 꾸러미 만들기', '배지 만들기' 등 5개의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달이 뜨면 놀았던 해남우수영 강강술래 공연을 비롯해서 광명지역에서 전해지는 사물놀이인 광명농악 등 다양한 전통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신나는 음악이 어우러지는 국악 비보잉 등 퓨전 공연을 비롯해 페루의 민속음악 공연도 진행된다. (02)3704-3114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은 9월 14일~18일까지 '한가위 민속놀이 한마당'을 마련한다. 9월 14~15일, 17~18일에는 어린이 고객들을 위해 인기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다이노 타임' 등을 오후 2시와 4시, 하루 두 차례 박물관 강당에서 상영한다.

한가위 다음날인 9월 16일에는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임 · 저글링, 비눗방울, 마술 공연이 신라역사관 앞마당에서 펼쳐진다. 또한, 연탄불을 이용한 달고나 만들기와 추억의 뽕튀기 행사를 마련하여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부모님 세대의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054)740-7500

국내 최고의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도 추석을 맞아 18일까지 '한가위 좋을씨고'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가위 전통 세시풍속 체험뿐 아니라 오직 한국민속촌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공연을 선보인다.



경주엑스포의 상설공연 '플라잉'의 한 장면. 추석에는 할인 행사로 관객을 만난다.

민속박물관 · 중앙박물관 등
세시풍속 · 민속 문화 체험
국악 · 무형문화재 공연 열려
경주엑스포 공연 '플라잉'도

'성주고사', '송편 빚어보기 체험', '길쌈놀이 대회', '한가위 추수 원정대'는 옛 모습 그대로의 한가위 전통문화를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민속촌 캐릭터와 함께하는 '사또의 풍년잔치'와 '한가위 거북놀이', '길쌈놀이 대회'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의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연휴기간 내내 민족의 얼과 흥을 느낄 수 있는 농악놀이, 마상무예, 전통혼례 공연이 진행되며, 한복 착용 방문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031)288-0000

국악과 무형문화재 등을 만날 수 있는 공연도 주목할만 하다. **국립국악원**(원장 김해숙)은 9월 15, 16일 양일간 '한가위 별별잔치'를 오후 8시에 국악원 연희마당에서 개최한다. 공연은 흥겨운 전통 연희와 민요로 꾸며진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연희부의 한국형 퍼레이드 '길놀이', 축복을 비는 '비나리' 등 다채로운 장단으로 공연의 문을 연다. 국악원 민속악단은 추석놀이를 노래한 '팔월가'와 경기민요풍의 신민요 '추석달', 경기민요 '방아타령', '잦은 방아타령'으로 한가위의 풍성함을 노래한다. 또한 줄타기 명인 권인태의 아슬아슬한 재미의 줄타기 공연도 빼놓을 수 없다. (02)580-3300

경주엑스포의 스테디셀러 공연 'FLYING(이하 플라잉)'도 추석에 앞서 9월 5일부터 하반기 공연에 들어갔다.

'플라잉'은 2011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주제공연을 시작으로 6년 차를 맞은 경주의 대표적인 상설공연으로 역사 속 화랑과 도깨비가 시간의 문을 통해 21세기 경주의 한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생기는 좌충우돌 판타지를 유쾌하게 담아냈다.

추석 연휴와 가을 연휴기간에는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9월 10일부터 18일(일)까지 9일간, 또 가을여행주간인 10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14일간 대인 · 소인 모두 1만 5000원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공연의 정상가는 대인 3만원, 소인 2만원이다. (054)740-3075

또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서도식)도 추석을 맞아 9월 내내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공개행사를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다.

이와 함께 추석연휴인 9월 10~18일동안 국립미술관 · 4대 고궁 · 종묘 등이 무료개방되며, 경복궁은 '별빛 야행'을 주제로 야간 관람을 실시한다. 신성민 기자

불교미술 '十方三世' 한눈에 조망하다

조계종, 2016 불교미술대전
9월 20일까지 아라아트센터

불교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미술대회인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 9월 7~20일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서 열린다. 지난해 공모전에 이어 올해는 기획전을 통해 불교미술 진흥에 일조할 예정이다.

불교미술대전의 세 번째 기획전인 이번 전시회 주제는 '과거천년 현재, 미래천년 현재'다. 불교미술의 수승함이 수천 년을 거쳐 현재로 이어져온 모습, 앞으로 천년을 향한 새로운 이해와 지평을 열어가는 모습을 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불교미술대전 역대 수상작가 및 불교적 사상과 색채를 가진 작가를 대거 초대했다.



서용 작가의 돈황벽화 변상도 회화.

전시회에는 작가 30명의 작품 44점이 선보인다. △조각-청원 스님 · 고석산 · 박명옥 · 양순열 · 정진호 · 한봉석(6인) △회화-도일 · 도현 · 본공 · 성각 스님 · 김경미 · 김영옥 · 박나나 · 서용 · 안상수 · 이연욱 · 양순열(회화중복) · 정성길 · 정향자 · 조해종 · 최문정(15인) △공예-명천 스님 · 곽홍찬 · 김기호 · 김덕환 · 김해자 · 박선경 · 안명선 · 원광식 · 원천수 · 정봉섭(10인) 등이 참여했다.

눈여겨볼만한 작품은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20호 목조각장 청원 스님의 관세음보살상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9호 한봉석 목조각장의 목조 당사자상. 청원 스님은 화관 장식 등을 금속과 천연원석으로 세밀하게 제작하고, 천 부분을 칠보채색개금으로 표현해 장엄함을 더했다.

행사를 주관하는 조계종 문화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동시에 현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불교미술대전 세 번째 기획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100년 전 경주의 모습은 어땠을까

동국대 경주캠 박물관, '사진엽서 속 경주'展

일제 강점기 당시 경주와 불국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관장 송은석)은 오는 9월 12일까지 영천역사문화박물관과 공동으로 '100년 전 사진엽서 속의 경주' 특별 사진전을 개최한다.

특별 전시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사진엽서 중에서 경주의 옛 문화재, 사찰문화재, 민속 사진이 실린 70여점을 대상으로 한다. 혼례, 시골마을, 목재 나르기와 같은 100년 전 생활사가 고스란히 담긴 민속사진과 불국사, 해인사, 통도사, 은해사, 범어사 등 영남 일대의 주요 사찰의 옛 사진, 그리고 표암, 동궁, 월지, 석빙고 등 경주의 주요 유적지 사진 등으로 구성된다.



100년 전 사진엽서 속 불국사의 모습. 일제에 수리되기 이전의 모습을 알 수 있다.

'100년전 사진엽서 속의 경주' 전시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리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 (054)770-2300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BBS 불교방송

초/청/법/회

새로운 불자로 태어나게 하는
생활속의 금강경 대강좌

이 시대의 희유한 선지식이며
불세출의 도인으로 알려진
백성욱 박사 (1897~1981)

금강경 실천수행을 통해, 불행과 행복이 다르지 않고, 빈곤과 풍요가 다르지 않고, 무지 무능이 지혜 능력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 범부가 성자가 되는 이치를 깨치신 금강산 대(大) 도인(道人).

- 1897년 서울에서 출생
- 1910년 정릉 봉국사에서 최하응 대선사를 은사로 출가, 상해 임시정부 독립운동 참여.
- 1925년 독일 Würzburg 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독일 철학박사 학위 취득
- 1928년 금강산 입산, 10년 수도로 견성오도(見性悟道)
- 1945년 광복 후 건국운동에 참여.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 내무부 장관직을 필두로 한국광업진흥 주식회사 사장 역임
- 1953년 동국대학교 총장 역임
- 1962년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에 금강경 수행도량을 개설하여 인연있는 후학들을 지도
- 1981년 출생하신 바로 그날, 아무 말씀 없이 열반에 드심

백성욱 박사의 제자
김원수 이사장은 누구인가?

- 1943년 경기 연천 출생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와 R.O.T.C. 장교로 군복무후 엘리트 코스를 포기하고, 백성욱 박사 문중으로 4년간 출가하여 금강경 실천수행
- 홍익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를 29년간 역임
- 퇴임후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금강경 실천도량)을 설립
- 사재를 털어 법당 2채를 법인에 헌납
- 무료급식소를 설립(2004)하여 지금까지 30만명 급식 실시
- 조계종 사회복지부문 〈총무원장상〉 수상(2010)
-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1년간 〈생활속의 금강경〉 매주 특강(2015)
- 매년 〈금강경 연수원 세미나〉 개최
- 출간서적 :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크리스챤과 함께 읽는 금강경』, 『붓다가 되신 예수님』 등

법문내용

- 선지식과의 만남을 통한 자신의 변화과정
- 부처님 설법의 특징 및 금강경 공부의 당위성
- 금강경 대의를 통한 신해행증
- 금강경 3분에 나타난 진리 및 실천 수행법
- 금강경 4분부터 14분까지 대의 설명
- 금강경을 통한 재앙소멸 소원성취 원리 소개
- 금강경을 통한 획기적인 인성교육 및 인재(CEO) 양성 대안 제시
- 금강경을 통한 불법 진흥 및 출가자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 '금강경 교육모델로 삼으면 하버드大 능가한다'

신청안내

- 강 사 : 김원수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 일 자 : 2016년 9월 5일(월) ~ 11월 28일(월) 매주 월요일 (12강좌)
- 시 간 : 저녁 7시 ~ 8시 30분
- 장 소 : BBS 불교방송 3층 다보원 법당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 수 강 료 : 6만원 (3개월분)
- 납부계좌 : KEB 하나은행 266-890010-35104 예금주 : (재단법인)대한불교진흥원
- 접수기간 : 8월 20일 ~ 9월 30일
- 문의전화 : (02) 707-1072
- 담 당 :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문화센터

| 주최 | 대한불교진흥원 BBS 불교방송

추석차례 및 사찰 프로그램

秋夕 차례, 이젠 사찰서 지내자



한 사찰에서 불교식 차례를 지내는 모습. 최근 사찰에서는 합동차례와 함께 소외계층 나눔행사 등 명절의 의미를 되짚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다. 추석을 맞아 사찰 등 불교계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뭐니 뭐니 해도 사찰이 추석에 가장 많이 진행하는 행사는 합동차례다. 추석을 맞아 차례를 모시기에 고민이 된다면 가족들과 사찰로 발길을 옮겨보는 것도 좋다.

서울 조계사는 9월 15일 합동차례를 전후로 14일부터 16일까지 한가위 3일기도를 진행한다. 단순한 합동차례에 그치지 않고, 신심이 증강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02)768-8600

서울 봉은사의 경우 전국사찰 중 유일하게 단독차례를 진행하고 있다. 120가구에 한정해 모집하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접수 이틀만에 마감이 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합동차례와 달리 봉은사의 각 전각 특색에 맞춰 가족이 개별로 진행하는 차례다. 가격은 40만원 선. (02)3218-4800

서울 국제선센터는 추석 당일인 9월 15일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해 합동차례와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북한이탈주민의 향수를 덜어주고자 마련된 이번 법회는 새터민 110명과 고향에 가지 못하는 양천구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다. 차례가 끝난 후에는 전통한복입기, 송편빚기, 투호놀이 등 명절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02)2650-2200

달라지는 풍속, 신문화 정착
탈북민 · 소외계층 돕기 눈길
비용 저렴, 사전 접수 필요

진안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주지 보경)는 9월 1일 추석 차례 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연탄 나눔행사를 가졌다. 진안지역은 해발 500m 이상의 산간지역이다. 일교차가 크고 추위가 일찍 찾아오기 때문에 추석 무렵부터 연탄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이 많은 실정. 탑사와 쌍봉사는 추석 차례에 이어 동참 대중들이 모은 기금으로 마련한 3만장의 연탄을 관내 100가구에 전달한다. (063)433-0012

광주 무각사는 추석차례와 함께 재활용 나눔장터인 보물섬을 추석연휴기간 동안 개최한다. 추석기간 벼룩시장 형태로 운영되는 보물섬은 지난 2009년, 무각사 주지인 청학 스님의 제안에 따라 광주지역 4대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회운동으로, 올해로 개장 8년째를 맞고 있다. 보물섬은 지난 한 해동안 모두 26차례 장터를 열어, 상설매장 기부금과 토요장터 판매를 통해 모아진 700여 만원을 유엔 아동협력기금인 유니세프에 전달했다. 물품은 도서, 의류, 신발, 가방에서부터 가전 · 주방 · 아동용품 등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판매 가능한 중고품 그리고 개인 창작품이면 무엇이나 가능하다. 여름 피서철인 7,8월과 겨울 혹한기인 1,2월을 제외하고 매주 토요일에 열리며, 물품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접수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62)383-0108

순천 송광사는 추석 당일인 15일 사중 스님들과 신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추석송편빚기행사를 진행한다. 빚은 송편은 소외계층에게 전달된다. (061)755-0107

올 추석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함께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노덕현 기자

추석 합동차례 지내는 사찰

사찰명	시간	비용	전화번호
서울 조계사	오전 8시, 11시, 13시	10만원	02-768-8600
서울 봉은사	오전 8시, 10시	영가1위당 2만원	02-3218-4800
서울 국제선센터	오전 10시	10만원	02-2650-2200
서울 진관사	오전 5시	10만원	02-359-8410
수원 용주사	오전 11시	5만원	031-234-0040
속초 신흥사	오전 10시	10만원	033-636-7044
평창 월정사	오전 5시	5만원(기도비 10만원)	033-339-6800
공주 마곡사	오전 10시	10만원	041-841-6221
예산 수덕사	오전 10시	10만원	041-330-7700
보은 법주사	오전 11시	10만원	043-543-3615
부산 범어사	오전 9시 30분	5만원	051-508-3122
대구 동화사	오전 10시, 오후 2시	10만원	053-980-7900
영천 은해사	오전 10시 30분	5만원(위패 모신 분 3만원)	054-335-3318
경주 불국사	오전 10시	자율	054-746-9913
김천 직지사	오전 5시	5만원	054-436-6084
합천 해인사	오전 10시	3만원(위패 모신 분 1만원)	055-934-3000
하동 쌍계사	오전 10시	5만원(위패 모신 분 3만원)	055-883-1901
양산 통도사	오전 10시	3만원	055-382-7182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지구촌 빈민촌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위한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40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世界佛教 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대법회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 국회의원 회관대강당 / 오후 1시 30분

■주 최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세계 불교도들의 법왕이신 전계대화상 : 우 꾸마라 사야도

교수 아사리 : 에인다빠라 삼장법사. Dr 바라 사야도
갈마 아사리 : Dr 목탁 대승정 짜익티오성 사야도

법왕 Biodata of the Chairman of the State Samgha Mahanayaka Committee,
The Most Venerable Dr. Bhaddanta Kumarabhivamsa
(Abhidhajamaharattaguru, Aggamahapandita, Abbidhaja-aggamahasaddhammajotika)

❶ BHADDANTA EIN DA PA LA TIPI TAKA DHARA TIPI TAKA KAWI DHA TIPI TAKA DHARA DHAMMA BHAN DAGARIKA
❷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Dr MOK TAK
❸ Biodata of the Chairman of the Yangon Division Sangha Nayaka Committee, The Venerable Dr.Bhaddanta Eikdi Bala (Aggamahasaddhamajotikadhaja, Ph.D.Buddhism)
❹ AGGA MAHA SADHAMA JOTIKADHAJA BADDANDA NAGA DIPA



미얀마 정부 경제특보 보시의 화신 Dr Khin Shwe

한국본부 三師 교수아사리 : 현담 | 갈마아사리 : 혜정 본좌스님 외 108 證明團

10월 4일 각 정당 의원들과의 오찬 | 부평역광장 미얀마타운 명명식 축하법회

합동 建幢(건당) 의식 및 품수의식 봉행

■일시 및 장소 :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 의식 봉행 1시 30분

관리위원장 : 성각 / 조직위원장 : 원명 / 의전위원 : 성봉스님 외 9명

건당. 품수 심사위원회 의장단 : 혜선. 무상. 진성. 혜관. 심오. 송몽. 법산. 도명, 법현

세계불교지도자 합동금강계단 대법회 추진위원 : 이종관. 대공. 대도

400여 종단 한국불교 高僧 및 元老 큰스님 !

법왕님의 상좌 건당 및 품수 의식

3師 108 證明團에 큰스님들을 공개적으로 추대하여 모시고자 합니다.

주 최 : 대한불교 나라사랑 연합협의회 세계 평화 기원 대법회 봉행위원단
사단법인 : 세계불교법왕청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주 관 :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중앙정부
후 원 : 국회정각회 / 동국대학교총동문회 / 용성 대각사상선양회
총괄본부장 大僧正 목탁 (법왕청 법왕보좌 비서실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 신영빌딩 3층 (삼봉로 68) • 문의 및 접수 : 02)733-5665. 010-3618-6061

역사속에 비춰진 불교 차례문화

일본의 승려 원인(圓仁)이 9세기에 당나라를 10년 가까이 여행하면서 쓴 〈입당구법순례행기〉를 보면, 추석이 오직 신라에만 있는 명절이라는 기록이 나온다. 당시 당나라에는 신라인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신라인 집단거주지인 신라방(新羅坊)이 있어 이곳의 사찰을 신라원(新羅院)이라 하였다. 원인은 당나라에 머무는 동안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절에서 수제비와 떡을 장만하고 8월 보름 명절을 지냈다. 다른 나라에는 이 명절이 없고 유독 신라에만 있는 명절이다. 노승들의 말에 의하면, 신라가 옛날 발해와 전쟁을 할 때 이 날 승리하여 명절로 정하고 즐거운 음악과 춤을 즐기던 것이 오래도록 이어져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는 이 날 온갖 음식을 마련하여 노래하고 춤추고 음악을 즐기며 밤낮으로 사흘을 쉰다. 이곳 적산원(赤山院)은 고국을 그리워하며 오늘 이렇게 명절을 치렀다.'

기록에 따르면 사찰에서도 수제비와 떡 등 음식을 마련하고 사찰에서 춤 등으로 명절을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입당구법기〉, '사찰서 명절 지내'
고려 · 조선 지배층, 기제사 사찰서
"불교와 제사는 오랜 전통"

최근에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치르는 차례를 사찰에서 합동차례로 치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차례도 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차례(茶禮)라는 말이 '차를 올리는 예'이건만 유교제사에서는 실제 차 대신 술을 쓰고 있다. 차는 이 땅에 전래되면서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수행자들이 심신을 닦는 방편이자 부처님께 올리는 주된 공양물이 되어왔다. 고대의 불상과 탑 · 부도에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듯이, 불전에 차를 올리는 헌다의식은 이른 시기부터 정착되어 향 · 등 · 꽃 · 과일 · 쌀과 함께 육법공양물의 하나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고려 때는 왕실과 지배층에도 차가 널리 유행하여 중요한 국가행사에 진다의식(進茶儀式)이 빠짐없이 등장하였고, 궁중에는 차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다방(茶房)을 두었으며 민간에는 차를 재배하여 사찰에 공급하는 다촌(茶村)이 생겨났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차를 불교의 산물로 봄에 따라 차문화가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했으나, 이러한 정책기조와 달리 고려의 진다에 해당하는 의식이 다례(茶禮)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여전히 활발하게 행해졌다.

특히 제사에서 차를 사용한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삼국유사〉는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이 수로왕을 외가 쪽 15대 시조로 밝히면서, 수로왕의 사당을 종묘에 합하여 제사를 계속 지내도록 하였다. 매년 세시마다 지내는 이 제사에 술 · 감주 · 떡 · 밥 · 차 · 과일 등을 차렸는데 이는 종묘에 차를 올린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 되고 있다.

조선 초에 술과 차를 함께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한 과도기를 거쳐, 점차 '헌다'라는 용어는 그대로 두면서 물을 쓰게됐다. 이때 국을 내리고 물을 올려 밥을 조금 말아놓는 것은 곧 숭늉을 의미한다. 이율곡은 "국속(國俗)에는 차를 썼지만 지금은 물로 대신 한다"면서, 기제와 시제에서는 차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사에 술은 남고 차는 사라졌다는 사실에서, 차를 불교의 산물로 여겼던 이념적 이유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술은 금지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빈부와 무관하게 점차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술문화가 발달되어왔다는 점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상변통고〉에는 '기제사에서 소찬을 사용하는 잘못(忌祭用素饌之非)'이라는 글에서 여러 학자들의 글을 인용하였다. 이황은 제사에 고기를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제주가 근신하며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하여 제상에도 올리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탄식하였다.

그런데 이수광과 왕씨는 이러한 풍습이 단지 제주의 행소 관례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 사찰제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곧 왕씨는 사찰에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선대가 혈식(血食)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하였고, 이수광은 사찰에서 기신재를 열던 풍습으로 인해 사대부 집안에서는 고기를 쓰지만 국가의 기신제에는 오히려 소찬(素饌)을 쓰게 되었다고 하였다.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에도 사찰에서 기제사를 지내다보니 제사음식으로 술과 고기를 쓰지 않게 되면서, 유교식 제사를 지낼 때조차 이러한 풍습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사찰에서 치른 기제사와 차례는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종교적 바람을 반영하는 것이었기에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에도 왕실과 지배층에서 널리 행해졌던 것이다.

사찰제사는 근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줄어들었다가, 근래에는 사찰에서 치르는 기제사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절의 합동제사 또한 점차 늘고 있어 '불교와 제사'의 오랜 전통이 현대적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듯하다.

구미래 동방불교대학교 교수



불교식 차례상 예시도. 고기와 술을 올리지 않는다.

최근에는 사찰에서 합동차례를 지내는 것이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잡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차례를 올리는 경우가 아직은 일반적이다. 집마다 차례를 올리는 풍습은 다르지만, 불자라면 불교식 차례법을 생각해볼만 하다. 불교는 유교식 차례에서 사용하는 고기와 술 대신에 차와 제철 과실과 채소로 간소하면서도 부족하지 않는 차례상을 지향한다. 올해에는 불교식으로 차례상을 꾸며보자. 오랫동안 불교식 차례법을 연구·보급해온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이 불교식 차례상과 의식법에 대해 기고글을 통해 설명했다.

〈편집자 주〉

茶와 제철음식으로 조상 음덕 기리세요



법현 스님에게 듣는 불교식 차례법

불교식 상차림 | 흔히 상차림에는 홀수줄로 하며, 홀수 가짓수로 한다. 홍동백서·좌포우혜·두동미서 등의 순서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의례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삽입된 정체불명의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상님이 계시는 위패를 중심으로 전식(Appetizer), 본식(Main dish), 후식(Dessert)의 순서로 드시기 좋고 보기 좋게 진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철에 나는 음식이 가장 맛나고 영양가도 있어서 먼저 조상님께 올리고 후손들이 먹는다는 정신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추석에는 밥, 국 앞에 송편을 올리고, 그 앞에 반찬류, 그 앞에 과일과 떡류를 올리는 것이 보통이다. 설에는 송편을 올리지 않고 밥과 국 대신에 떡죽(국)을 올린다.

유교의 음식은 고기와 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비와 지혜의 종교인 불교에서는 채식을 중심으로 하고 다선일여의 차(茶)를 올려서 조상님과 후손들이 슬기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다르다.

위패(지방) 쓰는 법 | 유교 제사에서는 벼슬에 따라서 위패(지방)를 쓰거나 벼슬 하지 않은 이가 대부분이어서 아버지의 경우는 현고학생부군신위, 어머니는 현비유인신위라고 해서 죽음으로써 지위를 높여 벼슬의 맨 아래를 추서한 듯이 위패를 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평등하게 '선 엄부 본관 성공 이름 영가', '선 자모 본관 성씨 이름 영가'라고 쓴다.

수계를 받았다면 '선 엄부 계명 본관 성공 이름 영가'라고 쓰면 좋다. 다만, 차례에는 여러 분을 모시기에 위패를 쓰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가정 불교 차례 | 본디 사찰에서는 스님이 불자들을 위해 대신 해주는 의식만 있었기에 가정에서 지내는 차례의식문은 불교의식집에 들어있지 않아서 본인이 1990년도부터 새로 구성해 제시한 의식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다.

1) **미타거불(彌陀擧佛):**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상을 다 차리고 온 가족이 상 앞에 서서 염불하듯이 하면 더 좋고 아니면 그냥 시낭송 하듯이 하면 됨)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큰절)
나무 좌보처 관세음보살 (큰절)
나무 우보처 대세지보살 (큰절)

불교 상차림 '홀수'가 기본
제철 재료로 차례 준비해야
유교식 술·고기는 사용 안해

2) **다게(茶偈):** 차를 올리는 시(잘 달인 녹차를 제주 혼자서 한 잔 올리고 절은 다 같이 두 번 한 뒤 다 같이 한다.)
시방삼세 부처님과 청정미묘하신 법과 삼승사과의 해탈 얻으신 승가에 공양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감응하여 주옵소서

3) **청혼(請魂):** 조상님 영가를 모시는 의식
금일 여러 조상님들이시여 저희들이 모시는 추석(설) 차례에 강림하시어 감응하여 주시옵소서 (차를 차례차례 다 올리고 재자들 모두 큰 절 2배)

4) **공양:** 공양을 올리는 의식
저희 자손들이 계, 정, 혜, 해탈, 해탈지견의 5분향을 공양하오니 자성의 대지혜를 발하고 반야의 밝은 등을 켜서 3계의 어둠을 밝히사이다.
조주스님의 맑은 차를 드리오니 목마름이 아주 없어지이다.
선계의 진품과일을 올리오니 맛보아 주소서
진수를 올리오니 허기가 영원히 없어지이다.
오늘 조상님 영가께 올린 모든 진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요 저희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올린것이오니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빙 둘러 앉아서 조상님의 덕을 칭송하고 생전에 베풀었던 가르침이나 일화를 되새기며 덕을 추모하는 시간을 5-10분간 가짐으로써 조상님이 공양하시는 시간으로 삼음)

5) **보공양진언:** 조상님과 다른 영가께 모두 공양되도록 하는 진언
옴 아아나 삼바바 바아라 훔 (3번)

6) **보회향진언:** 마무리하는 진언
옴 사마라 사마라 미마나 사라마하 자가라바 훔 (3번)

7) **발원:** 원을 세우고 조상님에 대한 추모의 생각을 키움
오늘 저희들이 올린 공양을 받으시고 아미타부처님의 국토인 극락세계에 태어나시고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으로 올바른 삶을 영위하여 깨달음을 얻는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발원하옵니다.
나무아미타불(10념) (큰절 2배후 헌식하고 그릇의 뚜껑을 닫고 위패를 사른다.)

불교식 차례 묻고 답하기 Q&A

가족간 종교 다르면 화합이 우선

Q 종교가 다른 가족이 있을 경우에 불교식 제사를 변용하여 치를 방법이 있는지요.

-현대사회에는 한 가정에 다종교가 공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지낼 것인지의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가족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불교식 제사의식을 변용하여 지내기보다는, 타종교인 가족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여 제사에 참석은 하되 절에 대한 부담은 주지 않는 방식이 좋습니다. 종교 문제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주장이 대립할 경우 불화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제사를 불교식으로 지내는 것보다 가족의 화합을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차 올린 때엔 티백도 무방해
3색 과실·채소는 제철이 중요
법복으로 통일하면 더 좋아요

Q 차를 올릴 때 티백을 사용해도 괜찮은지요.

- 괜찮습니다. 다만 차를 올릴 때는 티백을 빼낸 다음에 올리고, 이때의 차는 녹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 없으면 맑은 물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Q 차를 올릴 때 참석자 전체가 돌아가면서 올려야 하는지요.

- 차는 자유롭게 올려도 무방합니다. 가족을 대표하여 제주가 한 번만 올려도 되고, 전통제사의 개념에서 아헌·종헌에 해당하는 두 사람이 더 올려도 좋고, 참석자 전체가 올려도 좋습니다.

Q 가정 제사를 지낼 때 옷차림은 통일해서 입는 것이 좋은지요.

- 물론 법복 등으로 통일해서 입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요. 그러나 옷차림까지 통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불교 제사를 까다롭고 불편한 것으로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화려하지 않고 단정한 옷차림이면 어떤 것이든 무방합니다.

〈발췌=불교상제례 안내(조계종 포교연구실 편찬, 2011)〉

실상예불선으로...

불자 여러분 이땅의 아픔과 갈등의 치유를 발원하옵니다.

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部雲自體本無實 生死去來亦如然
(생야일편부운기) (사야일편부운멸) (부운자체본무실) (생사거래역여연)

삶이란 한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오. 죽음이란 한조각 구름이 없어짐이오.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는것 죽고 살고 오고감이 모두 그와 같도다.

출처: 서산대사 해탈의 시





영가(신병,재난)에 시달리며 고생하시는 분
사람이면서 사람 행동을 못하시는 분은
실상예불선을 받들어 수지 독송 하시며
부정을 긍정으로 불안한 마음을...

❶ 관찰한다
❷ 영적인 본질을 보는 것
❸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신다.
❹ 계속되면 스님을 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 총무 010-4566-4504

(社)護國佛教曹溪宗 총무원장 유심성도 jogyejong.kr

• 총무원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31번길 16 부산역 앞 관음정사
전화 051)468-5657 | 팩스 051)442-5659 | 모바일홈페이지 http://jogyejong.kr
부설단체 051)442-5658 부산대학병원 시신 및 장기기증모임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 본 디스크의 내용을 무단 복제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실 051)442-5658]

감 독 : 관음 박몬비 | 조감독 : 무념 도갑원, 청곡 강모종 | 디자인,사진촬영 : 보교기획
제 작 : (주)예인미디어 | 녹 음 : 그냥해 STUDIO
기 획 : 유심스님 | 요 령 : 봉덕스님 | 목 탁 : 혜명스님 | 염불선,징 : 유심스님

판매처 : 부산불교전시관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330-152번지
☎ 051)644-8092

명절증후군, 산사 보름달 앞에 물렀거라!

템플스테이로 보내는 추석 황금연휴

추석이 코앞이다. 어린이들에겐 용돈을, 직장인들에겐 휴식을 주는 고마운 명절이지만 수많은 명절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이들에겐 곡절(曲折)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주말과 이어져 5일이라는 황금연휴를 자랑하는 이번 추석으로 인해 명절증후군은 여느 때보다 심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 템플스테이는 어떨까? 무더위가 지나간 산사에는 선선한 가을바람과 또렷한 달빛이 우리를 반긴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스님과 함께 조상에 대한 예를 올리면서 지친 일상과 고단함을 풀어내는 템플스테이를 즐겨보자.

건봉사 오직 쉴 뿐(9/14~16)

오직 쉴 뿐이다. 강원도 고성 건봉사는 이번 추석연휴에 맞춰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푹 쉬었다가 돌아갈 수 있는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템플스테이에서는 기본적인 사찰예절교육과 건봉사에 담긴 이야기, 스님과의 차담이 기본적으로 진행된다.

염주꿰기와 예불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실시되며, 이밖에 다른 프로그램은 없다. 템플스테이 이름에 맞춰 참가자들은 지친 심신을 달래고, 가을정취 가득한 산사서 에너지를 재충전하기만 하면 된다. 미취학아동부터 성인까지 참가대상 폭이 넓다. 또 1박2일 또는 2박3일 원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다.

골굴사 선의 숨결(9/14~18)

선무도의 본찰로 유명한 골굴사는 선무도와 더불어 합동차례 등을 준비했다. 이름하여 '움직이는 선의 숨결'. △달빛명상과 선무도 수련 △송편빚기 △합동차례 △주지스님과의 차담 △전통민속놀이(윷놀이 · 제기차기) △국궁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참가대상 제한은 없으며 1박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내소사 달빛맞이 템플스테이(9/14~16)

전나무 숲길이 산사의 정취를 물씬 더하는 부안 내소사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끼리 어울리며 연휴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연휴기간 동안 함께 송편을 빚어 쪄 먹고, 추석 당일에는 다 같이 차례를 지낸다. 또 각자 연등을 들고 달맞이를 한 뒤 은은한 달빛 아래서 명상과 108배를 체험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대원사 한가위 감사여행(9/16~17)

친척들과의 만남, 차례 등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라면 산청 대원사의 '한가위 감사여행'에 부담 없이 참가해보자. 이 템플스테이는 추석 당일 다음날부터 진행돼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다. 에니어그램 성격검사를 통해 나에게 맞는 대인관계법과 성향을 파악하고, 명상일지를 쓰며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진행된다. 아울러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자신에게 감사편지 쓰기',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산행 등도 이어진다.

선암사 추석맞이 템플스테이(9/14~17)

연휴에 오롯하게 템플스테이만 즐겨보고 싶은 이를 위해 순천 선암사가 3박4일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첫날 사찰안내와 스님과의 차담을 시작으로 4일간 △선체조 및 좌선 △편백숲 트레킹 △소원등 만들기 △나를 찾는 108배 △발우공양 △만다라 치유명상 △108염주 만들기 △합장주 만들기 △행복카드 및 체험후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마곡사 수리수리 한가위(9/16~17)

공주 마곡사는 전문강사들을 초빙해 조금 더 체계적인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불교문화체험은 예불 · 범종체험 · 108배 등 외에 '문화재 기능사와 함께하는 고서 엮기' '공감과 교감명상' 등을 마련했다. 특히 백범김구명상길과 솔바람길을 걸으며 스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다.

아울러 마곡사는 14~18일 동안 모든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해 즐길 수 있는 휴(休) 템플스테이도 별도 운영한다.

영평사 구절초 템플스테이(9/14~15)

구절초는 9개 마디가 있는 풀, 음력 9월 9일에 꺾는 풀이라고 해서 이름 지어진 식물이다. 더없이 푸른 가을하늘과도 잘 어울려 관상용으로써 가치가 있지만 여성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더욱 유명하다. 특유의 따뜻한 기운이 월경불순 · 자궁냉증 · 불임증 등에 탁월하다.

매년 가을 구절초 축제를 여는 세종 영평사는 구절초 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송편을 빚으며 명절 분위기를 살리고, 구절초 차를 마시며 달빛을 감상하는 시간을 보낸다. 구절초 꽃이 개화하는 시기인 만큼 구절초 군락을 거닐면서 심신의 안정에 도움 되는 포행도 진행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6 추석 특별 템플스테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공〉

지역	사찰	프로그램명	일정	연락처
서울	국제선센터	추석맞이 템플스테이	9/14~15	(02)2650-2242
	금선사	가을을 걷는다	9/14~18	(02)395-9955
	진관사	북한산 보름달빛	9/14~15	(02)388-7999
부산	내원정사	추석맞이 데일리	9/3~14	(051)242-0691
	홍법사	소리없는 아우성	9/14~15	(051)508-0345
경기	백련사	다문화가정 추석맞이	9/14~15	(031)585-3853
	법륜사	한가위 템플스테이	9/14~16	010-6766-8700
	봉선사	한가위 템플스테이	9/14~15	(031)527-9969
	신흥사	불교차례 시식체험	9/15	(031)357-2695
	용주사	어울림 템플스테이	9/14~15	(031)235-6886
	중흥사	보름달, 중흥사서 쉬다	9/14~15	(02)355-4488
	화운사	마음달 찾아 화운사로	9/14~16	(031)337-2576
경북	보경사	한가위 소원성취	9/13~15	(054)262-1117
	심원사	별빛 달빛 템플스테이	9/14~18	(054)931-6887
	은해사	명절증후군이 뭐예요	9/17~18	(054)335-3308
	축서사	쉬고 쉬고 또 쉬고	9/14~16	(054)673-9962
경남	문수암	한가위 달빛포행	9/14~18	(055)973-5820
전남	대흥사	디디고 템플스테이	9/14~16	(061)535-5775
	천은사	찻잔 속 달빛	9/14~16	(061)781-4800
	화엄사	달빛아래	9/14~17	(061)782-7600
충북	석종사	달빛 머무는 날에	9/14~15	(043)854-4505
충남	갑사	달빛 용솟음	9/14~18	(041)857-8921
	수덕사	달숲길 그리고 禪	9/14~16	(041)330-7789
강원	낙산사	달빛바다	9/15~16	(033)672-2417
	백담사	한가위 어울림	9/14~16	(033)462-5565
	삼운사	얼~水 좋다 춘천여행	9/1~30	(033)253-6542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호국승병 모집

호국불교승병단에서 아래와 같이 승병을 모집합니다.

저희 대한호국승병단에서는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받들어
무질서한 사회 무기력한 국가기강과 안보의식없이 전쟁만을 일삼고 있는
위정자들과 부패한 기득세력들에게 이나라 대한민국을 맡기고 좌시할수만은
없기에 진정한 호국불교정신으로 국가와민족의 밝힐 횃불을 높이들 승병을 모집합니다.

입단서류

■ 대 상 : 대한민국 범종단 승려(비구.비구니)
■ 서 류 : 수행 이력서, 신분증, 무력(무술단증 사본)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1(2층) 승병사무국 사단법인 대한호국불교승병단
■ 지도법사 : 여산 암도 ■ 단장 : 연 화 ■ 승 병 장 : 상 화 ■ 총무원장 : 청 호
■ 사무국장 : 보명 010-9365-4414
■ 위 주소로 서류접수

승병단 목적 :
護國佛敎사상과 僧兵武藝 정신을 계승하여
佛敎文化의 발전에 기여하고 호국불교승병단
활동과 선대 승병조사님들의 활약을 연구개발하며
나라안정과 승병의 심신수련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대한호국불교승병단

문화재기능인 등록 제 5772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검색 | 보리수불교예술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을 검색하시면
보리수 공방으로 연결되고, 보리수 공방의 작업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함께 즐기는 한가위 기쁨 행복 '두 배'

전국 불교계 산하 복지관 추석 행사 모음


서울노인복지센터가 2014년 진행한 추석 합동차례 모습.

장애인 · 독거어르신 · 지역민 위한 합동차례, 민속놀이, 송편 빚기 등 연휴 기간 추석 나눔 행사 '다채'

"유독 긴 연휴, 외로움 덜 수 있길"

서울 · 경인 지역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9월 12~13일 양일 간 다채로운 한가위 문화행사를 실시한다. 세부내용 및 일정은 △지방 써주기(12~13일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공동차례 지내기(13일 오전 10시) △한가위 전통놀이마당(13일 오후 1시 30분) △먹거리 장터(13일 오전 10시) 등이다. (02)6220-8553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 및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3가지 추석명절 행사를 마련했다. 세부일정은 △한가위 송편 만들기 및 윷놀이(9월 5~9일) △니나노 어울림 한마당(7일 오후 1시 30분~3시) △무의탁 홀몸 어르신과 함께하는 사랑나누기 한마당(9일 오후 2~4시) 등이다.

광진노인복지관 측은 "명절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연계해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외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02)466-6245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석영)은 9월 7일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훈훈한 한가위 정(情) 나누기 행사'를 실시한다. 화계사와 (재)아름다운 동행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나눔 행사는 200명에게 백미지원, 250명에게 대중공양을 지원한다.

특히 이날 바자회 및 놀이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열린다. 놀이마당은 윷점보기, 다트탁구, 팡팡대전, 셔플보드 등이다. (02)989-4214~8

구립서울숲데이케어센터는 9월 13일 오후 1~3시 한가위 맞이 '넉넉한 마음 가득, 한가위 좋을 씨고~' 행사를 개최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한가위 세시 알기 탐색활동 및 OX퀴즈 △한국무용 공연 △송편 나누기 △전통놀이 체험 등이다. (02)464-4477

여주시장애인복지관(관장 김은희)은 9월 13일 오전 10시 한가위 맞이 노래자랑을 실시하고, 한우국밥 무료식사를 제공한다. 노래자랑 상품은 전국한우여주시지부서 300만원 상당 한우고기를, 여주축협서 쌀 10kg 40포를 후원해 마련됐다.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측은 "여주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장애인 가족들의 따뜻한 명절을 함께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래자랑 예선은 9월 2일까지 신청한 자들을 대상으로 6일 진행되며, 20명을 선발한다. (031)883-2100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은 9월 7일 오전 9시~오후 12시 관내 앞마당서 '한가위 한마당'을 개최한다. 행사는 △놀이마당(제기차기 · 투호놀이 · 과녁 맞추기 등) · 체험마당(추석관련 단어 끝말잇기, 덕담 나누기) △먹거리 마당(감자샐러드 샌드위치, 매실차) △윷놀이 마당 등으로 구성된다. 당일 4가지 이상 체험에 참여할 경우 기념품도 제공한다.


송파복지센터 '제5회 한가위한마당 나눔잔치' 모습.

또한 9월 8일 오전 10시~11시 30분 관내 지하 1층 강당서 추석맞이 합동차례를 실시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지역주민 누구나 사전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단, 조상님께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 한복 또는 양복을 착용해야 한다. (02)458-1665

남양주시사회복지관 북부희망케어센터(센터장 류시혁)에선 한가위를 맞이해 9월 8일 관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10만원 상당 생필품 장바구니도 지원할 예정이다.

류시혁 센터장은 "올해 추석 명절 기간은 유독 긴만큼 독거 어르신들과 소외계층 이웃들이 더욱 외로울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북부희망케어센터는 지난 9월 1일 저소득 가구 300가정에 한가위 후원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은행 퇴계원지점과 남양주시 자율방재단원들은 후원 및 봉사활동으로 훈훈함을 더했다. (070)4941-1457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황영선)은 9월 9일 지역민 화합 및 전통체험을 위한 '한가위 나눔한마당'을 개최한다. 관내 및 현광아파트 앞서 오전 10시~오후 10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통놀이체험 · 바자회 등 무료로 참여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전통사찰음식체험 일환으로 열리는 '오색송편 만들기'는 한가위 전통 음식을 함께 만들며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을 이루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032)876-8181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용철)은 9월 7일 오전 10시~오후 1시 복지관 이용 장애인 및 재가장애인, 지연주민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한가위 명절 행사'를 실시한다. 행사는 송편 만들기 및 전통놀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또한 이날 오후 3~6시엔 저소득 재가장애인 70가정을 대상으로 한가위 나눔 선물박스를 전달하기도 한다. (031)396-3108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부설 군포은빛사랑채는 9월 12일 관내서 사랑채 이용 어르신 20여명을 대상으로 송편 빚기 및 전통놀이 활동을 실시한다. (031)687-8701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공상길)은 9월 8일 오전 11시~오후 1시 관내 3층 강당서 '따뜻함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를 실시한다. 이날 행사는 신일어린이집 원아들의 식전 축하공연에 이어 120인 분의 출장부페 점심 식사, 기념품 전달식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념품은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270명에게 전달 가능한 명절 떡 및 잡곡세트로 마련됐다. 지역사회 내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2)831-2755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영학)은 9월 8일 오후 1시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한 '제22회 자비 쌀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 및 한부모 · 조손 가정 등 250명에게 각 쌀 20kg을 전달하는 행사다.

이에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쌀 나눔 행사에 동참하고 싶은 기업 및 개인 후원자는 현금, 현물(쌀 20kg)로 함께할 수 있다"며 후원 동참을 당부했다. 현금후원 574-910001-31804 하나은행. (02)806-1377


지난해 의성군노인복지관서 진행된 윷놀이 한마당 모습.

경상 지역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호걸)은 9월 5~8일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나기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112가구를 대상으로 추석선물 '토종 김'을 방문 전달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는 4명이 2인 1조를 구성해 직접 배달자원봉사자로 나선다. 또한 30만원 상당 토종 김 15박스를 후원했다. (054)855-7801~4

의성군노인복지관(관장 선주)은 9월 22일 오전 10시~오후 3시 의성실내체육관서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한다. 복지관 이용회원 400여명 및 지역주민 100여명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윷놀이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054)833-6006

금오노인복지센터(시설장 전은경)는 9월 12~13일 양일에 걸쳐 추석나눔 행사를 실시한다.

첫날인 12일엔 롯데마트 구미점서 센터 이용 어르신들을 모시고 점심식사 대접 및 선물 증정 시간을 갖는다. 또한 이튿날인 13일엔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연꽃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 전통 혼례 체험 행사와 함께 송편 빚기 체험을 진행한다. (054)458-0287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성웅)은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해 지역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릴레이 나눔 사업 '우리 모두 행복한 한가위'를 실시한다. 이는 상주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한가위 프로그램으로,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한가위 사랑의 밥상나눔' △13일 대구은행과 함께 '사랑의 송편 나눔 행사' 등을 실시한다.

관장 성웅 스님은 "명절에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이웃들을 위해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며 지역 기관 및 단체들의 참여와 후원을 독려했다. (054)532-5688

충청 · 전라 지역

송광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재진)은 9월 12일 오후 6시 10분~8시 30분 관내 2층 송광한사랑방서 북한이탈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합동차례 · 나눔잔치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북한전통무용 '손북춤' 및 노래 '도시처녀 시집와요' 공연에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선물전달식 △합동차례 △사찰음식 저녁만찬 △문화공연 등이 진행된다.

송광사회복지관 측은 "본 복지관 인근은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 58%이상이 생활유지 능력이 부족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이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물품을 전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062)941-8248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육통)은 9월 7~10일 재가어르신 70명을 대상으로 사과 · 배 · 귤 · 김 · 송편 등 명절 후원물품을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참사랑후원회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 형제떡집, 쉐보레 예산대리점 등이 후원에 동참해 직접 재가어르신 가정을 방문, 후원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041)334-2901

대전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은 9월 8일 오후 2~5시 관내 앞마당서 '한가위 맞이 송편 빚기 및 나눔 행사'를 실시한다. 한국야쿠르트 충청지사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사업부 등 자원봉사 100여명이 함께 송편을 빚어 독거어르신 및 복지관 이용어르신 500여명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042)488-6297~8

구례군노인전문요양원은 9월 15일 오후 2시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동차례를 실시한다. 구례군노인전문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해 추석명절에 외출이 불가한 어르신들을 위해 매년 합동차례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왕윤옥 국악 강사의 판소리 및 장구 공연, 구례색소폰동호회의 공연 등이 펼쳐지는 한편, 잔치국수 · 갈비찜 등 식사도 진행된다. (061)781-9494

박아름 기자 · 이승희 수습기자

자성을 찾아가는 근본불교

길 따라 절로 가는 설봉포교원

제1기생

6개월 과정 신입생 모집

화엄경(華嚴經)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반야심경(般若心經)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반 ~ 9시까지

• 입학식 : 9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공부하는 날

• 화 엄 경 반 : 9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반야심경 반 : 9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근본불교(根本佛敎)의 기본사상(基本思想)과 진여실상(眞如實相)을 화엄만다라(華嚴曼荼羅)와 반야(般若)의 지혜바라밀(智慧婆羅蜜)을 실천수행 하므로 즉신성불(卽身成佛)하는 참 불자(佛子), 법우(法友)의 법연(法緣)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필기도구, 신청서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설봉포교원

ㅁ주소 :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131-5번지
010-5660-3653 주지스님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道伴의 향기

클럽 부띠스타(Club Buddistar)

불교로 회통한 4色 하모니 …



“불교음악 대중화, 포교 효과”

조혁준

“인연 따라 불교 입문”

김태근

“불교도 음악도 좋다”

권기덕

“젊은 불자 늘어나는 계기를”

차헌호

#2000년대 후반, 약관(弱冠)을 갓 넘긴 젊은 두 남성이 속초 신흥사 산사음악회 무대에 섰다. 지인이 성악을 전공한 자신들에게 독창 기회를 준 것이다. 한창 산사음악회가 불교문화의 유행으로 번지던 시기, 불심(佛心)은 갖고 있었지만 절에 다니길 어려워했던 청년들은 이때부터 불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위와 비슷한 시기에 아카펠라 그룹 활동을 하던 또 다른 두 청년. 대중가요와 아카펠라를 연습하며 음악적 소양을 키우던 때에 자신들보다 스무 살이나 많은 아저씨가 그룹에 가입했다. 청년들은 자신을 불교신자라고 밝힌 아저씨와 인연을 쌓아나갔다. 덕분에 불교와 가까워졌고, 불교음악도 알게 됐다.

‘불교음악 중흥’ 나선 청년들

앞서 소개한 서로 다른 네 명의 청년들은 2015년 3월 하나로 뭉쳤다. 그들과 인연을 맺은 지인이자 아저씨인 박성규 지휘자(50, 제니스불교문화원장)의 뜻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불교음악의 다양화와 저변확대’였다. 박 지휘자와 청년들은 ‘클럽 부띠스타(Club Buddistar)’를 창단하고, 본격적인 음악활동에 들어갔다. 부띠스타는 불교신자를 의미하는 이태리어 ‘Buddista’와 유명인을 뜻하는 ‘Star’를 합성한 것으로, 스타 불교신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포부를 담았다.

2030 · 남성 · 크로스오버(Crossover)…. 불교와는 조금 멀게만 느껴지는 이 단어들은 클럽 부띠스타를 대표한다. 부띠스타는 제니스불교문화원 소속으로 여성합창단인 제니스합창단과 함께 법음을 전하고 있다. 현재 차헌호(31 · 보리, 카운터테너) · 김태근(30 · 덕현, 퍼커션) · 조혁준(27 · 선우, 바리톤) · 권기덕(26 · 덕비, 테너) 씨 등 총 4명이 멤버로 활동 중이다. 이들의 특징은 모두 솔리스트로 활동하던 음악가라는 점이다. 게다가 그 분야도 겹치지 않을 만큼 각자의 특색이 강했다. 그런 이들이 현재는 하나의 단체로 불교음악 대중화를 위해 담금질하고 있다. 찬불가 · 클래식 · 대중가요 ·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루며 합창단에 편중된 불교음악을 넓히는 데 힘쓰고 있다. 클럽 부띠스타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 네 청년을 하나로 엮는 데는 박성규 지휘자의 원력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그는 오래전 불교와 관련된 TV프로그램에 나온 배경음악을 듣고 생각이 많아졌다.

“2004년이죠. 월정사 단기출가를 주제로 한 MBC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입니다. 당시 다큐에 사용된 배경음악을 젊은이들에게 맡겼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영상과 음악이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죠. 한편으로는 ‘과연 불교계가 이런 배경음악을 만든다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음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박 지휘자는 클럽 부띠스타 창단 이전부터 각 멤버들과 7~8년간 인연을 이어오며 점차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갔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창단 얘기를 꺼냈을 때 멤버 모두 흔쾌히 받아들였다.

성악을 전공한 막내 권 씨는 “어린 나이에 산사음악회에 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느낄 수 있었다. 아무래도 아들 같은 청년이 노래하는 모습이 좋게 보인 것 같다”며 “불교도 좋고 음악도 좋아 부띠스타 멤버 참여 권유를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국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서 퍼커션 실력자로 이름 난 김 씨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편은 아니었지만 어릴 때부터 무대에 서는 걸 좋아했다”면서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다 보니 인연에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중창단 보다 ‘클럽’ 성격 짙어

클럽 부띠스타는 흔히 ‘4인 전문 남성중창단’으로 불리지만 그 성격은 이름처럼 ‘클럽(Club)’

인프라 부족 느낀 불교음악 저변

박성규 지휘자, 다큐 보며 실감
멤버별로 오랜 기간 인연 쌓아
2015년 3월 ‘클럽 부띠스타’ 창립

2030 불자음악인 하나로 合心

우연한 기회에 불교 접한 청년들
불교음악 다양화 위해 뜻 모아
장르 구분 없이 크로스오버 접목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도치료법 1:1 또는 5인이하 실전교육을 상시합니다.
※ 기도 치료는 유사 사이비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 의학입니다.
기도치료법 230P 값 19,300원
기도치료학 550P 값 24,300원
두권 구입 값 43,600원
•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 기도치료는 유사 사이비 대체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에 의한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병치료법입니다.
•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 많은 불자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건강증진은 물론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전문기도치료사만 된다면 노후 걱정은 덜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70대 중반입니다만 가끔 한달에 천만원이상의 수입을 볼때도 있습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011-557-2773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 협(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찬불가 크로스오버 서원



클럽 부띠스타 단체사진. 왼쪽 세 번째(뒷줄)가 박성규 지휘자다. 그 앞은 前 음악감독 이다슬 씨.



2015년 8월 열린 제니스합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서 공연하는 부띠스타.

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멤버들이 합창으로 대변되는 클래식서 벗어나 장르를 한정짓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크로스오버를 즐기기 때문이다. 각각 성악과 대중가요, 퍼커션을 하던 멤버들이 뭉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지휘자는 부띠스타의 강점으로 개인역량과 앙상블을 꼽았다.

"중창단 대신 클럽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그만큼 장르를 넘나들며 음악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솔로부터 듀엣, 트리오 등 가변적으로 공연이 가능하고, 때에 따라 객원멤버를 넣어 곡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전통'에 중점을 두면 국악단체와, '청춘'에 중점을 두면 힙합그룹과 협연하는 등 얼마든지 변화무쌍한 시도가 이뤄집니다."

박 지휘자는 이 같은 부띠스타의 특성을 살리면서 불교적 가치를 곡에 넣기 위해 대중불교음악 PBM(Popular Buddhism Music) 개척에 열중이다. 기독교 찬송가로 사용되는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인기비결을 '대중성'으로 진단한 그는 "불교적이면서도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곡을 만드는 것이 1순위"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1년 반 남짓 불교계서 활동한 부띠스타는 다양한 무대경험을 쌓았다. 청주 관음사 산사음악회, 서울강남성모병원 제16회 루푸스의 날 음악회, 부산불교합창제 등에 참여해 실력을 뽐내며 수많은 청중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현재는 내년 정식 앨범 발매와 창단연주회를 단기적 목표로 꾸준히 연습하고 있다. 부띠스타는 이에 앞서 경험삼아 비매용 가앨범을 녹음해둔 상태다.

앨범에는 '부처님의 향기' '부처님오신날' 등 찬불가를 비롯해 팝송인 'My way', 대중가요 '행복을 주는 사람' 등 총 9곡이 수록돼 있다. 파트가 다른 4명의 목소리가 지루하지 않고 어울리는 게 독특하다. 성악을 전공한 조 씨와 권 씨의 묵직한 음성 위에 카운터테너 차 씨의 여성스러운 고음이 얹히고, 퍼커션 김 씨의 꾸밈없는 목소리가 퍽 조화롭다. 세계적으로 공전의 히트를 쳤던 플라시도 도밍고 · 존 덴버의 'Perhaps love'나 우리나라 이동원 · 박인수의 '향수'처럼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크로스오버곡들이어서 신선함도 담겨있다.

맏형인 차 씨는 "부띠스타의 가장 큰 목표는 불교음악의 부흥이다. 하지만 우선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앨범을 제작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게 순서"라며 "이를 계기로 불교계에 젊은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조 씨는 "많은 불자님들이 부띠스타를 알게 되고, 우리의 노래가 불교계에 퍼진다면 포교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항상 대중과 호흡하는 자세로 공연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유명가수만 찾는 불교계 현실

특색 사라진 산사음악회
불자음악인 위한 무대 적어
신행 · 음악활동 병행하지만
불교가 찾아줄 때 큰 발전

클럽 부띠스타는…

전통 찬불가와 대중 찬불가, 클래식과 현대음악의 조화를 통해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며 불교문화의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4인 남성 전문음악인모임이다. 이태리어로 불교신자를 의미하는 Buddista와 유명인을 뜻하는 'star'의 합성어다.

멤버 각각 성악 · 실용음악 · 아카펠라 · 퍼커션 등 다양한 분야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클래식과 합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음악의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한다. 2015년 3월 창단 이후 각종 산사음악회를 비롯해 합창제 등 다양한 무대서 경험을 쌓고 있다. 현재 'Club Buddistar'라는 비매용 가앨범을 제작했으며, 내년 상반기 정규 앨범 발매와 창단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불교계 관심이 곧 動力

부띠스타 멤버들의 바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불교계 관심이 절실하다. 이는 박성규 지휘자를 비롯한 멤버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불교계 산사음악회는 대부분 유명가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불자들의 아쉬움을 사는 일이 많다. 산사음악회이기 때문에 불교적이어야 하건만 청중을 모으는 데만 집중해 생긴 결과다.

"불교에서 일하기 때문에 불교에 도움 되는 일을 하려 합니다. 불교계에 흔치 않은 특성을 가진 부띠스타이기에 시장성이 높지만 불자들이 보듬어주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게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불심과 실력을 겸비한 음악가들이 알려질 때 불교음악 저변확대는 자연스레 따라올 겁니다."

박 지휘자는 인터뷰 도중 불교계 관심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으론 그만큼 불교계가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멤버들 역시 일반적인 직업을 갖는 것보다 음악인으로서 살기 위해 음악활동에 매진하고 있어 많은 활동무대를 필요로 한다. 그나마 제니스합창단 후원회가 도움을 주곤 있지만 음반제작과 홍보 등을 감안하면 조직적인 후원 없이는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부띠스타는 현재 신행활동과 동시에 그룹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편을 강구하고 있다. 매달 서울 양재동 제니스 스튜디오서 열리는 불자들을 위한 토크콘서트에 패널로 참가해 공연을 선보이는 한편, 사찰 정기법회 소규모 찬불가 음성공양도 알아보고 있다. 이처럼 어렵게 한걸음씩 내딛는 이들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뚜렷하기만 하다.

"우리만 잘한다고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불교음악이 더욱 다양해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띠스타 말고도 많은 팀이 생겨야 하기 때문이죠. 여성팀이나 아카펠라팀 같이 특색 있는 음악그룹들이 계속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불교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고, 젊은 불자들과 중장년층 모두를 위한 찬불가가 꾸준히 나오게 될 겁니다."

젊은 불자이자 음악을 하는 이들에게 불교계는 분명 녹록지 않은 환경이다. 하지만 환경 탓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청춘이기에 고맙고 아름답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부띠스타가 불교음악의 새 지평을 여는 선구자가 되길 기대해본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전법일기

"귀 있는 자 들어보라"

"따르릉~." 정적을 흔드는 전화벨소리에 나른한 오후의 단잠에서 깨어났다. "내일모레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법회가 있는데, 그때 법고(法鼓)를 울려줄 수 있으신가요?"

법고를 야외에서 울리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진 않지만 이런 현장에 법고가 빠질 수 없다는 생각에 해보기로 결정했다.

길 위로 옮겨진 법고를 법고대에 올리니 어른 키만큼이나 솟은 모양이 참 늠름하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 위치한 위안부 동상 옆에 나란히 놓으니 가냘픈 소녀상 머리 위를 법고 그늘이 살짝 덮는다. 아는지 모르는지 따가운 햇살을 온몸으로 막아주겠다는 법고의 따뜻한 마음 아닐까?



그림 · 박구원

법고를 울리기 전 개인적으로 항상 하는 의식(?)이 있다. 일명 '문성의식(聞性儀式)'이다. 바로 법고 울리는 곳의 뒷면을 쓰다듬거나 물끄러미 바라보는 의식이다. 그것은 앞쪽 면만으로는 소리가 날 수 없는 근본을 사유하는 것이고, 거침없고 힘차게 법고를 울리는 동안에도 근본을 잊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법고를 야외로 옮겨 설치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다. 이 법회를 하는 목적과 어떤 마음으로 법연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통감했다. 그제야 위안부 할머님들의 가슴속 응어리 맺힌 마음들이 북 표면에 덕지덕지 묻어 있는 게 느껴졌다. 얼마나 가슴에 깊이 담아 숨기고 싶었을까? 하지만 여성으로서의 상처와 수치심을 뒤로한 채, 지난날 그들의 어리석었던 행동과 만행에 대한 참회와 반성을 촉구하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외침은 얼마나 당당한가? 벌써 1200여회가 넘도록 우리들은 그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였고 얼마나 더 큰 소리로 외쳐야 그들의 가슴속까지 울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진정 할머님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는 있을까? 그 아픔과 고통을 어렵게 세상에 드러냈지만, 졸속으로 맺은 합의로 인해 이제는 그만하자고 위로 아닌 강요를 하는 이 형국에 또 얼마나 상처가 더해졌을까?

행사 시작과 동시에 천지를 울리는 기세로 법고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10여분을 북에 붙은 마음을 풀어내려 있는 힘껏 울렸다. 법고 소리는 구슬펐지만 땅속 깊숙한 곳에 묻혀있는 작은 평화를 일깨우기에는 충분히 힘찼다. 하지만 울리면 울릴수록 더욱 진하게 우러나오는 슬픔의 덩어리는 그칠 줄을 몰랐다. 그 짧은 시간에 깊이 묻어둔 응어리들을 풀어내겠다는 생각은 사실 오만이었다. 일본 본토까지 닿을 기세였던 북소리는 이내 도시의 소음, 자동차 경적소리와 기자들의 사진기 셔터소리, 군중들의 울부짖는 소리들로 다시 묻혀버렸다.

그래도 북의 앞면은 소리를 멈췄지만 뒷면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법고를 혼자서만 울린다고 생각했던 착각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그렇다. 법고시연은 끝났지만 인사말을 하셨던 스님들께서, 노래를 했던 친구들, 발언 및 성명서를 낭독하며 모인 이들, 그리고 이 할머님들의 외침을 듣고 마음을 모아준 우리 모두의 소리들이 법고를 울리고 있었던 것이다.

길게 느껴졌던 몇 시간의 행사가 아픔이 아닌 희망으로 채워질 수 있었던 건 우리들의 작은 기억과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의 울림이 꽁꽁 얼어붙은 가슴들을 녹여 함께 공명할 때까지 우리들은 그치지 않을 것이고 많은 이들의 관심은 계속될 것이다. 절망의 슬픔을 흔들어 깨우는 동시에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함께 귀 기울여 들어보자. 꽃다운 소녀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소리를. 둥~둥~둥~.



고금 스님(조계종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염불로 정토에 태어나길 원하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지관(止觀)의 설명을 마치고 본문에서는 근기가 약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방편을 제시하고 있다.

"중생이 처음으로 이 대승법을 배워서 바른 믿음을 구하고자 하나 그 마음이 겁이 많고 나약한 이는 이 사바세계에 머무는 동안 스스로 부처님을 항상 만나서 친히 공양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체념하며, 신심을 성취하기도 어렵다고 두려워하여 공부에 대한 뜻을 접으려는 사람은 여래에게는 훌륭한 방편이 있어, 신심을 거두어 보호해 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로지 부처님을 생각하는 인연으로 타방의 부처님 국토에 태어나서 항상 부처님을 뵙고 영원히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경에 설하되 '만약 사람이 오로지 서방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해서 닦은 선근으로 그 세계를 향해 태어나기를 원하면 곧 태어난다' 고 하였다. 항상 부처님을 뵙기 때문에 마침내 물러나는 일이 없고, 만약 저 부처님의 진여법신을 보아서 부지런히 닦아 익히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에 태어나 바른 선정에 머물게 된다."

본문의 이 대목은 이른바 육자(六字) 수행법 곧 '나무아미타불' 염불 수행을 권장하고 있는 대목이다. 염불을 해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바른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특별한 방편을 설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초심자가 수도의 의욕이 감퇴될 때 부처님이 베푼 특별한 방편을 이용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다고 한 것은 하근기(下根機) 중생을 위해서 베푼 설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의지가 약한 중생들도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혀 부처님의 자비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것을 아울러 나타내고 있다.

정토사상으로 분류되는 염불수행도 대승불교의 한 전통으로 자리매김 해 왔는데 기신론에서는 보시에서 지관에 이르기까지 오행(五行)의 수행 밖에 가장 손쉽고 수월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왕생을 주제로 하는 경론에 정토삼부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다. 〈아미타경〉과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이 그것이고, 논(論)으로는 세친(世親)이 지은 〈왕생론(往生論)〉이 있다. 이들 경론에는 오직 정토에 왕생하여 아미타불을 친견하는 방법들을 설하고 있다. 정토종에서는 이들 경론을 삼경일론(三經一論)이라 하여 소의 경론으로 삼아 매우 중요시 여긴다.

이 가운데 〈왕생론〉은 원래 이름이 〈무량수경우파제사(無量壽經優波提舍)〉인데 우파제사(Upadesa)라는 말은 12부로 분류되는 경전 분류의 하나로 논의(論議)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경전을 주석하여 그 뜻을 잘 파악해 놓은 것도 우파제사라 부르기도 하였다. 원위(元魏) 때 보리류지(菩提流支)가 번역한 〈왕생론〉은 일명 〈정토론(淨土論)〉이라고도 하는데 정토사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논서이다. 이 논에는 염불 수행을 오념문(五念門)과 오과문(五果門)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하근기 중생들을 위한 설법
자비는 평등하다는 것 밝혀

오념문이란 정토에 왕생하여 아미타불을 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배(禮拜), 찬탄(讚歎), 작원(作願), 관찰(觀察), 회향(廻向)의 다섯 가지 방법으로 수행을 하여 근문(近門), 대회중문(大會衆門), 택문(宅門), 옥문(屋門), 원림유희지문(園林遊戱地門)의 오과문의 다섯 가지 공덕을 차례로 성취하여 깨달음을 이룬다고 한다.

이 〈왕생론〉에 대하여 중국 남북조시대의 담란(曇鸞, 476~542)이 지은 〈왕생론주〉가 유명하다. 담란은 정토사상의 교리를 집대성하여 정토종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다. 처음에는 삼론학(三論學)에 심취하여 〈중론(中論)〉, 〈백론(百論)〉, 〈십이문론(十二門論)〉을 연구하여 강론을 하다가 〈대지도론(大智度論)〉까지 통달하여 사론종(四論宗)의 종조로 추앙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의 공적은 정토종 확립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또 정토 안에서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이치를 응용 염불수행으로 극락에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태어남이 업이 태어나는 무생의 생이다" 하여 극락에 태어나는 것이 법신(法身)이 태어나는 것이라 하였다.

보시 실천에 깨달음이 담겼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㊱ 걸인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

恭敬乞者品第七(공경걸자품제7)

菩薩思惟。因彼乞者得證菩提。我當以此菩提ø 與一切眾生。以報恩故。我今因施眾生得無比樂。因此樂故得成菩提。如此菩提我當施與乞者。我今因施乞者得於快樂勝解脫樂。因中施樂猶尙如是。況無上菩提。我當捨之施諸乞者。如是乞者其恩甚重無以可報。如此乞者乃能與我作大樂因。若以財寶不足報恩。當以所得無上菩提而施與之。以我福故。願使乞者於將來世亦如我今成大施主。(보살사유。인피걸자득증보리。아당이차보리회여일체중생。이보은고。아금인시중생득무비락。인차락고득성보리。여차보리아당시여걸자。아금인시걸자득어쾌락승해탈락。인중시락유상여시。황무상보리。아당사지시제걸자。여시걸자기은심중무이가보。여차걸자내능여아작대락인。약이재보부족보은。당이소득무상보리이시여지。이아복고。원사걸자어장래세역여아금성대시주。)

번역

구걸하는 이를 공경해야 하는 것에 대한 품 제 7

보살이 생각하기를, "저 구걸하는 이로 인해서 보리(菩提)를 증득하였으니, 내가 마땅히 이 보리(菩提)를 회향하여 일체중생에게 베풀리니,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중생들에게 베푸는 보시를 인연하여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얻었고, 이 즐거움이 인연되어 보리를 이루었으니 이와 같이 보리를 내가 응당 구걸하는 이에게 베풀어 주리라. 내가 지금 구걸하는 이에게 보시하는 인연으로 쾌락과 수승한 해탈의 즐거움을 얻는구나. 보시의 즐거운 인연이 오히려 이와 같거늘, 하물며 무상보리(無上菩提)이겠는가. 내가 마땅히 희사하여 모든 구걸하는 이에게 보시하리니, 이처럼 구걸하는 이의 그 은혜는 심히 무거워 보답할 수 없구나. 이와 같이 구걸하는 이는 나에게 큰 즐거움을 지을 수 있는 인연을 준 것이다. 만약 재물과 보배로 은혜에 보답하기 부족하면, 응당 얻은바 무상보리(無上菩提)로써 베풀어 주리니, 나의 복이기 때문이다. 발원하건대 구걸하는 이로 하여금 장래 세상에서도 역시 내가 지금처럼 큰 시주를 이룰 수 있게 하소서." 합니다.

해설

〈대장부론〉 7품은 왜 구걸하는 이를 공경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 품이다.

고래로부터 모든 수행자의 궁극은 무상보리(無上菩提)을 얻는 것이었다. 보살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한 이가 바로 구걸하는 이라고 믿는다. 보시는 한량없는 즐거움의 원천이며, 그 원천에서 길어낸 생수가 무상보리(無上菩提)라고 믿는다. 누구든지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이후, 수많은 수행자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갔다. 그러나 뉘가 알았으랴. 그 깨달음이 보시의 실천 속에 감춰져 있었음을! 그러니 탐욕에 물든 이가 어찌 베푸는 즐거움을 통한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랴! 보살은 구걸하는 이에게 보시한 인연으로 해탈의 즐거움을 얻었으며, 또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보살은 이제 깨달음을 얻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게 해준 구걸하는 이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나눠주기에 이른다. 보살의 발원은 내세에서도 구걸하는 이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긍정적인 착각으로

눈높이라는 말이 있다. 눈높이만큼 보인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때마다 눈높이에 따라 가치기준도, 평가점수도 달라지게 되어있다. 정답과 오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게 우리네 삶의 모호성이다. 그러다보니 착각을 정답으로 정당성을 인정 받으려한다.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은 틀린 것이고 내가 선택하면 다른 사람도 박수치며 따라와야 한다.

사랑도, 행복도, 자유도, 품격과 인격마저도 내 눈높이 대로 선택하고 가위질하며 끌어당김과 알아차림을 정당화 한다.

나에게 잘하면 좋은 사람이요, 나에게 못하면 나쁜 사람이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끌어당길 사람이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 잊혀져야 할 사람이다. 나와 색깔이 같으면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이요 나와 무게가 다르면 경계해 멀리해야 할 사람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울타리 치고 선(線) 긋기를 즐긴다. 입을 열면 절반이 거짓말이요 몸을 움직이면 9할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행동이다. 이익을 위해서는 부모도 부부도 형제자매도 원수지간으로 갈라설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보다는 너이어야 하고 너보다는 내가 우선이다. 윤리 · 도덕도 남의 일에는 잣대를 들이밀며 손가락질 하고 내가 저지른 행위는 로맨스로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 스포츠 경기에서처럼 남의 실수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이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던 시대는 막내린지 오래다. 논을 산 사촌 집에는 혹시나 해서 사람들이 웃음 띤 얼굴로 몰려가지만 논을 판 사촌 집에는 역시나 해서 찡그린 얼굴로 돌아서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마치 물방울 싸움처럼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기는 세태이다.

파워게임이 일상 언어가 되어 있지만 힘의 논리는 현대의 움직이는 신(神)이 되어있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는 힘의 논리를 경험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바이블의 구절처럼 살아있다.

그러나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되어있다. 인생을 부정적인 착각으로 어두운 눈높이로 살피면 그림자만 보이겠지만 긍정적인 착각으로 밝고 맑은 눈높이로 살피면 세상은 온통 금싸라기 같은 빛줄기로 충만해 있는 것이다.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마음이 열리면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도 만날 수 있고 어둠도 만날 수 있다. 다만 긍정적인 착각으로 사느냐, 부정적인 착각으로 사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불러들인다.

자신감은 건강과 희망을 키우지만 좌절감은 상처와 온갖 병을 몰고 오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가르치고 있듯 나라는 생각(我相), 너라는 생각(人相), 우리라는 생각(衆生相), 오래 누리려는 생각(壽者相)에서 자유로워져야 참 수행자라 할 터이다.

어차피 정해진 모범 답안이 없는 게 우리네 삶이라면 부정적인 착각보다는 긍정적인 착각으로 어둠보다는 빛을 바라보며 살 일이다.

긍정은 힘을 키우지만 부정은 한숨 쉬는 버릇을 키우기 때문이다. 흔히 노년에 겪게 되는 우울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노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이 상관없이 인생의 황금기는 오늘
균형 · 조화롭게 살아감이 승리자의 삶

내가 필요로 하는 자, 나를 필요로 하는 자가 사라지게 되면 우울증은 찾아 들게 되어 있다.

그럴 경우 의사나 간호사보다도 처방된 약 보다도 우울 증세를 쉽게 치유 할 수 있는 방법은 환자의 마음을 설레고 들뜨게 하는 연애비법이 묘약인 것이다. 서양 의학계에서는 이미 인정되고 있는 우울증 치료 방법이다.

거듭 밝히지만 인생살이에는 정답란이 비어 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착각보다는 긍정적인 착각으로 가슴 활짝 펴고 당당하게 살 일이다.

내 나이가 얼마이던 내 인생의 황금기는 현재의 오늘이며 나는 어느 곳에 머물던 세상의 중심에 선 오늘의 주인공이 되어 넉넉하게 살 일이다. 유행가 가사처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인데' 를 콧노래로 흥얼거리며 여유 있게 살 일이다.

다만, 입장 바꿔 상대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 비틀거리는 말과 행동은 사라져야할 터이다. 늙음을 곱게 받아들이는 것도 수행이다. 넘침과 부족함 없이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승리자의 삶임을 잊지 말 일이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0,000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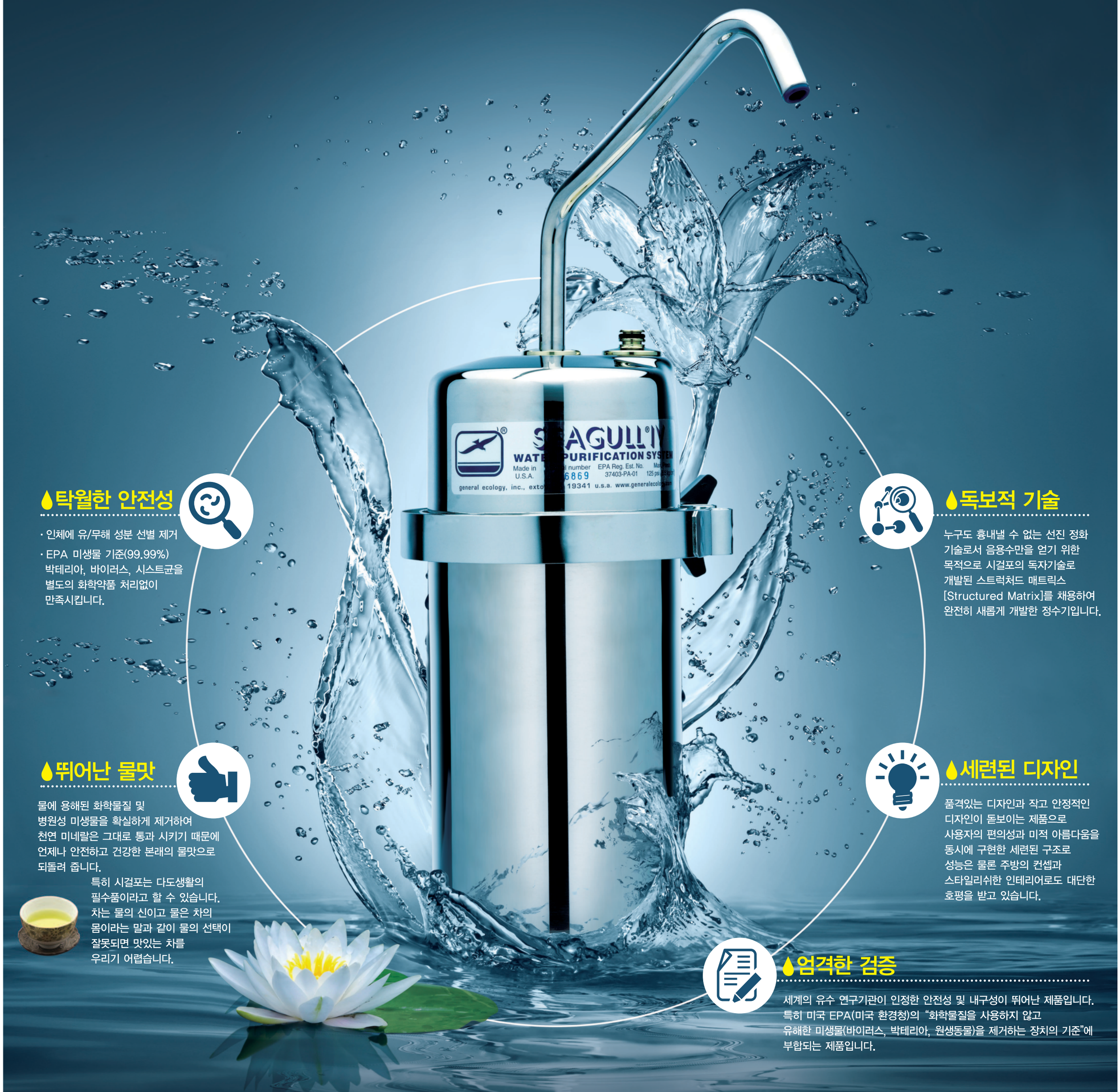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사찰의 감로수를 시걸포에서도 느끼세요!

시걸포는 인공적으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아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천연수로서
대자연에서 정화된 암반수와 같은 건강한 감로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탁월한 안전성

- 인체에 유/무해 성분 선별 제거
- EPA 미생물 기준(99.99%) 박테리아, 바이러스, 시스트균을 별도의 화학약품 처리없이 만족시킵니다.

독보적 기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선진 정화 기술로서 음용수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걸포의 독자기술로 개발된 스트럭처드 매트릭스 [Structured Matrix]를 채용하여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정수기입니다.

뛰어난 물맛

물에 용해된 화학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을 확실하게 제거하여 천연 미네랄은 그대로 통과 시키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한 본래의 물맛으로 되돌려 줍니다.

특히 시걸포는 다도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는 물의 신이고 물은 차의 몸이라는 말과 같이 물의 선택이 잘못되면 맛있는 차를 우리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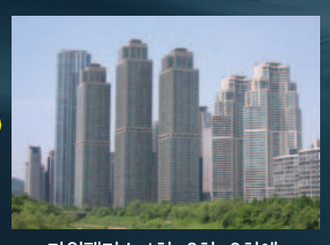
세련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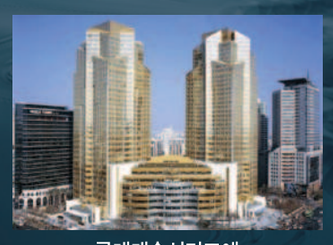
품격있는 디자인과 작고 안정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사용자의 편의성과 미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구현한 세련된 구조로 성능은 물론 주방의 컨셉과 스타일리쉬한 인테리어로도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엄격한 검증

세계의 유수 연구기관이 인정한 안전성 및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특히 미국 EPA(미국 환경청)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해한 미생물(바이러스, 박테리아, 원생동물)을 제거하는 장치의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입니다.

대한민국과 세계 67개국에서 사용되는 시걸포 정수기


타워팰리스 1차, 2차, 3차에 설치된 시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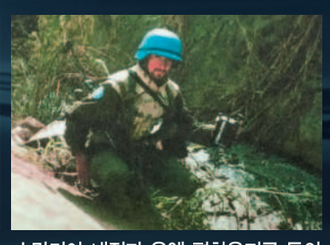

롯데캐슬시리즈에 설치된 시걸포


건대 시니어타운 외 다수에 설치된 시걸포


일류 요리사 및 특급 호텔을 매료시킨 시걸포



보잉사, 대한항공, 일본항공 등 수 많은 항공사가 선택한 시걸포


소말리아 내전과 유엔 평화유지군 등의 구호 활동에 사용된 시걸포

판매원 현대불교현불샵 | 제조원 General Ecology, Inc. USA | 한국총판 (주)이앤알인터내셔널

제 품 문 의 상담 후 카다록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080-866-1080

번뇌 가득한 삶에 경종 울리길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㊹ 대자유의 길에 대한 소고



그림 · 최주현

색욕의 문제, 즉 성의 문제에 대하여는 꽤 오래 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요? 출가자와 재가자는 기(機), 즉 조건이 다르다는 이야기부터 했었지요? 부처님의 설법은 대기설(對機說), 즉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주어진 방편이니까, 출가자란 조건과 재가자란 매우 다른 조건에 대하여 똑같이 말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가 스님들은 재가자에게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지원받으면서 모든 힘을 수행에 쏟는 존재이기에 그분들에게는 성적인 에너지를 철저히 통제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됩니다.

반면 재가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일상생활을 영위해야하는 재가자가 성적인 것을 죄악시하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부부생활을 하면서 성행위를 죄악으로 여기게 되면 어찌될까요? 부부간에 사랑을 나눌 때마다 "죄 한번 짓겠습니다" 참회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이상한 이야기지요?

이런 이야기까지 전에 했던 것 같네요. 물론 나칠계님은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셔서 저에게 매우 보람을 느끼게 하는 분일 것 같습니다마는…. 하하. 그러니까 성(性)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불교의 근본 태도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지요. 그리고 출가자라는 조건에 주어진 가르침이 마치 불교 자체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에 더 보태어, 앞에서 이야기한 남녀평등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한 성관념을 좀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랜 동안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전제로 한 성 담론이 일반화되어 있었거든요. 성애(性愛)와 성욕(性慾)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그랬지요. 이젠 이런 차등적인 관점을 벗어나야 합니다. 불교가 앞장서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을 평등하게 다루면서, 성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고, 성적인 사랑이 정신적인 사랑과 서로 보완적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기만족만을 꾀하는 성적인 사랑,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집착을 바탕으로 한 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신적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고, 소유하려는 집착이 아니라 상대방을 성숙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사랑이 되도록 하는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모색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고리는 역시 성에 대한 부정적 관념의 극복입니다. 성을 죄악시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에 한번 다룬 주제니까 이만큼 이야기하고 서유기 줄거리로 가 볼까요? 물론 서유기에서는 삼쾌선생이 말하는 것과 같은 진보적인(!) 성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저 색욕에 불타는 전갈 요괴와 수행의 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자하는 현장법사의 대립구도가 있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법사의 양기를 빼앗아 자기의 음기를 북돋우려는 전갈요괴와 "어찌 분바른 해골에게 나의 귀한 양기(眞陽)를 뺏길 것인가?"하는 도교수행자의 대립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요괴는 온갖 방법으로 현장법사 유혹하여 운우지정을 누리고자 하는데 현장법사는 정말 일편단심으로 불법의 길에 서서 스님의 계행을 지키는 대목! 서유기의 멋있는 표현을 직접 볼까요?

이런 묘사는 현장법사의 굳은 불심을 묘사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도교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괴가 말한다. "꽃 아래서 죽으면 죽더라도 풍류귀신이 된다는 말도 못 들으셨어요?"

당나라 스님은 말한다. "나의 진양(眞陽)은 지극한 보배요. 어찌 그대와 같은 분바른 해골에게 넘겨주겠소?"

아무튼, 불교적이건 도교적이건, 현장법사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서유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법사의 가장 뛰어난 점은 바로 이 흔들림 없는 마음입니다. 불법 수행의 바탕이 되는 다섯 가지 힘(五力) 가운데 현장법사는 바로 믿음(信)을 상징하는 존재이거든요. 이렇게 흔들림 없는 현장법사와 요괴가 부딪쳤으니 결과가 어찌될지 뻔 하지요? 결국 심통이 난 요괴가 현장법사를 내쳐서 감금하고, 손오공 삼총사는 현장법사 구하려 요괴와 싸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요괴가 또 정말 비보통 요괴네요. 허긴 서유기에 나오는 요괴치고 보통 요괴가 있겠어요? 손오공을 힘들게 하는 요괴라면 다 비보통이지요. 그저 그런 요괴라면 이야기 거리가 안 되니 서유기에 등장하지도 않았을 거구요. 아무튼

성에 지배받지 않는 마음
참된 본성 깨닫는 진일보
이분법적 사고조차 버려야

이 요괴가 어떤 점에서 비보통이냐 하면, 처음 손오공과 드잡이질을 할 때 갑자기 도마독장(倒馬毒椿)이라는 무기로 손오공 머리를 찌르는데, 이 한 방에 손오공이 견디지 못하고 달아날 정도입니다. 손오공 머리가 보통 머리예요? 원래 돌원숭이인데다, 온갖 수행을 해서 쇳덩이보다 더 단단해졌다 하고, 태상노군의 단로(丹爐)에서도 버텨냈던 슈퍼 돌머리지요.

그런데 그런 손오공이 "아이구 아파라! 못 견디겠다!"하고 달아날 정도로 아프게 하는 이상한 무기입니다. 무기 이름 자체가 '말도 거꾸러뜨리는 독을 가진 몽둥이'라는 뜻인데, 정말 엄청난 몽둥이네요. 다음 싸움에서는 저팔계가 주둥이를 얻어맞고는 줄행랑을 칠 수 밖에 없었지요. 그냥 팍 죽을 정도의 부상을 주는 것은 아닌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통증을 주는 몽둥이, 이상하게 피할 수도 없이 얻어맞게 되는 몽둥이네요. 그러니 싸움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힘든 상황에서 역시 구원투수, 관세음보살님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 말씀이 좀 이상해요. 웬만하면 직접 해결해주실 만도 한데 당신께서도 힘들다네요. 아니 부처님도 그 요괴의 이상한 독에 쏘여서 고생을 하셨다네요. 원래 그 요괴는 전갈의 요정인데 수행을 해서 큰 힘을 지니게 되었다나요? 인도 뇌음사 부처님 회상에서 경을 듣기도 했대요. 그때 부처님께서 가볍게 밀치셨는데 그 꼬리로 부처님 엄지손가락을 쏘는 바람에 부처님도 아픔을 참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금강역사에게 잡으라 하였는데 도망쳐서 여기 숨어있는, 정말 비보통 요괴라네요. 그러면서 이 천상의 묘일성관(昴日星官)만이 이 요괴를 쉽게 잡을 수 있다고 귀띔! 그래서 당장 손오공이 천상세계 올라가서 묘일성관을 청해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네요. 이 묘일성관의 본신(本身)은 바로 엄청난 비보통 수탉입니다. 손오공이 요괴를 유인해 오고, 그 앞에 묘일성관 수탉이 나타나 "꼬끼요!" 한번 울어제끼니 요괴의 정체가 드러나고, 전혀 맥을 못 춥니다. 흐물흐물~. 그리고 까무룩! 죽어버립니다. 그 힘들었던 비보통 요괴가 허무하게 죽어 나자빠집니다. 저팔계가 분에 못 이겨 그 시체를 난도질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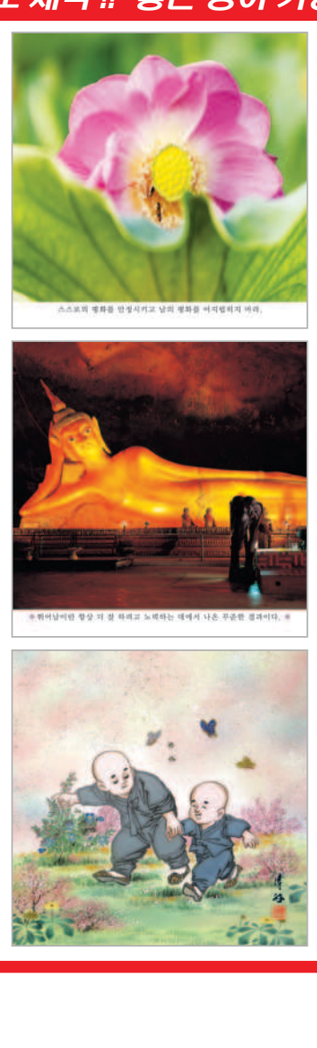
이 줄거리에는 몇 가지 숨겨진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욕정으로 현장법사를 타락시키려 한 요괴의 정체를 전갈로 설정한 것이 매우 비유적이지요. 수행과정에서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비유한 것이겠지요. 보통 독을 가진 동물을 든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뱀과 전갈입니다. 그래도 뱀은 독 없는 뱀도 있지만 전갈은 없는 것 같군요. 그리고 그 독이 말도 거꾸러뜨린다 하여, 색욕의 무서움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병매라는 소설의 첫머리에는 이런 말도 있지요. 예쁜 여자들이 허리 아래 보이지 않는 칼을 차고, 어리석은 사내들의 목을 벤다고…. 여색의 관문을 쉽게 넘는 남자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남성중심사회의 표현입니다마는, 남녀를 불문하고 성욕의 관문을 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손오공의 돌 머리도 그 독에 쏘이면 견디지 못한다고 한 것이 바로 그 어려움을 말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너무 싱겁다구요? 그거 닭과 전갈이 천적관계라는 것을 슬쩍 이용하여 너무 쉽게 마무리를 한 것 아니냐구요? 우리나라에는 전갈이 없어 보통 지네와 닭이 천적이라 하지만 같은 이야기 아니냐구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구도가 있습니다. 독한 전갈 요정과 수탉의 신, 이 구도 속에서 전갈 요정을 무찌르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또 그 밑바닥에는 간단치 않은 설정이 또 깔려 있지요. 수탉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념은 좀 특별하다는 것이지요. 수탉은 어떤 존재인가요? 새벽을 깨뜨리는 "꼬끼요!"로 어둠을 몰아내고 밝음을 이 세계에 들여오는 존재입니다. 같은 닭이라고 해도 암탉은 제외입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 아닙니까? 새벽에 "꼬끼요!"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수탉이지요. 음기가 가득하던 세계에 양기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지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삿된 기운을 깨뜨리고 바름을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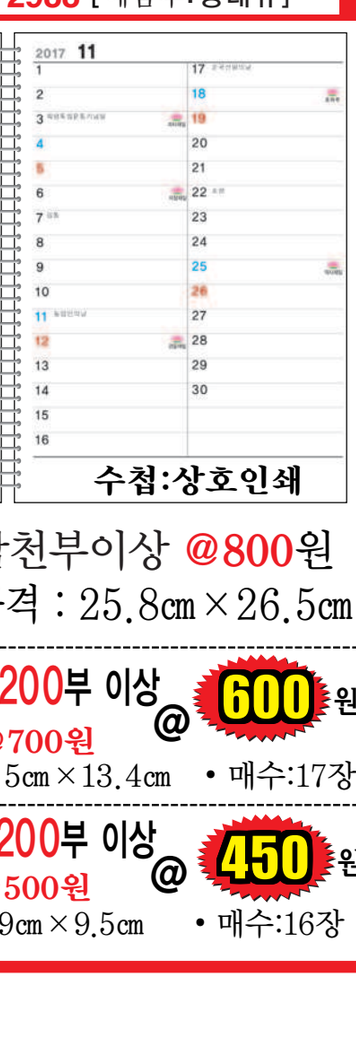
자, 지금 전갈요괴는 삿된 존재이며, 암컷으로서, 음에 해당하며, 현장법사의 참된 양기를 갈취하여 자신의 음기를 북돋우려는 존재입니다. 전문적(?) 용어로 말하자면 채양보음(採陽補陰) 하려는 삿된 존재지요. 그런 존재를 물리치는 수탉의 신, 그것이 바로 묘일성관입니다. 새벽의 어둠을 깨뜨리는 "꼬끼요!"로 삿된 음욕의 관문을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존재지요. 그렇게 서유기를 읽으면 이 대목이 매우 싱싱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제 현장법사는 색욕의 관문을 벗어나게 된 것이지요. 참된 본성을 회복하는데 한걸음 더 가까이 간 것이지요. 서유기에서도 이 대목의 마무리를 현장법사가 세속의 번뇌와 색욕을 극복하고 선심(禪心)을 깨우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수행의 힘든 여정에 밝은 빛을 들여놓는 "꼬끼요!"가 울린 것이지요.

아! 우리의 번뇌 가득한 고달픈 삶에는 언제 새벽을 여는 "꼬끼요!"가 들려올까요? 그 날이 올 때까지 현장법사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진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나칠계님, 무언가 불만이 있으신 듯? 음…. 처음에는 성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하더니, 마무리는 삿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구요? 우와, 모처럼 날카로운 질문! 잘 물으셨습니다. 자칫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성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온전한 대자유, 즉 해탈에 이르기 위해선 결국 그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 또한 틀림없거든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유로워져야 그것을 옳게 쓸 수도 있으니까요. 성에 지배받지 않고 그것을 옳게 쓰려면 벗어남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옳게 쓴다고 말하는 이상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지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슬그머니…. 결코 나칠계님의 질문에 답을 못해서는 아닙니다요!

since1973
2017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FAX.(051)508-0101 H.P 010-3554-2988
◆농협 : 356-0976-5320-43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12절:상호인쇄
미니:상호인쇄
수첩:상호인쇄

12절(벽걸이형)달력 100부 이상 @ 1000원
• 삼천부이상 @800원
• 규격 : 25.8cm×26.5cm

국6절(벽걸이형)달력 100부 이상 @ 1,300원
• 정가 2,000원 / • 규격:30.5cm×31cm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00원
• 100부 @700원
• 규격 : 9.5cm×13.4cm • 매수:17장

탁상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800원
• 정가 2,000원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원
• 100부 @500원
• 규격 : 8.9cm×9.5cm • 매수:16장

禪·敎·諱… 대승불교 傳法 역사를 만나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
中 선종사찰 순례 현장


중국 최초 사찰 백마사 박물관에서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과 순례단 스님들이 중국 측 스님의 설명을 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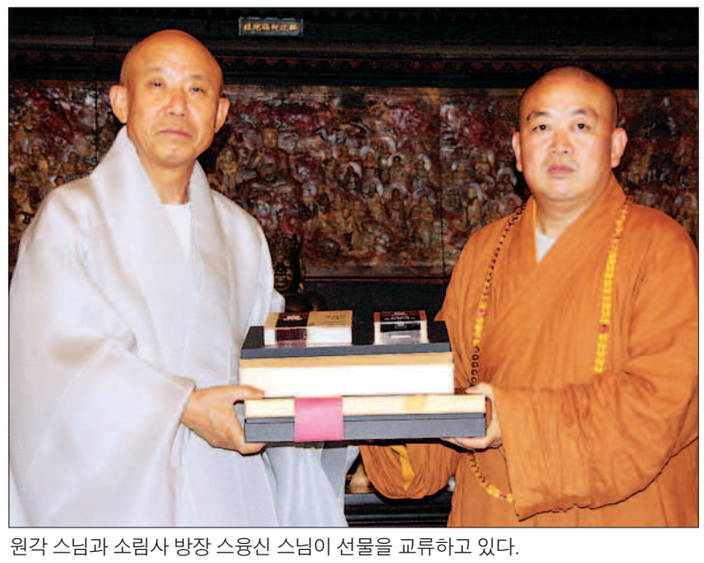

구법승 현장 스님의 동상. 뒤로 대안탑이 보인다.

8월 24~30일 中 서안 등서
증명 법사로 원각 스님 참여

소림사·법문사·대자은사 등
선종·교종·역경 사찰들 순례
禪·敎, 아시아 불교사 '한눈에'

불학원 견학·신행현장 참관
현대화된 교육시설 등 감탄
중국불교는 현재 '屈起 중'
韓불교 변화 계기 마련해야


원각 스님과 순례단이 법문사의 교육환경을 둘러보고 있다.


원각 스님과 소림사 방장 스융신 스님이 선물을 교류하고 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동아시아로 전래되면서 전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경전의 유입으로 한역(漢譯) 역경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문자와 언어로 전해졌다. 달마 스님이 동쪽으로 오면서 전해진 부처님의 마음법은 '선(禪)'으로써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근간이 됐다. 그래서 〈선가귀감〉에는 이런 말이 전해진다.

"세존께서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하신 것은 선(禪)의 가르침이 되고, 한평생 말씀하신 것은 교(敎)의 가르침이 됐다. 그러므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선종부터 교종까지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 연수 프로그램 '중국 선종사찰 순례'는 선종뿐만 아니라 교종과 동아시아 역경의 시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특히 한국불교 대표 선지식 중 한 명인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이 증명법사로 참여해 순례의 의미를 더했다.

24일 법문사에서 입재식을 가진 순례단은 25일부터 본격적인 순례 일정을 시작했다. 서안과 낙양에서는 주로 교종과 역경 사업과 관련된 유서 깊은 사찰들을 만났다.

초당사에서는 구마라집 스님의 역경의 의지를 목도했다. 구마라집 스님은 대승불교 반야부 경전을 한역해 전함으로써 동아시아 불교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현장 스님의 사리가 봉안된 흥교사와 구법의 원력과 회향처인 대자은사에서는 옛 구법승들의 위법망구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숭산 소림사에서는 초조암, 이조암 그리고 달마 스님이 양무제를 피해 몸을 숨기고 9년간 면벽수행을 했던 면벽굴을 찾았다. 동아시아 선의 역사가 시작점을 바로 앞에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순례단 입승 소임을 맡았던 효원 스님(광명사 주지)은 "소림사는 초조암과 이조암, 면벽굴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시작된 선은 동아시아로 널리 퍼졌다"면서 "전등 법맥을 친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개가 무량하다. 더욱 수행 정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밝혔다.

중국불교 변화 그리고 교류

법문사, 흥교사, 대자은사 등에서는 변화하는 중국불교를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법문사는 중국불교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를 목도했다. 2007년 개원한 법문사 불학원은 현대식 시설을 갖췄으며, 현재 비구 학인 60명, 비구니 학인 80명이 수학하고 있다. 순례단이 찾았던 당시에는 방학 중이었지만, 일부 학인 스님들은 인터넷 강의 등을 들으며 공부에 여념이 없었다.

법문사 시설 설명을 위해 나온 주지 현공 스님은 "유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며, 사회 구제를 위한 봉사와 실천행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자은사에서는 중국에서 가지는 불교의 위상을 만났다. 사찰 인근 국제문화사업광장 천장에 설치된 파노라마에서는 중국 불교 문화재와 관련한 영상이 계속 흘러나오기도 했다. 또한 주요 도심 사찰에서는 가족 단위 신도들과 20~30대 연인들이 사찰에서 불공을 드리며, 산책과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가이드를 맡았던 장순옥 씨는 "중국불교는 개혁 개방이후 복원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불교와는 상대적으로 젊은 스님들이 많다. 신도들 역시 젊은 거사들 위주"라고 설명했다.

"불교가 사회 갈등 치유해"

순례단의 순례기간 참배한 사찰에서는 모두 방장과 주지 스님들이 직접 나와 환대했다. 소림사 방장 스융신 스님들을 비롯한 각 사찰 방장들은 스님들과 차담을 나누고 선물을 교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중국 측 스님들과의 환담에서 불교가 가진 선의 정신이 사회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단초라고 강조했다.

원각 스님은 "현대사회는 많은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와 너의 입장을 내려놓고, 중간마저도 버리고, 대화해야 지혜가 나온다"면서 "세계인들이 조화·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게 불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처님의 법을 이은 한국과 중국은 일불제자의 형제 국가"라며 "양변을 여의고 본래 마음으로 살아가면 자유롭고 활발발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불교가 부처님 법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참가 스님들 "견문 넓히는 계기"

선과 교의 중심된 사찰을 참배한 순례단은 그곳에서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시원을 만났다. 그 안에는 서역에서 불법을 배우기 위해 길을 떠난 구법승의 원력이 있었고, 전해진 경전을 번역했던 역경승들의 치열함이 있었다. 또한 선객들이 품은 서슬파란 취모검(吹毛劍)도 만날 수 있었다.

순례단 스님들도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시원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자신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불교방송 진행자인 성전 스님(남해 염불암 주지)은 "강원 선배인 교육부장 스님의 권유로 순례에 참여했다"면서 "선종의 맥을 찾아 떠난 여행이었다. 신도들과도 함께 순례를 오고 싶다. 스스로 수행과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돈성 스님(대구 보광원 총무)은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전래된 선종 사상을 배우고 싶었다"면서 "옛 스님들의 구법처를 따라 갈 수 있던 것도 의미가 깊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정진하겠다는 원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동학사 화엄승가대학원(화엄학림)의 강사 명선 스님과 학인 스님 등 6명은 함께 순례에 동참했다.

학인으로 수학 중인 원소 스님은 "학림 대중 스님들과 졸업여행을 계획했는데, 단순한 여행이 아닌 좀 더 의미있는 순례를 생각했다. 그래서 종단 연수를 참여했다"면서 "사중에서 책으로만 배우던 것들을 현장에서 순례하며 만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명선 스님은 "학림장 일초 스님과 주지 정영 스님의 후원과 배려로 종단 순례 연수에 참가할 수 있었다"면서 "방장 스님과 함께 사찰을 참배하고 교류하는 모든 현장이 교육에 일환이다. 진정한 순례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중국 서안 일원= 신성민 기자

중국 사찰 기행 연재는 1115호부터 격주로 연재됩니다.

"한국불교, 시대의 요구를 살펴야 한다"

Interview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풍족한 현대인, 정신은 피폐
사회 갈등, 본질 못 봐 발생
양변 여의고 본래면목 찾아야

"이번 순례는 날씨가 많이 도와줬고, 중국 스님들이 환대를 잘해줘서 여법하게 순례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상, 원측, 혜초 등 옛 스님들의 위법망구 정신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스님은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오직 구법을 위해 길을 올랐고, 대중에게 회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한 반성을 통해 한국불교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 중국 선종사찰 순례의 증명법사로 참석한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사진〉은 순례의 의미를 이 같이 평가했다. 또한 한국불교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전망도 내렸다.

원각 스님은 순례를 통해 중국불교의 가능성을 봤다고 했다. 법문사의 젊은 학인 스님과 도심 사찰에서 만날 수 있던 20~30대 불자들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는 스님도 신도도 모두 노령화 추세입니다. 부처님 사상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도 근본정신은 달라지지 않죠. 한국불교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은 불교 사상이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찰에서 유치원을 운영한다던가 젊은 사람들이 사찰에 올 수 있는 신행·교육프로그램, 단기출가 등을 개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해인사도 청년들을 위한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스님은 현대사회의 적지 않는 문제와 갈등을 불교 사상을 기반해 풀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순례를 거쳐 스님이 설한 법문과 중국 스님들과의 환담에서 내내 힘줘 말한 부분이다. 결국, 무엇이든 본질, 본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오는 데 누가 시비를 걸어서 밤새 싸움을 했습니다.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 자기와 싸운 게 빗자루였습니다. 중생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이념과 사상에 따라 시비하고 싸웁니다. 본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구름과 안개가 끼어도 태양이 없습니까? 모두 우리가 업에 가려 본래 마음자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현대사회가 선(禪)의 정신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본래 마음자리를 찾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의 정신을 현대 사회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을 벌고 성공해도 상대적 만족감은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근본은 선의 바탕에서 이뤄집니다. 선은 양변을 여의고, 중간도 내려놓고 내 본래 마음, 자성청정심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롭고 활발해지며, 지혜도 나옵니다. 이 같은 선의 정신을 한국불교가 전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이번 순례에 참석한 대중들은 지금 시대에 불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부응하게 하는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신성민 기자

"대중과 함께 하는 불교로 나아가야"

Interview

조계종 교육부장 진각 스님



현대화된 교육시설 감탄
생활불교의 중요성 느껴

"중국대사관을 통해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했지만, 행정 미숙으로 선물을 부족하게 가지고 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대중 스님들의 협조로 순례를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었습니다."

조계종 교육부장 진각 스님〈사진〉은 순례 진행의 미숙한 점을 진솔하게 참회하며 말문을 열었다.

종단 교육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진각 스님이 가장 눈여겨 본 것은 중국불교의 교육환경이다. 특히 순례 첫날 견학했던 법문사 불학원이 인상 깊었다고 했다.

"중국불교의 도제교육은 막연한 교리 공부만 시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니 그렇지 않더군요. 법문사 불학원은 교육 시설부터 학인까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봉사와 실천행까지도 함께 교육하는 것을 보고 '중국불교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보며 '우리는 명산대찰과 조사 은덕으로만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반성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순례 참여 대중들이 한국불교 발전과 불법 홍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를 순례를 통해 알아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연수의 목적은 옛 스님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여기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번 순례를 통해 선방 수좌 스님들은 구법승들의 위법망구 정신을, 포교를 하는 스님들은 민중과 함께하는 불교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원은 종단 스님들을 위해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고착된 개념 부수고 본질을 보다

禪과 현대미술
⑰ 조셉 코수스 (Joseph Kosuth)



코수스의 작품 'Nothing의 사전적 정의(1966)'는 선사상 관련 서적에 읽던 작가가 '무'의 개념에 충격을 받고 만든 것이다. 대상의 접근에 대한 그의 사유를 알 수 있다.



작품 '3 Neonlicht(1966)'는 세 가지 색채의 동일 문장을 보여줌으로써 현상의 시각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들에서 새로운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자연환경이나 사물들에게 이름을 붙여 부르고 있다. 소통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고착화된 이름으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이는 다시 관념적 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조셉 코수스(Joseph Kosuth, 1945~, 미국)는 이러한 고착화된 이름들과 관념화된 개념들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양한 인식의 확산을 모색하였다. 누군가에 의해 명명된 이름은 그 사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며 단지 그 사물을 인지하기 위한 하나의 기호에 불과한 것이다.

예를 들면 밖에 보이는 나무를 보고 나무라고 누군가가 이름을 붙여줘 나무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원래의 나무는 그 나무라는 이름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진짜 나무인가?

조셉 코수스는 이러한 언어의 구조와 선사상에 대한 깊은 성찰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가며 관념적인 생각과 관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선사들이 선문답을 하며 제시되는 대상들이 질문과 무슨 관계성이 있는가에 깊은 생각에 이른 코수스는 대상의 이름에 그것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선사에게 깨달음을 물으니 선사는 '뜰 앞의 잣나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잣나무는 깨달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만약 선사의 앞에 작은 꽃이 있었으면 선사는 뜰 앞의 꽃이라고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인지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대상이나 이름에 집착하여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언어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조셉 코수스의 대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3개의 의자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의자를 찍은 사진이다. 두 번째는 실제 앉을 수 있는 의자이다. 세 번째는 의자의 사전적 의미를 글로 제시한 것이다. 처음 이 작품이 제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혼돈에 빠지게 된다. 자신들이 일상에서 무심하게 사용하던 의자가 진정한 의자였는지 생각하게 되었으며 나아가서 언어의 구조에 의한 생각이 지배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의자가 진정한 의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진다.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는 사용하는 언어나 문자, 기호, 색채에 따라서 다양하게 대상을 인지하고 활용하는 일상의 삶의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모두 허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오히려 자신이 경험하거나 인지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는 자기 최면에 걸려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부정하고 모순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필자 역시 오랜 시간 자신이 축적한 지적능력을 자신만의 최고의 가치인 듯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자부심을 가진 적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지금은 나의 지적인 부분을 모두 없애는 시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되니 학생들의 생각이 깊이 있게 느껴지기 시작하였으며 왜 그러한 생각과 표현을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지 않으니 타인의 마음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Nothing의 사전적 정의〉는 1966년 작품으로 그의 작품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당시 선사상에 심취하여 많은 관련 서적들을 탐독하던 그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단어는 'Nothing', 바로 '무(無)'였다. 현실은 무수히 많은 것들이 현상적으로 존재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그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Nothing'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사전적 의미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무에 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인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차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본질과는 관계가 없거나 작은 표상일 뿐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표상에 그 어떠한 이름이나, 기호, 색채를 부여하여도 본래의 의미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대상을 인지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그 대상의 이름과 사전적, 철학적, 종교적 의미를 통섭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본질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대상은 본래 그 자체의 모습과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 이를 보는 사람들에 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포장되거나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통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선사상 심취… 관련 서적 탐독
'無' 개념을 작품 세계에 적용
언어 구조 넘어선 근원을 추구

'개념예술'의 선두주자 자리매김
"예술가, 개념을 만들어야" 주장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쉬르(1857~1913)의 언어구조학에서도 언어는 언어외적인 요소와 관계성이 적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즉, 언어는 대상의 기호이며, 소통을 위한 방법이지 대상의 본질을 밝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대상의 본질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조주 선사께서 스승이신 남전선사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은 것은 그 언어의 구조나 이해가 아닌 마음의 소통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코수스 역시 이러한 선사들의 문답처럼 일상의 삶의 과정에서 마음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없다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것의 상대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원래 없는 것은 없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하여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3 Neonlicht, 1966〉는 존재의 또 다른 현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NEON ELECTRICAL LIGHT ENGLISH GLASS LETTERS BLUE EIGHT'를 네온처럼 글씨에 색채를 넣어 세 가지 색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동일한 문장에 색채(GREEN, BLUE, RED)에 대한 글씨만 다르게 하여 그 글씨에 맞는 색채의 네온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색채이다. 앞의 작품에서는 언어, 문자 등을 통하여 본래의 본질을 찾아가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작품에서는 색채를 통하여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동일한 문장에 색채를 다르게 함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현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상은 시시각각 변화한다. 현상이 변화한다고 하여 본래의 본질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현상을 통하여 본질을 찾아간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현상이 없이 단순한 현상만 있다면 오히려 관념적 사고가 깊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다.

조셉 코수스는 예술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며 '개념미술'의 선구자가 되었다. 예술의 영역에 선사상 개념들을 도입하여 화두를 던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제 예술은 대상을 재현하거나 왜곡·변형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본래자리를 찾아가는 방법으로서의 예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예술을 하는 행위는 수행자가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과정과 흡사하다 할 수 있다. 화두를 스스로 연마하여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통하여 그는 본질(깨달음)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부의 비평가들은 그의 이러한 예술에 대하여 예술이 너무 철학적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을 통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새로운 현상을 보여주며 다양한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여 왔다면 코수스는 "예술가는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의 영역에서 표현되고 있는 다양한 사상이나 철학, 문화, 종교 등이 이제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나서는 시대가 되었음을 그는 대담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셉 코수스는 물거품처럼 일어나는 현상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물거품은 파도에 의하여 일어나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하지만 또다시 파도에 의하여 생겨난다. 이처럼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동안에 무엇이 변화하는가'에 그는 많은 관심을 가지며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물거품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에 다다를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물거품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본질에 대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물거품은 생각에 변화를 주는 자극제인 것이다. 그것에 집착하여 허상에 잡히지만 않는다면 물거품은 훌륭한 스승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코수스가 추구하는 개념미술은 이처럼 현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현상을 현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예술행위는 자신의 존재가치와 현재의 삶을 일치시켜 나아가는 과정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가 제시하는 표현방식은 기존의 예술적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현상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것을 코수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수행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방식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기존의 가치들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새로운 개념으로 수행방식을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물거품이 스스로를 단련시켜주는 것처럼 그 현상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작품 속에서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士禍 피해 낙향 후 은둔하며 시 교유

〈사화〉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㉙ 하서 김인후

호남시단을 이끌었던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1510~1560)는 수많은 승려들의 시축 말미에 제발(題跋)을 썼던 인물이다. 그의 자는 후지(厚之)이며 하서(河西), 담재(湛齋)라는 호를 썼다.

어린 시절 김안국(金安國)에게 소학을 배웠고, 1531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한 후 이황(李滉)과 깊이 교유하였다고 한다. 1540년 별시문과에 급제,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에 임용된 그는 이듬해 호당에 들어가 독서에 전념할 수 있는 사가독서(賜暇讀書)의 기회를 얻었다. 그가 세자를 보필하고 가르치는 홍문관박사 겸 세자시강원설서, 홍문관부수찬으로 임명된 것은 1543년이다. 하지만 그가 살았던 시기는 정치적으로 혼란하여 을사사화(乙巳士禍) 이후 모든 관직을 사양하고 장성으로 돌아가 성리학 연구와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다.

대립과 알력으로 얼룩진 정치적 정쟁은 문정왕후의 형제인 윤원로(尹元老), 윤원형(尹元衡)이 경원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 꾀하자 세자의 외숙인 윤임과의 대립에서 시작되었다. 결국 대윤(윤임 일파)과 소윤(윤원형 일파)으로 양분된 조정은 조신과 사림으로 갈라지고 외척을 중심으로 궁, 정내부의 갈등이 촉발된 것이다.

이후 정미사화가 일어나 수많은 대윤파가 희생되었다. 실로 정미사화는 문정왕후의 수렴정치와 이기 등의 정치적 농간을 비난하는 양재역(良才驛) 벽서사건(1547)에서 촉발된 것이지만 소윤파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대윤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인데 이로 인해 희생된 사람만도 100여 명이 넘었다. 윤원형의 세도정치와 수렴청정의 폐단은 극에 달했다. 명종의 친정(親政)이후에도 그 폐단은 수그러들지 않았으며, 신진사류가 정치에 복귀한 것은 문정왕후가 죽고 윤원형이 정치적으로 몰락한 1565년 이후이다. 당시 노수신, 유희춘, 백인걸 등이 요직에 복권되고 재야의 신진사류들이 등용되면서 정계는 사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결국 사화를 피해 고향에 내려가 은둔했던 유학자들은 학문연구와 인재양성에 전념했으니 이런 시대적 상황은 성리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특히 사림의 학문적 도장이었던 서원(書院)은 정론(政論)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토론장이었다. 후세에 서원은 당론의 진원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붕당정치의 온상이 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원의 발달은 정치, 문화적 특성뿐 아니라 정치 투쟁의 새로운 양상을 만든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 처했던 김인후가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장성으로 낙향,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은 기묘사화 때 억울하게 죽은 선비들의 신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일과 을사사화 때문일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그는 그가 처한 시절이 난세였음을 예견이라도 한 것일까. 후일 그가 필암서원에 배향된 인물 중 유일한 호남인이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필암서원(筆巖書院)은 김인후의 높은 절의(節義)와 학문을 숭앙하기 위해 그의 문인들이 1590년(선조 23)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기산리에 세운 서원이다. '필암'이라는 이름은 김인후 고향인 맥동에 붓처럼 예리한 형상의 바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제공=장성군 문화관광과

한편 김인후는 기대승(奇大升)과 이항(李恒) 사이에서 논란되었던 태극음양설(太極陰陽說)에 대해 기대승의 입장에 동조하였다. 즉 "태극음양에 이기(理氣)가 혼합되어있기에 태극은 음양을 떠나 존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도(道)와 기(器)의 구분이 분명하므로 태극과 음양이 일물(一物)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기대승은 이항의 태극음양일물설(太極陰陽一物說)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뿐 아니라 김인후의 수양론은 성경(誠敬)을 주된 목표로 삼았으니 이는 후일 기대승의 주경설(主敬說)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특히 시문에 밝았던 그는 당풍적(唐風的) 표현에 능해 대상에 대한 관조와 함축적 표현으로 흥취를 돋워 말의 여운을 살려내는 특징을 지녔다. 그의 도학적 기질과 맑고 빼어난 인품은 그의 시에 내재된 품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에 밝았던 승려들은 자신의 시축에 김인후의 제발(題跋)이 실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던 듯하다. 그가 교유했던 어떤 운수승(雲水僧)에게 준 〈운수 승려에게 주다(贈雲水僧)〉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름도 비고 물 또한 텅 빈 것이니(雲虛水亦虛)
물성 또한 이와 같아라(物性亦如此)
하나는 형기에 구속되고(一爲形氣拘)
하나는 사욕에 묶임이라(一爲私欲累)
흘러가 돌아올 줄을 모르는 건(去去不知返)

성균관 합격 후 이황과 인연
정미사화로 고향에 내려가
학문연구와 인재양성 주력
석존·공사상 담은 시 지어

망연히 탐함에서 본래 시작됨이라(茫然昧本始)
마음의 굳셈이 절로 이와 같으니(方寸固自如)
밝고 지긋한 이치 포용함이라(昭昭涵至理)
좋은 실마리가 발현되니(善端有發見)
미루어 그 그침을 아네(推之止其止)
용신을 따라 변화하니(從龍神變化)
가도 때에 그침이 없네(逝者無時已)
행함에 사심이 없기에(動之以無私)
잠시 구름과 물을 바라보누나(試看雲與水)

김인후의 노련한 시어 배치가 돋보이는 시다. 바로 〈증운수승(贈雲水僧)〉에서 주제어로 운수(雲水)를 뽑아내 구름과 물, 그리고 물과 구름처럼 한곳에 머물지 않는 승려의 의미를 부각하였다. 더구나 구름과 물은 실체가 없는 것, 그러므로 빈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불교의 공도리(空道理)를 표현한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흘러가 돌아올 줄을 모르는 건/ 망연히 탐함에서 본래 시작됨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좋은 실마리가 발현되니/ 미루어 그 그침을 아네"라고 한 것이니 행함에 사심이 없기에 차별이나 분별없이 운수승을 볼 수 있다는 그의 포용력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바로 그가 도학에 밝은 인물로 보는 연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가 쓴 여러 편의 시 중에 수안 스님이 찾아 와 시축에 글을 써달라는 요청이 있어 쓴 시의 내력도 재미를 더 한다. 당시 그를 찾아 온 수안 스님의 시축에는 자신의 벗인 귤정, 영천, 송강, 몽와, 이계진의 시가 있었다는데 이런 내력은 이 시의 모두(冒頭)에 "승려 수안이 신길원, 희남의 편지를 가지고 찾아왔다. 시축 중에는 귤정, 영천, 송강, 몽와, 이 상사 계진의 시가 있었는데 송강의 시 두 편 중에 하나는 스스로에게 말한 것이고 하나는 승려에게 말한 것이다. 이에 본받아 쓰다.(山人守安 以愼吉遠喜男之書來謁 軸中有橘亭 靈川 松江 夢窩及李上舍季眞之詩 松江二詩 一自道 一道僧 仍效之)"라고 한 것에서 확인된다. 수안 스님에게 준 시는 다음과 같다.

병들어 산촌에 옮겨 온 후론 사람을 보지 않았더니(病落山村不見人)
무슨 방법으로 고승에게 나아가 서로 친하리(何方自足就相親)
송강과 귤정 노인, 영천의 시구(松江橘老靈川句)
시권을 읊조리니 이보다 진기한 건 없으리(把卷行吟莫此珍)

그가 병들어 산촌으로 옮겨 왔다고 한 것은 아마 장성으로 낙향하여 은둔했던 정황을 말하는 듯하다. 그러므로 고승인 수안 스님과 무슨 방법으로 친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그러므로 고승이 가져온 시축 속에 수록된 벗들의 시를 읊조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진솔한 일상이라고 강조하였다. 소박한 삶을 즐긴 그는 특별히 차를 즐긴 선비였다. 이는 〈석헌선생의 시운을 차운하여 신도승려에게 주다(次石軒先生韻 贈信道上人)〉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산중에 적막 하나를 실어 와서(山中輸一寂)
골짜기 밖 온갖 번잡함을 물리쳤네(谷外謝千譁)
순경봉 아래(脣慶靑峯下)
강천의 푸른 물가에서(剛泉綠水涯)
바람을 타던 열자를 사모하고(御風閒慕列)
해를 쫓던 과보를 가엾게 여기네(逐日苦憐 \父)
나 또한 세상의 근심을 씻고자 하니(世慮吾要滌)
몇 잔 차를 나누어 주게나(分渠數椀茶)

적(寂)은 고요한 마음 상태를 말한다. 과보(\父)는 해와 경주를 하다가 지치고 목이 말라 죽었다는 신화 속의 인물이다. 바로 신도 스님이 난마처럼 얽힌 세상일에 분주한 속인을 가엾게 여긴 수행자라는 말이다. 신도 스님이 산중에서 적막을 실어와 "골짜기 밖 온갖 번잡함을 물리쳤다"는 것이니 유불(儒佛) 교유의 상보(相補)란 이처럼 또렷했다. 따라서 그는 속진을 씻기 위해 걸명(乞茗)한 것이니 차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근심을 풀어주는 매개물임이 분명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석존 탄신일에 짓다(釋奠日作)〉에서 "고인의 실덕을 존경하여(古人尊實德)/ 지금에도 중한 이름, 널리 퍼졌네(今世重浮名)/ 공손히 제육과 술을 받으니(拜受膰兼酒)/ 오래도록 성령의 은혜를 입었네(春秋荷聖靈)"라고 하였다. 석가의 탄신일에 제육과 술을 받고 석가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 점에서 그의 불교에 대한 시각을 어느 정도 점칠 수 있다. 또 그의 다른 시 〈석견승려에게 주다(贈釋堅上人)〉에는 당시 승려들이 그의 글을 구하고자 했던 정황을 "자주 속진에 사는 나를 찾아 와(頻尋塵裏榻)/ 시축에 글을 요구했네(要就軸中篇)"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공무에 분주했던 상황에서도 시를 지어 주어야하는 현실을 "내 행차 다급히 한양으로 향하고(洛ª x吾行急)/ 그대 자취 호수 그림자에 편향되었지(湖陰爾跡偏)/ 허겁지겁 지은 시 팔구로(囪囪詩八句)/ 다른 곳에 있던 날을 서로 기억하리(相憶在他年)"라고 한 대목에서 드러난다. 아무튼 그가 많은 승려들의 시축에 남긴 시문은 오래도록 세상에 회자될 것이다. 이뿐 아니라 그와 승려들의 교유에 중요한 매개는 시와 차였다는 사실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천문, 지리, 율력(律曆), 의학에도 정통했던 그는 정철(鄭澈), 변성온(卞成溫), 기효간(奇孝諫), 조희문(趙希文), 오건(吳健) 같은 제자들을 길렀다. 저서로는 〈하서집〉,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 〈서명사천도(西銘事天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 1644 - 9108

승려가 된 무에타이 선수, 래퍼로 '전향'

음악잡지 '노이지', 캐나다 힙합가수 노노 라이언 인터뷰

무에타이 선수가 되기 위해 태국행을 택한 후 어느 날 출가한 스님이 현재는 '힙합 래퍼'로 활동 중이다. 바로 캐나다 래퍼 겸 스포큰 워드(Spoken Word; 가수가 노래 대신 얘기를 들려주는 음악 장르) 아티스트 노노 라이언(Nono Ryan)이다.

노노 라이언은 8월 23일 음악잡지 '노이지(Noisey)'와 인터뷰서 무에타이 선수 시절과 승려로서 태국 생활, 음악에 입문하게 된 계기 등을 밝혔다.

8년 전 노노는 무에타이 선수가 되겠단 꿈을 안고 태국으로 이주, 프로선수로서 삶을 포기했다.

"당시 한 번도 고향을 벗어나본 적 없는 순수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었고, 불현듯 '최고의 싸움꾼'이 돼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노노는 어느 날 갑자기 운동선수로서 삶에 큰 회의를 느끼게 된다. 상대선수를 심하게 다치게 한 자신을 보며 '원치 않는 길'이란 사실을 직시했고, 이후 자연스레 불교에 입문하게 됐다.

"무에타이 선수로서 삶이 건강하지 못하단 생각을 했습니다. 제 코치는 저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고, 어느 날은 내 상대로 초보선수를 올려 보내 그 선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날 사건은 여전히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전 누구를 해치기 위해 무에타이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던 것뿐입니다."

노노는 태국 티앙마이 근처 정글 속 사원서 출가했다. 선수생활을 그만둔 후 캐나다로 돌아와 방황한 시기도 있었지만, '진짜 인연'이었을까. 그는 다시 태국으로 돌아갔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 친분 있던 코치들이 모두 사고로 죽었단 소식을 들었어요. 그 후 뎅기열을 심하게 앓아 숙소에서 누워만 있었는데, 지인이 사원서 가져다 준 약을 먹고 곧바로 쾌차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사원에 방문했고 깊은 고민을 통해 불교에 귀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에타이 선수 되려 '태국행'
상대선수 큰 부상에 회의 느껴
방황 중 한 사원 방문하게 돼
불교 귀의했지만 음악으로 행복
수행이 영감 얻는 데 도움

그렇다면 승려로서 그의 삶은 어땠을까? 무에타이 선수 출신이란 꼬리표가 무색할 만큼 그는 수행에 매진했다.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로 된 227개 계율을 공부하고, 외부와 단절한 채 염불 기도에 임했다.



캐나다 래퍼 노노 라이언은 음악잡지 '노이지'와 인터뷰서 무에타이 선수 시절과 승려로서 태국 생활, 음악에 입문하게 된 계기 등을 밝혔다. 사진출처=노이지

"제가 머물던 사원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매일 새벽 칠흑같이 어두운 정글을 뚫고 마을에 나가 탁발을 했습니다. 맨발로 6km 거리를 걸어가야 했지만, 그 또한 수행의 연장이란 생각에 힘든지도 몰랐습니다."

고행 속 노노에게 위안이 됐던 것은 '음악'이다. 수행 중에는 음악 · 춤 모든 것이 금지돼 있었지만, 그는 시와 가사를 쓰며 음악에 대한 열망을 키웠다. 가수가 돼 무대서 공연을 할 거란 장대한 꿈은 아니었지만, 현재 그는 '진짜 가수'가 됐다. 불교서 영감을 얻은 그의 대표적 곡은 'Word'와 'Ocean'이다.

"승려로서 경험은 현재 래퍼로서 가사를 쓰고 음악적 영감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로 인해 다른 아티스트들과 차별화 된 나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캐나다서 래퍼로 활동 중이지만, 난 여전히 인생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삶을 거쳐 온 노노. 그는 일련의 경험들이 전부 이유가 있는 것이라 믿는다.

"저는 진실 된 무언가를 갈망했고, 많은 경험을 통해 결국 찾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두려우면서도 평화로웠어요. 전 지금도 인생의 더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명상 분위기, 긍정적 에너지 방출 효과"

집안을 명상공간으로 만드는 7가지 팁

명상의 묘미는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조용한 순간을 원할 때 할 수 있단 것이다. 집에 특별히 명상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집안 자체를 명상과 사색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명상은 언제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

특별히 장소에 구애받지 않지만 명상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안락한 집에서 하기를 선호한다.

호주 언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집을 명상할 수 있도록 꾸며놓으면 지속적으로 침묵을 유지하고 조용히 명상에 들 수 있다"며 "그리고 명상적인 집안 분위기는 우리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고 소개하며 명상공간으로 집안을 꾸미는 팁을 제시했다.

어수선한 물건들을 치워라

일반적으로 명상은 한 가지 생각이나 화두에 초점을 맞추고 몰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방이 너저분하면 집중을 잘 할 수 없다. 집안에 구석을 명상 공간으로 지정하고 쿠션 몇 개와 양초를 놓아라.

단순하게 꾸며라

명상을 하기 위해 지정한 공간 한가운데에 작은 그림이나 동상 등을 놓는다. 그림이나 동상은 명상에 집중할 때 방해받지 않을 정도인 것으로, 그리고 영적 상승을 꾀할 수 있는 것들로 선택해야 한다.

지수화풍 등 4대 원소를 활용하라

지수화풍 등 4대 원소도 충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크리스탈 수정과 흙, 소금 나무 △아로마 향이 나는 공기 △양초 △세라믹 볼에 담긴 물 등으로 명상공간을 꾸며보자.

안전한 구역으로 만들어라

명상시 촛불을 사용한다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면이 편평한 지면이어야 한다. 또한 화재시 불을 끌 수 있도록 모래 등을 그릇에 보관해놓는다.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라

명상공간이 따뜻하고 공기가 쾌적한 상태가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명상을 하다 피곤함을 느낄 때 충분한 산소와 쾌적한 향으로 공간을 채운다면 명상에 더욱 잘 몰입할 수 있다.

소리에 집중하라

바람소리, 종소리, 음악 또는 자연의 소리가 적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만약 음악 또는 명상용 소리를 사용할 때는 한 가지 트랙을 재생해 지겨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종류의 사운드를 재생하도록 하라.

자연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라

자연에 있는 것들이 명상에 몰입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릇에 담긴 물, 화병의 꽃, 식물 등을 보면서 집중과 몰입을 하면 세계에 나와 사물만 있는 것 같은 순간을 느낄 수 있다. 듣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등 모든 감정을 이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강바닥에 묻힌 불상 구하라"… 발굴 위한 불교 의식

캄보디아 스님 및 주민들, 제사 이후 6개 불상 추가 발견

강바닥 깊이 묻힌 불상을 건지기 위해 물과 흙의 정령에 바치는 의식이 치러져 화제다.

태국 일간지 '파타야메일(Pattaya Mail)'은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킨 카앙 마을 주민들이 톤레 삽 강 바닥에 묻힌 불상을 건져 올리기 위해 물과 흙의 정령에게 도움을 청하는 불교의식을 봉행했다"며 "행사에는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해 불상의 무사 귀환을 빌었다"고 보도했다.

'파타야메일'은 "조상들로부터 수 백 년 전 약탈을 피해 강바닥에 불상들을 묻었단 얘기를 전해들었다"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 7월 잠수부들이 작은 불상 2개를 건졌다. 근처서 강바닥에 묻힌 2m 크기의 불상도 발견했지만 구조엔 실패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킨 카앙 마을 주민 및 스님들은 불상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불교의식을 봉행했다. 사진출처=파타야메일

씨엉 찬 흥 관계자는 "주민들은 물과 흙의 정령에게 제대로 된 의식을 치르지 않아 불상을 건질 수 없던 거라 생각한다"며 "영혼을 달래는 의식은 힌두교 전통이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간직한 캄보디아서는 불교 의식과 딱히 구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식을 주관한 두엉 퐁 스님은 "제사를 지낸 이후 불상 6개가 추가로 발견됐고, 최근엔 같은 시기로 추정되는 유물도 발견됐다"고 희망을 내비치며, "발견된 유물은 근처 사원에 보관중이며 다이버 12명이 수색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타야메일'은 "킨 카앙은 프놈펜서 40km 거리의 고대 도시로서 15세기 샴족이 앙코르 와트를 점령한 시절 옛 수도 롱벡이 있던 자리"라고 설명해 태국 왕조가 침입했을 당시 마을 주민들이 불보를 숨겼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승희 수습기자

누가 가장 멋있는 스님일까

일본 불교계, '얼짱 스님' 콘테스트 열어

일본 도쿄에서 멋있는 스님을 뽑는 이색 콘테스트가 열려 화제다.

미국 언론 쿼츠(QUARTZ)에 따르면 8월 22일 일본 불교 상조회사 주최로 열린 '얼짱 스님(handsome monk)' 컨테스트서 비구니 스님 코유 오사와가 1등을 차지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유 오사와 스님은 도쿄서 열린 장례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행사에서 청중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사와가 스님은 평온한 인상으로 명상에 몰입하는 모습을 연출해 참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2등을 차지한 비구 스님은 가라데 무술로 타일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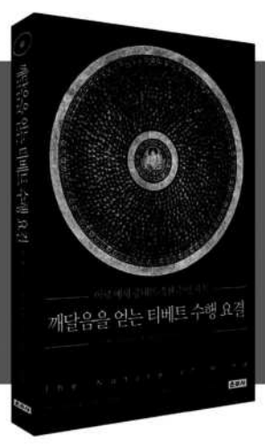
또한 3등은 라디오 쇼를 진행하는 스님이 차지했다.



8월 22일 일본 불교 상조회사 주최로 열린 '얼짱 스님' 콘테스트서 비구니 스님 코유 오사와가 1등을 차지했다. 사진출처=QURTZ

이보형 객원기자

족첸(대원만) 수행의 안내서!



아로 예세 중내의 족첸 수행 지침
깨달음을 얻는 티베트 수행 요결

10세기 티벳불교의 위대한 성취자이자 스승인 아로 예세 중내의 핵심 가르침!
티벳불교의 가장 높은 단계의 가르침인 족첸 수행에 대해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설명! 어떻게 마음의 본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마음의 본성에 머무는 삶을 살 것인가? 근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아홉 단계의 수행법을 통해 모든 이들을 행복과 평안으로 이끌어준다.

켄첸 빨덴 셰랍 린포체 • 켄뽀 체왕 된갈 린포체 저 / 고수연 옮김 / 국판 / 256쪽 / 값 14,000원

부처님의 가피가 가장 수승한 법화경 사경!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느니라."



우리말 (전5권)
법화경 사경
혜조 역 / 사륙배판 케이스
전체 940쪽 / 값 40,000원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수량을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라."

한문 법화경 사경 (전7권)
사륙배판 케이스 / 전체 750쪽 / 값 4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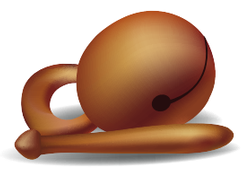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분노를 끊으면 편안히 잘 수 있고 분노가 없어지면 걱정이 없다. 분노는 모든 독의 근본이지만 수행자는 분노를 없애 편안함을 얻는다.

– 출요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정암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529-1076
010-9944-1075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배우자 관상을 보면 몇 살 때 어디 질병이 있는지, 죽음까지 알 수 있다
– 암, 질병, 묘터, 교통사고, 이혼을 얼굴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다
– 무속인, 철학인, 일반인 (천기누설)
– 관상과 손금, 임상비법, 관상과손금 비밀이야기(판매중)
010-4014-8822

평생교육원 등록안내
(불교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참나를 찾는 참선강의
9~11월 3개월간
매주(토) 14~16시 수업
초보자 환영, 기초부터
친절히 안내
(천안 동면 광덕사)
010-5588-6448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범패작법 전문교육 수강생모집
(6개월과정 / 수시접수)
교육내용 : 조석예불,새벽종송,사시불공,천도재, 사십구재,점안의식,구병시식,각종불공
바라무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관욕바라,화의재바라,명바라
나비무 : 도량게,다게,운심게,오공양, 삼귀의,육법공양,향화게,법고무
* 범패작법 전문스님들이 사찰 각종행사 대행하여 드립니다 *
* 전생체험 및 빙의환자 퇴마치유 전문*
010-5269-4168
(연화사 범패작법교육원)

퇴불 철거
(탱화,동불,목불,석불,불기,석물)
모시던 부처님 회향하실때 좋은 인연으로 이원해드립니다
사찰,포교원 소개해 드립니다
법당철거,신당철거 정성을 다해 철거,퇴불,원상복구 해드립니다.
(주)다사팜
010-2395-3333

기문명리
초급과정(15주)
개강일 9월 6일(매주 화)
주간반 : 2~ 4시
야간반 : 7~ 9시
부경대학교평생교육원
수강신청 051)629-6791

사주핵심강의
(명리, 성명학, 영통비법)
기초반.일반부 :
3개월 60 만원
전문부 (핵심비법전수) :
2개월 100 만원
※ 철학관. 포교당 개업하실 분 (월 4회 강의)
010-3801-4266
운문산 벽송스님 합장

사주학 제10기
• 교육과목 : 사주학,매화역수,성명학
• 초급반 : 사주명리 왕초보자, 이론 정립이 안되신 분
• 실전반 (통변반) : 질의 / 응답식 강의. 본인이 궁금한 사주를 즉석에서 풀이
• 강사 : 정인스님
010-4047-0134
정인역학연구소
(서울 광진구 구의동, 성불사 주지)

특허기술로 탄생한 다이어트 돈까스 도매
• 9가지 자연 곡물 + 5가지 건강야채 (양파,당근,마늘,부추,연근) + 블루베리
• 뱃살 찌지 않는 야식 돈까스 (1봉 150g×7개) 16,000원
• 사찰 스님 드시는 돈까스 (연근 20%,야채,버섯,대추 / 1봉 15,000원)
• 유치원 납품, 식당업소용, 창업,지역취급 상담
제조원:(주)효경식품 / 판매원:신푸드
010-2264-1919
053-583-1918

25년 전통 국내산 떡갈비 도매
• 양념이 완료된 성형제품 100g 1장 900원 (1팩 2.5kg)
• 양념이 완료된 성형제품 58g 1장 295원 (1팩 17개)
• 육가공 10종 최고의 맛 보유
010-2264-1919. 053-583-1918
국내산 현미 부드러운 누룽지
-당뇨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 누룽지는 쌀눈(현미과 미감이 그대로 살아 있도록 만들었음. – 졸음운전 방지, 귀한손님 방문, 주전부리 간식 / 현미누룽지 270g, 150g / 보리와 현미 누룽지 / 병아리콩 현미누룽지

공 고
큰스님 모시고 참선 및
티베트 수행법으로
마음 닦으면서 시봉할 분
(단,운전,숙식가능한 분/남녀불문)
010-4905-0575

문두루 기도법?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며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경남 거제시)
010-5579-0404

기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기장)
010-3579-6444
010-4851-6565

비구니 스님
(55세 이하)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동림사)
010-3871-3000

조계종 공부하신 기도스님
모십니다
(경북 성주)
054-932-3169
010-8855-5644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찰내외 유무선마이크 설치 에 대한 공사 안내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중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인제읍 무애암, 충북보은읍 만선암,서울 강동구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0-8721-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60세이상)
010-2585-7696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 자 모 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남원, 4대보험)
063-620-9201~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0-3774-4099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소부
☎ 011-356-3427(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삿된 방법을 생각하지 말라. 바른 생각으로 행하지 않으면 비록 재산을 얻더라도 밤낮 근심하고 걱정한다.

- 출요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도심 속의 땅넓은 사찰◀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총부지 : 4,000여평 ※일부 주거지
- 건물 : 법당 및 산신각, 요사채
- 조망권 : 먼바다와 노송이 우거진 멋진전망
- 가액 : 6억 8천만원

▶탁트인바다전망과 전통목조사찰◀
- 위치 : 용원 어촌계 부근
- 총부지 : 240평, 신도시 1만여세대, 대단지아파트
- 건물 : 목조법당(25여평), 요사채 목조산신각(7여평)
- 양도가액 : 6억 5천만원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고양시 일산 추천 급 안내

(www.이박사.com)
- 포교원 사용 , 법당, 공야간 종무실 등
- 5층 중 5층임 - 일산서구이며 현재 운영중임
- 분양받아 포교원 운영하시다 양도암. 시설비 포함
- 양도가액 : 3억 3천만원. 조정가능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200평
◎ 인법당 : 50평
◎ 요사 : 60평
◎ 양도 : 7억8천
◎ 위치 : 서울시내산밑
◎ 대지 : 45평
◎ 인법당 : 60평
◎ 요사 : 20평
◎ 양도 : 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부산 온천동 금정산 자락
- 토지 : 79평(남향 뒤는 산)
- 자리 좋은 암자
- 건물 : 법당 23평, 요사채 24평, 산신각
- 양도가 : 2억 1천만 인수 (은행 1억 5천만))

직통 010-2595-7752
※부산 만덕 부동산
제 26320-2015-00027호

김포암자(급)안내

- 현재 토굴 사용중
- 토지 405㎡ 사용, 건물 119㎡
- 마을 주변, 조용하고 도로접
- 토지값 정도로 양도함
- 가액 : 2억 6천만원(조정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찰(문화재 보유)안내

- 위치 : 강원 동해시 바다조망
- 건물 : 5동중 1동 2층 약 80평 신축
- 대지: 약 3,500평중 400 종교 용지
- 시내와 5분거리에 있으며 산중과 같음 위장에 양호한 약수가 나오는 곳임
- 본 사찰에서 유물이 약 40점이 발굴된 곳이며 일부는 문화재로 지정된 곳
- 현재 불사 진행중이며 불사에 관심이 있으신분 연락바랍니다.

010-4491-555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마산시 회원구 구암동
- 평수 : 3층 건물중 2층,46평,
- 법당 : 완전 구비, 즉시법회 가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천만원, 절충가능
- 불사관계로 급양도함

010-5451-6056

사찰 안내

- 위치 : 물! 공기좋은 지리산 중산리 부근
- 대지 : 130평, 요사채, 후원, 실외화장실
- 텃밭 무한정사용 가능
- 가액 : 1억 6천만원

055-972-0338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대구 도심 포교당

(완벽시설-임대 운영하실 분을 모십니다)
- 교통편리, 주차장 완비
- 2층 요사채(60평) : 주방,공양주방, 해우소,상담실,주지실
- 3층(각 60평) : 종무실, 객실
- 공양주 없어도 운영 가능 (식기세척기, 반찬 냉장고 등 구비)

010-5421-3366

사찰 안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 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절터 안내

- 위치 :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계곡속
- 천하명당 절터 434평
- 입구에 폭포있음, 지방도 바로옆
- 전기, 관정 공사 완공 하천부지 일부사용
- 가액 : 5,800만원, 절충가능
- 장난전화 사절. 꼭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

010-2499-3001

수행터 구함

- 위치 : 경북 김천 기준 차량 1시간 거리이내 (김천 상주 영동 성주 무주 예천 선산 증산 등)
- 배산임수의 샘태기 지형으로 외길의 맨 끝 위치 선호
- 전원주택지라도 조용하고 수행가능한 곳 선호
- 차량진입 가능한 곳, 물과 전기 사용 가능한 곳
- 10여평 정도의 건물이 있는 곳 선호
- 구입 예산 1억원 전후임
- 매매 우선이나 전세형태 임대도 가능함
- 실수요자김천 지역가 있으니 빠른 연락바랍니다

010-2765-2722

서울사찰안내임대

템플스테이 게스트 하우스
- 에어비엔비 운영할 분 환영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715-38
- 대지 80평, 건물 100평 2층
- 천연기념물 271 굴참나무 소재
- 은퇴자분 주거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추천
- 가액 : 8억, 임대협의

010-7452-4725

청주 도심사찰 안내

창건13년 청주 도심포교 기도도량
- 대지 : 60여평
- 건물 : 50여평
- 대웅전. 16아라한전. 산신각
- 요사채: 방5. 화장실2
- 아미타 대불 삼존불. 영험의 지장탱화
- 직접 방문 확인후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가액: 4억5천만원

010-6372-8968

농가주택

- 위치 : 경북 영양 한적한 곳
- 농가 30평, 대지 206평
- 남향 하천접, 도로 양호
- 다용도
- 가액 6,800만원

010-8899-8899

도심속의아담한암자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단독 주택
- 가액 : 대출 ~7500만원~ + ~1억3천5백만원 합 가액 : 2억 1천만원 (절충가능함)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010-7188-7723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IC에서 10분거리
- 건물 3동, 대지 197평
- 법당, 삼존불 외 소불 150불
- 방 4개, 공양간, 화장실
- 가액 : 1억 4천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있음)
- 몸만 오시면 됨

010-7589-9600
010-3753-7844

포교원안내

- 위치:충북진천군진천읍전망 매우좋음
- 1층 법당 60평, 3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범종
- 2층 60평, 방 4개, 거실2개 주방, 화장실, 기름보일러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화장실 2층 2개 1층 1개

010-5103-1325
010-5605-6235

사찰안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사직동
- 총 45평, 방 3개, 법당 25평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왕보살 본존불 뒤 신중은 흑탱화, 산신탱화, 칠성탱화
- 신장, 소종, 북, CCTV, 에어컨, 컴퓨터, 냉장고 가전제품 일체, 책장과 도서류.
- 꼭하실 분만 연락 바랍.시설A급, 즉시 법회가능, 몸만오시면 됨
- 큰스님 노환으로 치매가 발생하여 절 운영이 힘들어 급 양도
- 가액 : 보 1,000만원 70만원,시설비 3,500만원

010-5400-9411

토굴안내

- 위치: 경북 문경시 동로면
- 건물 목조 기와 30평
- 대지 100평
- 참고 : 면소재지에서 3.5㎞ 권리승계임
- 가액 : 6천만원

010-3189-8745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송도해수욕장 인근)
- 대지 약 130평
- 건물 : 한옥2동 (법당 및 공양간 약 22평, 주지실 7평 등)
- 가액 : 보 1,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262-100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 시내
- 평수 : 60평
- 정원 조성 되어 있는 기와집 단독주택
- 법당1, 방2, 입식주방1 창고1, 보일러실1
- 시설 : 삼존불, 집기류 완벽
- 가액 : 전세 2,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8223-4879

사찰안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 대지 100평, 아파트 대단지 뒷편
- 산과 계곡이 있는 절
- 오존불, 각단 탱화 법당 완벽
- 방4개, 다용도 거실 큼
- 가액 : 전세 500, 월 3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2565-7200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미아4거리 부근
- 법당 30평, 공양간 약 4평
- 방 4개(대 2, 소 2) 화장실 2개(대1, 소 1) 창고 약 4평(대1, 소 1)
- 3층건물 3층
- 관리비(전기료 수도료외 없음)
- 가액 : 보2,500만원 임차료 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4426-6905

포교의 미래는 개척 불교의 희망

- 위치 : 원주시 풍물시장 중앙시장 중간 상권 교통요충지 3층 30평 옥상이용
- 법당 주방 집기일체 갖추어져 있음
- 약초재배연구 관계로 14년 운영하던 포교원 부득이 양도코져함
- 가액 : 500만원, 월 25만원 (가액 조정가) 시설비 2,700만원 보시면 깜짝 놀람
- 즉시 법회 가능

010-3813-6174

사찰(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IC 10분거리
- 무성산 칠부능선
- 365일 1급수 물 사시사철 흐르고, 약수물 옹달샘 있음
- 가옥 40평, 25평(2채)
- 평수 : 8,500평(5,000평은 과수원)
- 뭐라해야 스님께서 오시려나... 정말 좋은데...
- 가액 : 8억 5천 (주인직접)

010-4130-0606

(급)암자 같은 포교원 안내

- 경북 고령군 시설특 A급 몸만 오시면됨
- 법당1,삼존불 완비, 스님방1,거실1, 주방1,옥실1,창고1,원두막1, 보일러실 별도, 마당 넓고 조용한 한옥단독주택 약 25평이며 주변 주차공간 많음
- 비구니스님 오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 가액 : 2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350만원. 조정가능
- 외국유학 관계로 급 양도

010-5807-2452

사찰안내

- 위치: 충남 금산
- 종교부지 280평
- 법당: 철재 경량골 23평
- 삼성각: 목조 기와 7평(단청, 30년됨)
- 요사채: 철재스레트 30평,방5개, 주방1개, 화장실(실내1, 실외1)
- 임야 : 50평
- 가액 : 1억 8천(융자4천만원)

010-3875-6305
041-759-0592

포교원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요지
- 1층 공양간 35평 2층 법당 50평
- 가액 : 전1,500만, 월80만 시설비 절충

010-3112-0480

포교원(급)안내

- 위치: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233-23번지
- 45평 단독 주택
- 구옥 리모델링 별장같은 도량임
- 특수담장 대문엔 비디오폰 설치
- 아담한 도량이며 장기계약 가능
- 임대시 보증금 천만원 월 사십만
- 법당시설비 불기구 일체 오백만
- 매입시 가옥일체 8천3백 조정가

010-5458-295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 평수: 2층. 45평
- 법당 3존불조성, 완벽하게 갖추어진 포교당으로서 몸만 오시면 법회 즉시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및 권리금 없음

010-2575-9876
010-9129-5976

사찰안내

- 위치 : 창원시 마산 합포구
- 대지 : 54평
- 대웅전3존불, 산신각, 공양간, 탑2기, 방 2칸, 친견실 별도
- 주택가 위치로써 조용하고 깨끗함, 근령 2년
- 가액: 2억7천만원 (융자 7천만원 포함) 가격절충

010-9563-6787
055-246-8858

합천 무학동굴 앞 대지 및 전원주택 매각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29-2번지
- 대지417평(1,379㎡), 건물(전원주택)44평(147.36㎡)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29-8번지
- 임야 211평(699㎡)
- 특징 : 합천무학동굴은 조선시대 왕사인 무학대사가 어린시절 수련하였던 동굴이며, 동굴에는 무학대사가 술가락으로 팠다는 샘이 있다(경남문재재연구원의 합천무학대사 유허지 발굴 보고서 및 합천향토문화지 등에 기록)고 강숙자 보살이 무학동굴앞 부지를 매입하여 1999년부터 무학동굴을 관리하고 있었다.(건물은 2008년도 신축함)
- 가액 : 4억

010-2078-9595



템플콕 무료이용 이벤트 ~ 9월 30일 까지

전국의 사찰, 포교원, 암자, 기도터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 매물도 올리고..
(매물의 상태를 직접 사진으로 확인하고 지도검색을 통해 정확한 위치도 확인)

필요한 매물을 스마트폰에서 한 눈에 검색하고 바로 확인하고,
내 매물을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올려서 직거래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항목별 (사찰, 포교원, 암자, 토지임야, 납골당 등), 가격별로 검색 가능 합니다.
▶매물 담당자와 직접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이용안내
1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템플콕'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2 간단한 회원가입 후 본인의 매물 등록
3 게시 기간에 맞는 요금 결제
4 입력한 매물 게시(시작)일 - 오후 7시 등록 (관리자)

※매물등록은 매물보기에서 다른 매물 입력내용 확인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문의 02)2004-8214

주의 : 템플콕은 사찰 및 포교원 등 수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상호 직거래하는 방식이므로 거래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포교원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장 근교
- 3층 24평 대웅전 삼존불 2층 24평 극락전 삼존불
- 옥상 사용 가능
- 보증금 무, 선세 350만원
- 부처님 조성 법보시
- 시설비 2500만원

010-6368-6563

사찰안내

- 위치: 경주시 불국역 부근
- 최고입지 조건 갖춘 암자임
- 정남향, 대지 200평, 건평40평 대웅전, 요사채, 방 3개, 친견실, 공양간, 화장실3개, 삼성각 15평, 집기일체
- 가액 : 2억 8천(조절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5427-3699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우림시장 오거리 (위치좋음)
- 2층 전체 약 30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가액 : 보 2,000만원 월 70만 시설비 답사후 결정(현재 법회중)

010-9598-5757

암자안내

- 위치: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78-2(성내 2리 35-4)
- 대지 60평, 건평 60평(2층 건물에 1층)
- 마당 60평(잔디) 법당외에 방4개
- 주위 무료공용주차장, 넓은 수세식 화장실
- 법당 : 삼존불, 후불 탱화, 산신 및 후불탱화, 신장 탱화 인수시에는 시설비 8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입주 가능
- 가액:보 500만원,월세 50만원

010-6667-8819
010-9087-481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마당 잔디. 조경 전망 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 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 7천 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8억 6천만원)
- 불사 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사찰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 토지 : 총 650평 (대지 410, 임192, 전48) 5필지
- 법당 : 30평, 산신각, 조립식방,
- 전부강판기와, 산업용 보일러 시설됨
- 요사 46평(심야보일러, 창고포함) 옥외화장실, 정자, 창고
- 산세좋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주차장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7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9190-5896

감정 정리의 힘

구제고지 (‘긍정심리학스쿨’ 대표)

〈3〉 단련하는 습관 ㊦

‘작은 성공’으로 시련 이겨내라



고난 딛고 강해지기

“아주 소수이지만 진정한 리더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바로 본인 앞에 닥친 가혹한 시련을 성장할 기회로 바꿔왔다는 것이다.”

리더십 이론의 대가라 불리는 워런 베니스(Warren Bennis) 박사의 말입니다. 베니스 박사가 미국의 정·재계를 대표하는 인물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들은 모두 리더십에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계기는 대학교 강의실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뛰어들어 몸으로 부딪히다가 사면초가의 시련에 빠졌을 때,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즉 역경 체험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리더들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련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시련’의 정체는 바로 ‘주의 사람들의 편견’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신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거나 헐뜯는 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엄격한 상사나 멘토를 만나 그들로부터 날카로운 조언을 얻는 매우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훗날에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진짜 시련’입니다.

역경을 효과적으로 이겨내려면 감정회복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한 단계 더 강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테크닉이 ‘자기 효능감’ 높이기와 ‘사회적 지원’입니다.

벤처 기업에 입사한 K 씨는 책임감이 강하고 매사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성실한 회사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표 의식이 낮은 편도 아닌데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기 네 명 중 실적이 가장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입사 초기 법인영업부에 발령을 받고 일하던 중 프로젝트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자신감이 많이 하락했는데, 아마도 그 사건이 다른 업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기 부여와 사기 진작을 위해 MBO(효율적인 경영 관리 체제 실현을 위한 경영 관리법의 하나. 기업이나 조직의 구성원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와 동시에 동기를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을 도입해 분기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특히 K 씨의 주요 업무는 고객에게 인재를 알선하는 일이었으므로 ‘분기별 알선 실적’ 같은 수치상의 목표와 ‘고객을 잘 이해하기’ 등의 업무 목표를 설정해 내재되어 있는 의욕을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지속적인 동기 부여를 위해 목표 달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시화하고, 이를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세분화하는 작업도 실시했습니다.

주 1회 사전 미팅하기, 고객 상담하기, 사무실로 돌아온 후 사람들과 내용 공유하기, 이 순서에 따라 트레이닝을 반복하는 동안 K 씨는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K 씨는 회사에서 그해 마지막 분기 우수 사원으로 뽑혔습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알선하는 데 성공했고,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등의 업무 성과를 올렸습니다.

위 이야기는 제가 운영하는 교육 기관에서 K 씨에게 감정회복습관 강화 트레이닝을 지도한 사례입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입사 동기에게 밀려 자신감을 잃어버린 K 씨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좌절을 겪더라도 바로 다시 일어난다면 괜찮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연이어 실패하면 누구나 심적 부담을 느껴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법입니다.

자기 효능감 높이려면

자기 효능감은 영어로 ‘Self Efficacy’라고 하는데, 이는 ‘목표 달성에 대한 자기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막연한 자신감이라기보다 구체적인 감정이자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심리적 자원입니다. 어떤 목표에 대해서 ‘그래, 나는 하면 되는 사람이야’라고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척도입니다. 자기 효능감에 관해서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앨버트 반두라(Allbert Bandura) 박사가 가장 유명합니다. 반두라 박사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편견으로 보는 시선 존재
성장하는 ‘경험’으로 삼아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상승

첫 번째 방법은 ‘실제 경험 쌓기’입니다. ‘하면 된다’ 같은 신념을 지니려면 먼저 작은 성공을 체험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때로는 기대치를 낮추더라도 성공이 보장된 쉬운 과제를 반복해 작은 성공 체험을 많이 쌓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범 사례 관찰하기’입니다.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를 가만히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대리 경험’은 가능합니다.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자신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따라 하며 익히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방법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격려받기’입니다. 새로 입사한 사람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네라면 할 수 있어”라는 격려의 말이나 “그 아이디어 상당히 괜찮은데?”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감정 조절하기’입니다.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잘 안 될지도 몰라……’하고 암울해지기 전에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바꿔 기분 좋은 감정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룹 회의 등을 통해 상대방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이 방법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순풍을 만난 배처럼 모든 일이 순조로워 보이지만 정작 본인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M 씨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입시, 취직, 이직 같은 인생의 굵직한 고비 때마다 번번이 제1지망에서 실패하고 제2지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M 씨의 내면에 실패의 기억으로 남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쓰라린 체험입니다. 감정회복습관이 있는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바로 다시 일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실패야말로 감정회복근육을 단련할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험에 관해서는 세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실패로 인한 충격으로 생각이 정지되면 안 됩니다. 실패는 강렬한 부정적 체험이기 때문에 생각이 정지하거나 죄책감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성실한 노력형 인간일수록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책임감을 느끼고 후회를 곱씹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의 실패까지도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끼며 점점 ‘부정적인 연쇄 반응’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셋째, 실패가 거듭되면 다음에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워 도전하지 않는 ‘행동 회피’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행동 회피라는 나쁜 습관에 물들면 심리적인 ‘세이프 존(safe zone)’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합니다.

부정적 연쇄반응서 벗어나라

감정회복습관이 있는 사람은 실패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밟아나가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① 냉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자책하는 마음을 다스린다.

② 부정적인 연쇄 반응에 빠지지 않도록 ‘감정을 정리’한다.

③ 패배 의식을 갖지 않도록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자기 효능감’을 키운다.

실패를 경험한 뒤에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원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실패했다는 사실 자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과도하게 자책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감정 정리’입니다. 이는 실패 후에 생겨나기 쉬운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M 씨의 경우,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도 효과적으로 기분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노나 불만과 같은 감정은 억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촉발제로 작용하면 또다시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M 씨는 실패로 자신감을 상실하고 애초의 꿈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착실하게 수행하고, 성공 체험을 하나씩 쌓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베이비 스텝’이라고 부릅니다. 매우 평범해 보이지만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모범 사례’가 될 사람을 빨리 찾아내어 그 사람의 업무 스타일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리 체험’은 자기 효능감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업무 방식입니다. 아울러 ‘격려’는 모범 사례 다음으로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방법이지요.

또한 성과를 냈을 때 축하하는 의미로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감정을 띄우는 비법 중 하나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맞이하게 되는 고비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역경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회복습관을 단련하는 기회로 작용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번 기회에 감정회복근육을 강하게 키워보십시오. 분명 행복한 직장 생활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글은 〈감정 정리의 힘〉(다산 3.0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영산재 50호
경기범패 학인모집
▶기초반 : 염불송, 예절법, 사물 (목탁, 요령, 태징, 북)
불교의 유래, 기도의 참법, 간단한 액막이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4시
▶승려반 : 도량석, 조석예불, 종송, 사시예불, 사물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기능반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잡, 화의재바라
나비춤, 도량게, 다게, 법고무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법주반 : 49재의식, 천도재의식, 시다림, 파묘의식,
산소이장법, 바라태징법, 새벽종송,
각종 점안의식, 각종 파불의식, 각종 이운법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강 주 : 민지효 스님
● 장 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24 광법사
(구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동 303-8번지 광법사
문의전화 010-4466-357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좋은인연 대출안내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돌담 위의 꽃 한 송이

돌담 위에 핀 꽃 한 송이. 그 전생을 들으니 나의 오늘은 참으로 어쭙잖다. 그리워서 피는 꽃이란다.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린단다. 그래서 담장 위로 핀단다. 여름 한 철의 전생이 저토록 명료한 것을. 나의 오늘은 아직도 전생을 알지 못한다. 오늘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어쩌다 꽃 한 송이에 걸음을 멈춘 오늘 하루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어느 덧 능소화 꽃잎도 하나 둘 떨어지고 뜨거웠던 여름도 저물어간다. 나도 저물어 간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승한 스님의 좋아좋아 행복코칭

아이와 친구 되어주기

내 자식이 바로 부처님이다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자식이 미워 죽겠어요."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참가자가 많다. 남편(아내)은 그렇다 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자식이 왜 미운 걸까?

이유는 한 가지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다.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제각각 놀기 때문이다.

환경과 성격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그러나 원인은 자기 욕심이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화가 쌓여 미운 감정으로 변하는 것이다. 제아무리 자식이지만, 미운 감정이 쌓인 아이와는 친하게 지낼 수 없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물며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는 일에 있어서이랴.

부처님은 인간에게 '3가지 기본 번뇌'가 있다고 하셨다.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이다. 그 가운데 욕심을 맨 앞에 둔 것은 욕심이 모든 번뇌의 우두머리기 때문이다. 욕심 때문에 화가 생기고, 그 근본이 어리석음이라고 보신 것이다.

어리석음은 왜 생기는가? 분노는 왜 생기고 욕심은 왜 생기는가? '조건들' 때문이다. 욕심이 생기게 하는 조건들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그 조건들을 또한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생기고, 또 욕심이 생기고, 또 화가 생기고,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아이 문제도 마찬가지다. 아이는 아이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가라는 학원은 안 가고, 하라는 심부름을 안 가는 등 미워할 조건이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자식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 또 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조건에는 또 다른 조건들이 선행해 있다. 아이는 공부를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조건들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엄마 아빠가 허구한 날 싸운다든지, 제 공부방이 없다든지,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등등 부모가 미처 알지 못하는 조건들 때문에 아이는 공부를 안 하는(못하는) 것이다. 그런 조건이 쌓이고 쌓여 아이는 말 안 듣는 아이가 되고, 조건들은 생각지도 않은 채 부모는 말 안 듣는 자식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부모들이 아이와 가까워지는 방법은 단순하다. 미움의 조건들만 쳐내면 된다. 미움의 가지들만 쳐내면 아이와 금방 친해지고 친구가 될 수 있다. 본래 아이를 본래 아이로 만날 수 있다.

그 길 역시 간단하다. 욕심을 내려놓고 아이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대대로 조종하지 않으면 된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한다고 닦달하지 말고 아이가 왜 공부를 안 하는지 조건부터 살펴 없애주고, 심부름을 잘 하지 않고 학원에 잘 가려 하지 않으면 왜 심부름을 하려 하지 않고 학원에 가려 하지 않는지 조건들을 알아차려 조건들의 가지를 쳐내주면 된다. 아이가 말썽을 일으켜도 말썽을 일으키게 한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 없애준 뒤, 아이를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감싸주면 된다.

습관들이기와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새벽예불은 그런 습관들이기와 훈련 방법으로 아주 좋은 방편이다.

새벽예불의 목적은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하는 일이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는 일이다.

부부 · 자식 미운 이유는
자기 뜻에 따르지 않기 때문
탐 · 진 · 치 번뇌 버려야
본래 내 자식 만날 수 있어

아이의 눈동자를 보라. 누가 들어 있는가? 내 눈동자를 보라. 누가 들어 있는가? 아이의 눈동자 속에 내가 들어 있고 내 눈동자 속에 아이가 들어 있다. 부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고 하셨다. 내가 부처고 상대방이 모두 부처인데, 하물며 내 눈동자 속에 날마다 살고 있는 우리 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공경해야 할 부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조건들을 바로 살피고, 내 눈동자 속에 날마다 살고 있는 '아이 부처'에게 지극한 공경심을 가지고 다가갈 때, 그리고 아이의 말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줄 때 '아이 부처' 역시 지극한 공경심을 가지고 '부모 부처'에게 친구로 다가와 부모 말에 진정으로 귀 기울인다.

아이들은 영리하다. 부모가 아이를 소유물로 여길 때 아이는 용수철처럼 바로 튕겨나간다. 부모의 욕심이 크면 클수록 튕겨짐의 반동은 더 세다.

집에서 새벽예불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새벽(가능하면 새벽 3시~새벽 5시)에 집 안의 적당한 곳에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촛불과 향을 켠 뒤 마음속으로 간절히 부처님을 그리며 지극한 공경심으로 예불문을 염송하고, 절하고, 기도하면 된다.

이때 명심할 일이 있다.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간절히 그리되, 그 부처님이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이를 부처님이라 생각하며 매일 새벽마다 지극정성으로 공경을 드리는데 아이가 미워질 수 없고 친구가 되지 않을 리 없다.

아이와 친구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조건은 부모 욕심이다. 욕심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아이 말에 귀 기울여라. 아이가 부처로 보이고, 친한 친구로 다가온다.

Tip

부모 위한 마음 살림살이

다음은 어느 수행단체에서 사용하는 마음 살림살이 법이다. 필자가 살짝 응용했다.

1. 남의 허물은 내 허물처럼 덮어주고, 내 허물은 남의 허물처럼 파 뒤집는 마음으로 살기
2. 남의 허물이 보이면 그게 곧 내 허물인 줄 알고 살기
3. 누구를 보든 상대방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기
4. 누가 뭐라고 해도 "예"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기
5. 누구를 만나든 베푸는 마음으로 살기
6. 화나거나 슬프거나 힘들거나 괴로울 때, 올라오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살기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능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전국청년회장 한관영

명리학, 성명학 교육원 수강생모집
수년간 명리학, 성명학을 배우고도 아직 통변이 되지 않는 분은 확실하게 지도함.
※ 용신, 격국에 대한 중점강의
010-3711-5072 교육원장 석유심 합장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행 스님

하찮은 허망함 속에 진짜 참자기가 있고 참진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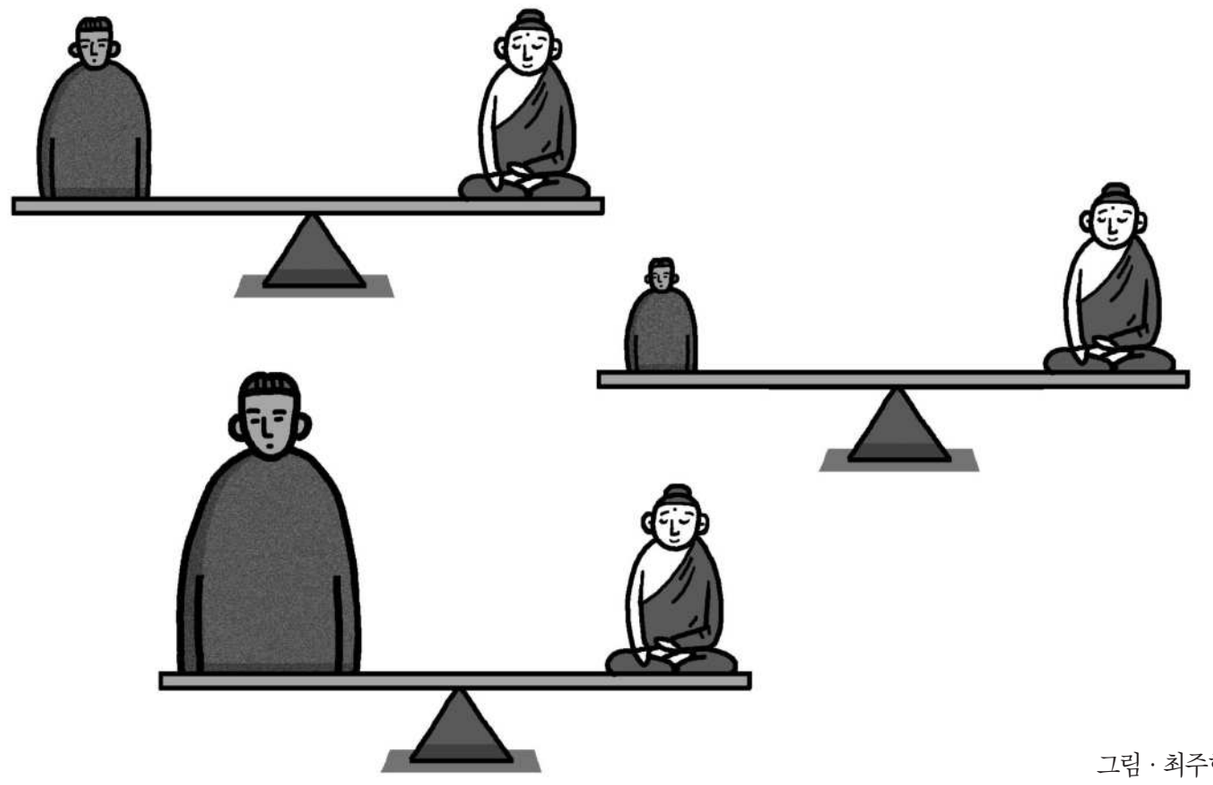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부산지원에서 여러 불자님들과 더불어 큰 스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스님들께서 이렇게 호응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기 스님들을 뵙고 보니까 너무 기쁘고 황송하고, 또 노스님을 뵈오니 아버님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과 더불어 불법을, 아니 불법이라기보다도 세상 이치를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한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교, 불(佛)이라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전체를 싸고돌면서 모든 생명을 생산해 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며 교(敎)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돌아가는 이 자체, 말하고 통하는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단어가 어느 한 군데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끝없는 진리를 표현하는 방편으로써 불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어느 교를 막론해 놓고 불교 아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물 한 그릇도, 흙 한 줌도 역시 모두가 그 생명의 근본이 불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간판을 붙여 놓고 내 종교 네 종교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좁은 마음으로 항아리 속에서 진드기가 공에 매달려서 살듯이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구 바깥을 벗어나서 우주로 마음을 돌려 보실 수 있다면 우리 불교가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고 개혁이 돼서 앞으로 성스럽게 부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면서, 실천 또 실천, 그리고 또 실행을 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불교다, 불교가 아니다 하고 얘기할 게 없죠.

그런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티베트 불교, 일본 불교, 통일교, 모든 종교들이 나서서 '내 거다 네 거다' 하고 싸우는데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부산의 여러 스님네들을 뵈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스님이라고 하기보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왜냐? 그것은 법랍이 높고 낮고 간에 그 마음 때문입니다. 서로 위해 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받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국에 가니까 부처님들이 가르쳐 주신 그 법도는 다 어디 가고 수행자들이 서로 싸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한인회관을 서로 팔아먹고 서로 잡혀먹고, 서로 한마음으로 뭉치지 않아서 외국에서도 비난을 많이 받는 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게 놔두고 참, 스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불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은 체계적으로 못하지마는 그 뜻은 아마 조금도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으면 못 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부산에서는 그렇게 피해를 보고 그랬지만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의 감사함을 느끼고 또 흙의 감사함을 느끼고 바람으로 인해서 공기의 감사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불은 물론이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당초에, 생명이 생기기 이전에 지금 현재의 지수화풍에 의해서, 흙과 물과 바람 이 세 가지가 한데 합쳐서 바로 거기에 따뜻한 원기를 줌으로써 생명체가 생기고, 그 생명체가 생김으로써 바로 우리는 불이라는, 생명이 생기기 이전인 불이라는 그 자체의 불성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가 뭉쳐서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생명이 나온 것인데, (컵을 들어 보이시며) 이것도 역시 세 가지가 뭉쳐서 불에 구워졌기 때문에 이 컵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인간으로 진화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가 그렇게 한데 합쳐서 온 누리에 어떠한 거든지…, 혹성이 돼서 그것이 부딪치고 또 깨지고, 부딪치고 모이고 부딪치고 모이고 그러면서 수억겁이 흘러서 미생물의 문제들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생물이 수없이 흘러나오는데, 묘한 것은 그 미생물은 넷이 동업자가 돼서 같이했지만 네 종류로 나왔습니다. 태로 낳고 알로 낳고 화해서 낳고 습(濕)에서 낳고 이래서 네 가지로 화현을 했는데, 묘한 것이 있어요. 물의 성품은 물의 성품대로 물에서 살게 했고, 바람의 성품은 바람의 성품대로 날면서 살게 했고, 습에서 난 것은 습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습에서, 이 땅에서 살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주 기묘한 것이 불입니다. 불의 성질! 그런데 불의 성질은 뜨거운 것뿐만 아니라 인간 생명의 근본, 세상에 나기 이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 자체는 모든 것을 포괄하게 돼 있고, 모든 것을 같이 이끌어 돌아가는 한마음의 끝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누구의 생명이든 더하고 덜함이 없이 그 소중한, 바로 불이라는 보배가 우리에게 전부 주어졌다는 겁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우리는 쫓고 쫓기면서 단계 단계를 밟아 진화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미생물의 단계, 또 곤충의 단계, 동물의 단계, 즉 인간의 바로 밑에 있는 코끼리라든가 소나 말 같은 단계를 거쳐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이 됐다 합니다.

여러분이 먹히고 먹고, 쫓기고 쫓고 부딪침을 거듭하며 뼈아픈 그 세월을 지나오면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왔다 하더라도 인간 이 자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인간으로 세 번을 태어나 살아야 인간 됨됨이가 제대로 된다, 바로 부처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짐승으로 살다가 금방 인간이 된 사람은 가끔 짐승의 짓을 잘해서 행동 자체가 거칠고 악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생각을 돌려서 공한 자체를 알고 인간으로서 행해야겠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이 돌아가는 지금 이 시점의 공한 자체를 부처님께서는 바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했던 그 사생 자체가 얼마나 묘한지…, 물의 성질을 띠고 나왔기 때문에 물에서 살고, 또 흙에서 살고, 습한 흙에서 살고 또 날아다니며 사는 사생들이 불성을 다 가졌지만 사람만이 좋고 나쁜 것을 알고 있는 인간이 되었단 말입니다. 나쁜 짓도 하겠지마는 좋고 나쁜 것은 다 압니다. 인간도 차원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중생들은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과거에 인연 지은 대로, 악업 선업을 지은 대로 여러분의 몸속에 뭉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고덩어리라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자체 생명의 의식들은 스스로, 내가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 있는 자생중생을 제도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바로 다스리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안에서 나오는 것대로 둘이 아닌 까닭에 바로 그 마음이 한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한마음에다가 놓고 다스려야 한다는 얘깁니다.

모든 마음들을 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옳다고 하시겠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이지만 말입니다. 다 여러분의 생각이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게 하나도 없고 그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으면 작은 대로 쓸모가 있고 크면 큰 대로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찮은 허망함 속에 진짜 참자기가 있으며 참진실이 있고 실행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둘이 아닌 까닭에 한 사이가 없이 하고, 또는 하고도 한 사이가 없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마음의 도리를, 스스로 고정됨이 없이 한 발 한 발 떼어 놓으면서도 짊어지지 않고 가는 그런 도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고 다니는 것처럼, 놓으면 죽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나오기 이전의 배낭을, 악업 선업이 들어 있는 마음의 배낭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과거가 또 어

☞ 30면으로 계속



과거의 그 업보라는 게 어디 붙을 자리가 있습니까?

☞ 29면에서 계속

디 있겠습니까? 짊어지고 나왔으니 말입니다.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다고 했지만 바로 미래도 여기 있습니다. 정신계로부터 물질계로 나오니까 정신계와 물질계의 그 깊은 사연들은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당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도 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50% 정신세계를 추구하지 않고 부처님의 본뜻을 받지 않고 오직 그렇게 물질세계에서만 끄달리고 있습니다. 착, 욕심, 아만, 아상, 아집 이 모두를 한꺼번에 짊어진 채 거기서 나오는 대로, 배낭 속에서 나오는 대로 온통 성질을 내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온통 싸우고 분통을 내고 또는 병고를 앓고, 온통 야단들이죠. 왜 그럴까요? 그 수많은 악업 선업들이 나오기 때문인데, 그게 무엇인가? 영계성, 유전성, 세균성, 업보성, 인과성이 수없이 거기에 들어서, 팥죽 솥에서 팥죽 방울이 끓어오르듯이 온통 나오는데, 그 방울방울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배낭 속에서 바로 여러분이 산 것만큼, 행한 것만큼, 바로 자기가 저지른 것만큼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짊어지고 나왔고,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누구의 탓을 하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내가 짊어지고 나온 탓이니까 말입니다.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세요. 바로 내가 이 세상에 나온 탓이고 그게 화두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도 직선적으로, 직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내가, 공한 이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게 하나요.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점프해서 뛰어넘어서 그냥 '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해서 생명체가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진화돼서 나왔구나! 그랬으니까 그 나온 거는 나온 거로되 무조건 놓고 가야겠구나!' 하는 거죠. 즉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하고 바로 맡겨 놓고 가는 거, 이 두 가지가 정신계의 지름길이 될 수 있으며 그런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붙이고 또 붙인다면 그건 영원히 참자기의 그림자도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맛도 못 볼 것입니다. 그 맛을 알아도 남한테 일러 주지 못하는 법인데 하물며 맛을 모르고 내 몸 하나 이끌어 가지 못한대서야 어찌 불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신세계로 치닫게 되는 교차로에 놓여 있는데 물질세계 50%만 가지고 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천체물리학이니 과학이니 철학이니 지리학이니 천문학이니 하고 무수히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죠. 그럼 요거부터 말씀드릴까요? 미국의 하버드대학 박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교수님들하고 전부 같이 모여 있을 때입니다. "스님! 지금 우리는 우주에서 전파를 통해서 외계인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해서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천부당만부당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무전 전화를 내 마음속에서부터 놓아야 남한테 무전 전화도 하고 무전 전화도 받을 수 있지만 나를 떠나서는 그 통로가 막혀 있다. 모두 각자 나에게 통로가 있으니까 그 통로를 바로 틔워 주어서 물리가 터지고 모든 게 파악이 된다면 내가 두루 탐험할 것이고 볼 것이고, 두루 들을 것이고 찰나찰나 만날 것이고, 내가 결정지을 것이고 내가 안팎으로 통신하는 소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이라는 그 이름 없는 부처님 그 자체는 바로 진드기 발 하나도 내 발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바로 평발이라 했고, 모든 손도 내 손 아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평손이라고 했다.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 내 손 아님이 없고 내 손 없는 데가 없고 내가 없는 자리가 없다' 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두 당신네들 마음속에 통로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그 마음속의 통로를 안다면 벽도 봇장도 없어서, 자기 마음으로 창살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갇혀 있던 자기가 창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감옥에서 탁 틔어져 나오니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두루 볼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두루 보는 것도 도가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즉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마음의 귀로 듣는 것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한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님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마는 제 의견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제가 더 잘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의견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실험하고 했더니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알아도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과거를 다 안다고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미거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물그릇을 보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이것을 갖다 먹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보나마나니까요. 가고 온다 하더라도 아무 실천이 없다면 가고 와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들어도 행하지 못하면, 진실된 행을 못한다면 한데로 떨어지고 그건 소용없는 거니까요. 과거를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것만으로는 도가 아니죠. 그러나 과거를 알아서 현재의 그 다섯 가지를 굴리면서 모든 거를 실천하고 자비로써 한마음이 돼서 발전시키고 개혁해 나갈 수 있다면 바로 함이 없이 해 나가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 지금 언어로 말하자면 숙명통은 컴퓨터, 타심통은 탐지기, 신족통은 팩시밀리, 천안통은 천체망원경, 천이통은 천체무전통신기인데 이 다섯 가지를 다 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자랑 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의 뜻이 열 가지 백 가지의 뜻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진통이라는 것이 뭘 뜻하는가. 지금 시쳇말로 레이더망이라고 해도 됩니다. 레이더망은 이 대기권에서 벗어나서 안에서 나오는 거,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그것을 무전통신기로서 다 통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할 문제를 결정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한다면 누진통으로 비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섯 가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조금 맛만 봤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전부 알았다" 이런다면 벌써 그건 그른 거예요. 내가 부처를 이루겠다고 해도 그른 거고 안 이루겠다고 해도 그른 겁니다. 그대로 실천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묵언! 묵언 행! 남의 탈을 잡고 원망하고 이러지 말고 모든 거를 내 탓으로 돌리며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거기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한데 합쳐진 한마음의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 한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기에, 이열치열이라는 그런 속담의 말도 있듯이, 모든 것은 거기에 맡겨 놓는 겁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 하는 것이니 나는 시자일 뿐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종이라고 합디다.

그러면 내 마음이 움죽거려서 이 몸을 움죽거리게 하는 거지, 몸이 마음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차를 타고 오신 분이 많겠죠. 운전수는 중간에서 차를 잘 이끌어 가지고 가면서 고장이 났으면 고쳐서 가고, 한데로 빠졌으면 다시 돌려서 빼 가지고 건져서 가고, 또 위로는 기름을 넣고 이렇게 하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몸을 다스리면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 나오는 대로 다 제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모든 것은 다, 좋은 거는 감사하게 놓고 나쁜 것은 '아하, 나쁜 것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좋은 것도 거기서 나올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놓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면 바로 어언간 밝은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50% 물질세계에 물이 들어서 요만큼도 여유가 없이 남이 화나는 소리 하면 화를 벌컥 내고 안으로 굴릴 줄도 모릅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의학적으로도 지금 정신세계, 즉 말하자면 무심세계의 의학이 돼야 되는 거지 학술적인 이론의 의학이 돼서는 바로 30%, 35%밖에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65%는 누가 감당을 하느냐?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하고 나가야죠. 말을 하다가도 이렇게 자꾸 샙니다. 딴 데로 나가거든요, 문이 하도 많아서요. 허허허…. 문이 많아서 문이 없고 문이 없어서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이 없어서 문이 없고 문이 없어서 문이 많습니다.

이러니 여러분이 그 뜻을, 우리 부처님의 골수의 뜻을 잘 아셔야 할 겁니다. 고깃덩어리를 믿을 수도 없고 이름을 믿을 수도 없고 형상을 믿을 수도 없고 허공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뼈저리게 마음이 아파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아픈 것도 누가 대신 아파 줄 수도 없고 먹는 거, 똥 누는 거, 자는 거, 죽는 거 모두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은 50%의 그 물질세계에 아주 그냥 배어서 조금도 용납이 없고 용서할 줄 모르고, 또는 남의 탓을 하고 남을 원망을 하고, 내 종교 네 종교만 따지고 이럽니다. 한 그릇 안에서 사는 다 같은 구더기가 더 잘났으면 얼마나 더 잘났겠습니까, 네? 그 항아리 속에서 벗어나려고는 안 하고 항아리 속에서 네 집 내 집 하고 들입다 싸우고 있으니…,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냥 졸졸이 졸졸이 물질계에 붙어서 사니 여러분이 이 몸에 착을 둬 가지고, 내가 공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는 생각에 착이 꽉 들어차서, 아픈 것도 아픈 게 붙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아프다 뭐다 하니까 더 아플 수밖에 없죠. 왠 줄 아십니까? 몸속의 악업 선업들이 원수 갚으려고 나오기도 하고, 인연에 따라서 모든 걸 갚으려고 요거 나오고 조거 나오고, 때를 찾아서 잘 나오는 것을 아, 그것을 모르고 자꾸 속는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 놈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숙명통 컴퓨터에 입력이 돼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내가 요놈의 거를, 나오는 거를 컴퓨터에다 다시 입력을 해 넣어야겠다.' 왜 요런 생각을 못하십니까? 그래서 컴퓨터에다 다시 입력을 해 놓으면 앞서 입력됐던 게 아주 없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그 업보라는 게 어디 붙을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가 일초에 몇 바퀴씩 돌아갑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너희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니라." 하셨는데, 우리가 고정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은 많지만 그건 이름대로 이름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됐다가 금방 남편이 됐다가, 금방 자식이 됐다가 금방 형님이 됐다가, 아우가 됐다가 금방 사위가 됐다가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금방 어떤 것이 됐을 때에 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자고 남자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걸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은 나라는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팥죽 그릇에서 팥죽 끓듯, 팥죽 방울 나오듯 그냥 나오는 걸 가지고, 제 솥에서 팥죽 나오는 걸 가지고 꼭 조상 탓이나 하고, 딴 데서 무슨 세균이 붙어서 병에 걸렸다고 하고 또 딴 데서 마가 들어서, 가난이 들어서, 병고가 들려서 이렇다고 하시니 여러분은 참으로 나같이 어리석습니다. 허허허, 나같이….

나도 사실은 못나고 못나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무지렁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왜 이런 길을 걷게 했나?' 하는 생각에 하늘을 쳐다보고 악을 쓰면서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사람의 콧구멍은 내리뚫렸는데 소 콧구멍은 치뚫렸기 때문에 먼지가 끼어서 막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뭘 그러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는 뼈저린, 그 못난 생각을 다시 한 번 돌려서 이렇게 생각했죠. '못났으면 못난 대로고 잘났으면 잘난 대로고 크면 큰 대로고 작으면 작은 대로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1년 9월 1일 부산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옳은 게 하나도 없고 그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으면 작은 대로 쓸모가 있고
크면 큰 대로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 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 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천지운명
건강 120세

여러분들의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상담 환영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 페이지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던지 민간 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 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발원하며,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1 어떠한 병이라도 민간요법으로 치유할수 있음을 사실 그대로 이 책자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2 특히 기관지 천식, 심장병, 피부병에 관한 민간요법이 탁월합니다.
3 명절 선물용으로 최고로 실속있는 책자이며, 어느 집이고 꼭 필요한 민간요법서 입니다.

H·P 010-4496-6060 / 팩스 043)881-1359
입금계좌 : 농협 351-0862-7188-33 (예금주 : 천운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입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라운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불자 세상보기

가을의 가장 큰 날… 모두의 축제로



문윤정
수필가 · 여행작가

아침저녁으로 부는 소슬바람에 기운이 난다. 밤낮없이 우렁차게 울어대던 매미소리도 그치고, 밤이면 귀뚜라미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마음은 벌써 가을의 우수에 젖는다.

동산 선사에게 한 제자가 "추운 겨울이 올 때는 또 더운 여름이 올 때는 그것을 피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다. 동산 스님은 "추울 때는 얼음물에 뛰어들고, 더울 때는 뜨거운 물속으로 뛰어들면 될 것"이라고 했다. 추울 때는 추운 곳으로, 더울 때는 더운 곳으로 가란다. 인생사는 물론이고 더위마저 정면 돌파하라는 가르침이다. 나는 한 여름이나 한겨울에 선사의 말을 읊으면서 더위와 한기를 이겨냈고, 삶이 힘들 때마다 선사의 말을 되새겼다. 하지만 108년만의 더위 앞에 이 말은 무색했다.

108년만의 폭염 앞에, 태어나 처음으로 겪어본 더위 앞에 머리마저 안개가 낀 듯 흐릿할 정도였다. 서민들은 비싼 전기료가 무서워 에어컨마저 함부로 틀 수 없었다. 비싼 전기료도 서민들의 여름을 더욱 덥게 만들었다. 과실들도 스트레스를 받아 당을 축적해야 하는 제 할 일을 하지 못했고, 사과도 화상을 입어 짓물러버렸다. 이제 온 산하를 뜨겁게 달구었던 폭염이 슬그머니 물러섰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지면 해가 뜨는 것은 만고의 진리. 시간이 가면 더위도 물러서겠지, 가을이 오겠지 하면서 시간에 기대어 여름을 견디었다. 이런 폭염을 보내고 맞이하는 한가위라 예사롭지 않다.

곧 팔월 한가위다. 한가위는 가을의 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의미이니, 가을 중에서도 가장 좋은 날이다. 너른 들판은 황금물결을 이루고 오곡이 익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가을은 분명 축복의 계절이다. 부모와 친지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가는 길은 마음이 먼저 달려간다.

부처님은 '친족이 없는 것은 잎이 하나도 없는 나무와 같다' 고 했다. 우리는 일가친척을 만나러 가니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서로 보듬어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우리 인생에 그리 많지 않다.

올 추석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어보자. 귀찮다는 이유로 가게에서 사다가 차례상에 올리기도 하는데, 송편 빚기를 통해 모두가 참여하는 흥겨운 축제로 만들어보자. 축제가 별것인가? 송편을 빚으면서 웃음이 터져 나오고, 노래 가락이 척 걸쳐지고, 입

"나와 친지 소망 발원한다면
내 마음도 보름달같이 넉넉할 터"

담 좋은 사람이 풀어내는 만담이 있으면 축제가 되지 않는가. 송편 소와 함께 화기애애한 웃음소리와 끈끈한 정까지 담아 빚어낸 그 송편은 한동안 기쁨의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다.

명절 때 마다 터져 나오는 노동에 대한 며느리들의 불만도 이참에 해소해버리자. 남정네들이 소매 걷어붙이고 앞치마 두르고 부침개를 구워보자. 모양이 좀 이지러지면 어떤가? 한가위는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오곡과 과일이 풍성한 계절에 맞이하는 한가위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넉넉하게 만든다.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인생이 별거냐면서 웃음을 잃지 말고 살자면서 덕담을 주고받는 것도 한가위의 미덕이다. 좀 부족해도 이해해주고, 투정을 부려도 받아주는 것이 가족이요 친지들이다.

한가위의 결정판은 보름달이다. 짙푸른 밤하늘에 두둥실 떠오른 보름달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일이다. 옛사람들은 풍요로움과 다산을 상징하는 보름달 앞에서 소원을 빌었다. 온 가족이 은백색의 달빛을 밟으면서 마실 나들이를 갈 수는 없어도 보름달 앞에서 소망을 빌어보자. 나의 소망도 빌고 가족 친지들의 소망을 기원한다면 내 마음 또한 보름달같이 넉넉해지지 않을까.

한가위의 기쁨을 옛사람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표현했다. 도회생활에서 이리저리 다친 마음을 서로가 다독여 주면서 이왕 맞이하는 추석 명절을 축제로 만들자.

특별 기고

2600년 前 '고오타마 불교' 로 돌아갈 때



황경환
동국대 평생교육원 교수

얼마 전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현각 스님이 한국불교를 떠나겠다고 했다. 그 이유로 유교적 관습, 남녀 국적 차별, 형식주의, 스님과 신도의 차별 등을 들었다. 그리고 덧붙인 말이 외국 스님들은 장식품(데커레이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국 불교의 기복신앙의 맹점, 금전과의 고리사슬 등을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 8월 18일자 문화일보에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힌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께서 10년 내에 한국불교가 존립할 수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뜻으로 위에서 언급한 눈 푸른 납자의 뜻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홍 스님은 승가는 "부처님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각오를, 신자들에 대해선 불교의 최대 강점인 수행 종교로의 변화를 제기했다. 사실 한국불교의 문제점이 거론된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독일 쾰른 숲의 페트노이야르는 독일 지식인들로부터 거지 성자로 존경받는 불교수행자다. 그는 2003년 어느 기고문서 이렇게 적었다.

"교단이 비대해감에 따라 허례허식이 생겨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 나라서 불교 성직자들은 전통을 중요시하는 평신도들의 믿음과 무지를 이용해 불법승 삼보에 대한 의식을 집전케 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여섯 감각의 호사를 누리고, 계율을 지키지 않고, 기만을 일삼으면서도 그 잘못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의 과보는 살아생전에 안 받더라도 적어도 죽은 다음에 삼계 육도의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초기불교서 삼보(三寶, 불 · 법 · 승: 佛, 法, 僧)가운데 승보는 사문들의 집단 공동체인 승가(僧伽)를 말하며, 사문이란 사쌍팔배(四雙八輩;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도(道)와 과(果)를 성취해 성현의 계위에 오른 성자들을 지칭한다. 그래서 미륀다팡하(미란타 왕문경)라는 기원전 150년경에 쓰인 초기불교 담론서(미얀마에서는 이를 소부경전에 포함)의 귀경게(歸敬偈)에서는 승보에 대한 예를 이렇게 올리고 있다. '계율행의 공덕을 갖추고 네 가지 과위(果位)에 이르며 무상의 복전(福田)이 되는 성스러운 승가(僧伽)에 귀의 합니다' 라고 말이다.

불교의 최고 목표는 깨달음이고 열반이다. 무지(無知)와 갈애(渴愛)로부터의 해탈이고, 재생(再生)의 연속인 윤회로부터의 해방이다. 이것의 완성을 열반 또는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깨달음' 이란 무엇이며, '신심(信心)' 은 무엇이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용맹정진' 은 무엇이며, 다시 말해 교학체계(온 · 처 · 계 · 근 · 제 · 연)와 실참수행 체계(37보리분법)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교학 체계와 실참수행 체계의 토대가 될 때 깨달음이라는 피안의 목적지를 향해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방법 외에 또 다른 열반과 깨달음을 향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고오타마 붓다의 불교는 아니다. 선택은 각자에게 달려 있다. 이제 우리는 2600여 년 전의 고오타마 불교로 돌아가야 한다.

고오타마 불교는 21세기 과학이 지향하는 과학의 불교다. 분명한 교학체계와 그 교학체계를 바탕으로 한 실참수행을 어떻게 하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오타마 붓다가 가르쳐준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가는 만큼 자신에게 옛날에 경험하지 못한 행복과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주제별로 설하신 내용을 모아놓은 〈상윳따니까야〉 제17.2 낚싯바늘경의 내용서 "수행승이 이익과 존경과 명성에 집착하면 그 수행승은 마라가 던진 낚싯바늘을 삼켰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익과 존경과 명성은 두렵고 혹독하고 고약한 것이다. 그것은 유가안은(瑜伽安隱)을 얻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했다. 결국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갖 폐단이 생긴다.

社說

사찰차례 확대, 포교 기회로 삼자

최근 명절 풍속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15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민족의 추석 나기는 짧고, 가깝고, 실속 있는 방향으로 급격히 변화해 왔다. 귀성객들의 고향 체류 기간은 1박 2일을 가장 선호했다. 반면 3박 4일은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와 비례해 확대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사찰 합동차례다. 서울 조계사의 경우 2013년 846가구에서 2014년 905가구, 2015년 955가구로 증가했다. 강남 봉은사는 2013년 1055가구에서 2014년 1145가구, 2015년 1172가구로 꾸준히 늘었다. 2부제에서 3부제로 시간을 확대한 사찰들도 적지 않다. 사찰 합동차례가 확대되는 이유는 편리성과 더불어 저렴한 비용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사찰 차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단순히 편의성 증대에만 사찰이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차례 대행업에만 집중했을 경우 차례 문화 쇠퇴와 더불어 외면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가족과 친지, 이웃과 마음과 물질을 나누는 본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 이를 사회적으로 확장하면 다문화가족, 이산가족,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돕거나 통일발원기도 등 민족 명절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기도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농경과 유교문화가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전통을 유지하는 불교가 세시풍속을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시풍속에 대한 보존과 노력은 국민들을 불교로 끌어들이는 포교가 될 것은 분명하다. 시대의 조류를 읽고 이를 불교 발전과 포교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 국민 공감이 필수

국립공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람료 제도를 전면개편해야 한다는 불교계 안팎의 목소리가 크다. 관람료 징수의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49조다.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징수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다. 징수 장소나 방식, 금액 등이 징수자의 자율에 있는 것이다. 종단 내에도 이에 관한 규정은 없다. 사실상 사찰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다.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사찰은 탐방객이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금액과 징수 당위성을 갖지만 어떤 사찰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관람료를 내는 탐방객을 비롯한 국민들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의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는 사용처 신고 또한 다시 도입돼야 한다. 1990년대에 규제 철폐란 명분으로 사용처 신고제도가 사라진 이후 징수 명분은 더욱 사라졌다.

불교계는 국민들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불교에 대한 국민여론, 신뢰만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먼저 문화재를 관람하고 싶은 마음을 관광객들이 내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불교계가 기울였는지 반문하고 싶다.

징수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교계 내부로는 규정을 새로 다듬고, 관람료를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에 대한 충분한 국민 이해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 보존은 불교계 뿐만 아닌 국민 모두의 일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당위성을 지닌다면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금은 징수가 아닌 기부라는 이름으로도 충분히 모을 수 있으니 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8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깨달음 공개강좌

• 신청접수 : 각 회차별 무료예약 (선착순33명 제한)
예약신청을 미리 하지 않으시면 출입할수 없습니다
• 문 의 : 1899-9532
• 강 사 : 깨달음센터 - 방장 진귀



※ 공개강좌 일정

〈2016년〉

1차 공개강좌 : 주제 : 암은 깨달음과 무슨관계인가?
일시 : 2016년 6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2차 공개강좌 : 주제 : 고통 해탈문
일시 :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오후 3시

3차 공개강좌 : 주제:법화경과 깨달음
일시:2016년 10월 23일 일요일 오후2시

4차 공개강좌 : 주제:업(業)과의 전쟁
일시: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오후2시

〈2017년〉

5차 공개강좌 : 주제 : 입법계품의 지혜
일시 : 2017년 1월15일 일요일 오후2시
6차 공개강좌 : 주제 : 자살과 깨달음
일시 : 2017년 2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7차 공개강좌 : 주제 : 정견(正見)과 사견(邪見)
일시 : 2017년 3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8차 공개강좌 : 주제 : 나 또한 세상을 바꾸는 힘
일시 :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오후3시
9차 공개강좌 : 주제 : 자유와 평등
일시 : 2017년 5월 21일 일요일 오후3시
10차 공개강좌 : 주제 : 화엄선(華嚴禪)
일시 : 2017년 6월 18일 일요일 오후3시
11차 공개강좌 : 주제 : 53 선지식
일시 : 2017년 7월 16일 일요일 오후3시
12차 공개강좌 : 주제 : 달마와 원효
일시 : 2017년 8월 20일 일요일 오후3시
13차 공개강좌 : 주제 : 깨달음센터의 수행법
일시 :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오후3시
14차 공개강좌 : 주제 : 암과 사리
일시 : 2017년 10월 22일 일요일 오후2시
15차 공개강좌 : 주제 : 고통과 병통은 왜 오는가?
일시 : 2017년 11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16차 공개강좌 : 주제 : 자비와 사랑
일시 : 2017년 12월 17일 일요일 오후2시

※참고 : 각 회차별 공개강좌의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안목으로 고통을 만들어 왔고
현재도 안목이 진귀와는 다르며
앞으로 이 다른 안목의 고통멘토를
꼭 받고 저 하면.....?

● 진귀(眞歸)방장 과의 친견 ?

1. 진귀는 불가사의한 수행자로서 대다수 범부들의 안목인 종교,종단, 문중, 학력, 등등 유위적 분별심으로는 진귀 방장의 가치와 수행경계를 가늠하기가 불가능하오며 더욱이 이 세상의 기존 수행법들의 식견(識見)과 지견(知見)로는 믿고 받아 지니기가 어렵고 어려움이 백천만겁난조우의 비유와 같은 수행자 이다.
2. 2016년 현재, 진귀방장께서는 법회, 기도, 신도단련, 천도재 및 각종수련 및 선수행 등등을 일체 애써 수행치 않으면서도 늘 평온함이 물러나지 않는 수행자로서, 오직 〈깨달음논강〉과 붓다의 깨달음 세계의 〈창조적 역경작업〉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특히, 공개강좌 외의 법문요청, 강의요청 및 친견요청 과 취재요청 등등을 일체 사절중에 있으며, 혹 간절하고 간절한 친견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소속 사찰에서 만 배(10,000배 : 1:1 친견시만 해당됩니다. 공개강좌는 제외)를 5일 이내에 마친 후 만 배 확인증을 제출하신분에 한하여 친견을 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 센터

※ 공개강좌 예약신청 후 참석하지 않으신 분은 다음 강좌부터는 예약신청 및 참석이 불가능합니다.